
팔공산 갓바위

현대불교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제859호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음력 9월 30일 · 불기 2555년 · 주간)

우리문화재 ▶3면

공력을 들이면 들인만큼 나오게 돼있어요.
마음을 크게 쓰는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선거 하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간 불교 공약이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불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 박원순 후보는 10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기도회 5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해 각자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불교 문화유적 보전을 위한 전통문화보전법을 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나경원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후보는 고등학교 때 청담 큰스님이 지도하는 룸비니학생회 활동을 했고 광덕 스님의 지도아래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왔다. 또 2007년에는 만해대상, 2009년에는 불교인권상을 받은 불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 박 두 후보는 행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24일에는 조계사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선거 막판까지 불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불교 관련 공약은 대부분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전통문화거리 조성에 집중돼 있을 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누가 당선 후 강하게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가 불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나경원 후보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복궁-북촌 한옥마을-인사동-조계사-운현궁-창덕궁-종묘'를 잇는 전통문화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마케팅과 연계해 안정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후보는 "연등축제와 사찰음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세계인의 축제인 연등회와 어울림 마당 지원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후보들, 불심(佛心)에 호소
템플스테이 지원 등 강조
공약 차이 없어 실천 관건

박원순 후보 역시 조계사가 포함된 삼청동 가회동 인사동 청계천 등을 한국의 전통문화축으로 연결해 전통문화역사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도 연등행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모두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후보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템플스테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회의와 세미나에서 전통사찰을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박원순 후보 역시 템플스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당선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종교 갈등을 고려한 탓인지 종교 관련 인사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는 불교계와의 안정적 소통을 위한 담당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종교화합과 소통을 위해 종교계에 식견이 있는 인사를 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서울 시민의 선택에 수도권 포교의 미래가 달렸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859호 CONTENTS

종합 2~4
통일부 장관, 조계종에 사과
조계사, 포교 패러다임 바꿔
양용은 골퍼 홍보대사 위촉

인터뷰 · 고은 시인 5

평화대장경판 봉안법회 10



현장속으로 11
조계종vs곰두리 축구단 친선경기





만산홍엽(滿山紅葉)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설악산이 먼저 절정을 맞았다. 10월 18일 백담사가 있는 백담계곡에는 많은 불자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계곡에는 불자들의 서원이 담긴 돌탑들이 넘쳤고, 숲은 간절한 서원 만큼이나 붉게 물들어 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국대 앞 선교 막던 스님 고소 당해

종립 동국대 앞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교인들을 제지하던 스님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져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국대 교법사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10월 21일 "인근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학교로 들어와 주의를 줬지만 무시당해 유인물을 거두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9월 21일 20~30대 추정 여성 4명이 학교를 찾아왔으며 스님은 선교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들의 유인물 배포를 막아섰다. 유인물에는 하나님 존재와 종교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설문조사, 교회 소개 등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목사를 포함한 교인들은 동국대 법당인 정각원에 몰려와 전날 스님이 수거한 유인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에서의 선교활동 외에 더욱 불교계의 공분을 사는 것은 이들 교인들이 스님을 '업무방해'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한편, 동국대에서는 1990년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든 동국대와 불교의 상징인 코끼리 장엄등이 3년간 불탔으며 2000년 동국대 본관 앞 청동 석가모니불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지는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훼불행위가 진행됐었다.

유종우 불교대 학생회장은 "일반 학우를 위장해 강의실을 빌려 예배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를 찾아오는 인근교회도 한두군데가 아니다. 역대로 불교대 학생들이 선교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변화 위한 비구니계 목소리 듣겠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당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니계의 목소리를 화합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명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명우 스님은 1366명의 투표인 중 765표를 획득했다. 같이 선거에 후보로 나선 운달 스님은 564표를 얻었다.

선출 직후 운달 스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명우 스님은 취임 소감으로 화합을 강조했다.

명우 스님은 사상 첫 선거를 치룬 소감에 대해 "불교 발전을 위한 비구니계의 여러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며 "이번 선거가 획기적인 만큼 운달 스님의 공약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명우 스님은 1937년 생으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동화사에서 사미계를 수지, 혜암 스님을 계사로 수덕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충남 개심사에서 성능 스님 문하 사교과를 수료하고 경북 청암사에서 고봉 스님 문하 대교과를 수료했다. 동화사 내원암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미얀마 마하시 수도원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명성여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중앙포교원 최초 상임포교사를 맡는 등 교육 · 포교 일선에서 불법홍포에 나서왔다. 제 7 · 8 · 9 · 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단일계산특별구족계 사미니, 비구니 갈마위원, 전국포교사단 부단장, 광동학원 이사,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전국비구니대학 학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국비구니회 서기 · 교무 · 총무부장 ·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구립 발산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장, 구립 공항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장,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특별계단 존중아사리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나는 기자다

불교계 최고 전문지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이 신심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전공분야	모집인원	근무지역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	취재기자(신입 · 경력) 편집기자(경력)	전공 제한없음	0명	서울

지원자격
가. 2012년 2월 4년제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단,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기졸업자에 한함
나. 성별 무관
다.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에 한함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불교 · 일반상식)
다. 면접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포트폴리오(경력자에 한함)

전형일정
가. 10월 26일~11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
(formula666@paran.com)
나. 11월 8일 1차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다. 11월 14일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
라. 11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1차 합격자에 한함)
각종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다. 경력자 우대
라. 급여조건은 회사 내 규정에 한함(최종합격 후 면담에 의해 결정)
마. 문의사항은 formula666@paran.com 혹은 (02)2004-8205
홈페이지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참조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전통사찰 아니라고 개발논리에 휘청

무분별한 재개발 때문에 사라질 위기 처한 서울 전등사


성북 전등사 대웅전은 현대건축과 불교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로 꼽힌다.

근현대 선지식 해안(海眼; 1901~1974)스님이 창건한 서울 성북구 전등사(주지 동명)가 일방적인 지역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과 시공사(대림건설)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시찬)와 전등사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하면 성북동 3구역 일대에 11층 임대아파트와 2·5·7층 주택 등 21개 동이 들어선다. 당초 전등사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계획안이 변경되며 추가로 편입됐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계획안에 50%에 달하는 추가편입은 시행사 이익과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서울 전등사는 1972년 해안 스님이 창건한 도량으로 1977년 현위치로 이전, 대표적 도심수행처로 자리했다. 해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한 동명 스님이 도심선방으로 안거 시 20여 명이 용맹정진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사격 확장으로 건물이 신축됐으며 특히 300평 규모의 대웅전과 식당은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있다.

전등사는 10월 15일 법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은 "주민에게 문호를 열고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며 "전등사에서 지역주민모임을 열어 재개발을 막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네를 지키자"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성곽을 비롯해 운보 김기창과 아내 우향 박래현 화백 집터에 세워진 운우미술관, 그리고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동명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가 깃들어 있고, 신도들의 신행공간인 도량을 폐사시켜야 하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사찰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전할 경우 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신도들의 신행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도법 스님도 "현 정부의 무분별한, 무차별적 개발논리로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등사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길 바란다. 개발측 인사도 이곳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시찬)에 따르면 재개발 반대는 242명이며 찬성은 345명이다. 찬성의 비율이 높지만 반대쪽 주민 소유 면적이 3만6363㎡로 재개발 구역(6만8000㎡)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현재 재개발 추진은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로 50%의 분양신청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시간문제로 보인다. 성북구청이 6월 9일 성북구청이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60개월 내로 마무리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서울 흥천사, 강북 포교 거점된다

조계종 장기미입주사찰을 "주민위한 공간 탈바꿈"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오른쪽)이 인수증을 받고 있다.

조계종 미입주사찰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서울 흥천사(주지 정념)가 조계종 사찰로 정상화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10월 21일 흥천사 점유 스님들과 거주민들로부터 사찰 운영권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6월 흥천사 주지로 임명된 이후 5개월 만에 사찰 운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한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은 이날 "앞으로 흥천사가 문화와 역사가 넘치는 곳이 됐으면 한다. 조계종의 서울 강북권 포교와 사회활동의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경내지에 남아있는 22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비 지급으로 이미 2가구가 이주하며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만해결 될 것으로 전망한다. 흥천사 정상화 이후 도량을 주민산책로 등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짝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념 스님은 이어 미입주사찰 문제가 타결되기를 기원했다. 스님은 "아직 종단에는 미입주사찰이 많이 남아있다. 미입주 문제는 어렵지만 뜻을 모은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흥천사 미입주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다른 미입주 사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향후 흥천사 문화재 전수조사를 비롯해 가람 정비 등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흥천사에는 현재 극락보전과 명부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있으며 흥천사가 소장 중인 200~300년 전 탱화 6점, 불상 2점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흥천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둘째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396년 창건된 전통사찰로, 숭유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온 사찰이다.

흥천사는 정화운동 당시 비구승 측과 대처승 측의 화합을 주장한 화동파 스님들이 점유한 미입주 사찰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마을화되며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조계종에서는 타종단 스님 4명에 대한 보상금 2억원과 22가구에 대한 이주비 66억원에 전 주지 자재 스님이 JD홀딩스와의 불법매매계약으로 받은 16억 5000여 만원을 포함해 총 84억 5000여 만원의 재원 소요로 인해 토지 매각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토지매각 없이 흥천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을 비롯한 교계의 여론이 형성되며 정념 스님이 주지로 임명돼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신계사법회 관련 혼선 사과합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조계종 사과방문해

남북 불교교류의 승인과 불허를 번복했던 정부가 조계종에 공식 사과했다. 이에 조계종은 '공존'과 '상생'의 대북교류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며 신계사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겠다고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

통일부 류우익 장관(사진)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13일 신계사 복원 4주년 남북합동법회 관련 방북 승인 번복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류 장관은 "신계사 법회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 더러 불편했더라도 스님들께서 크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류우익 장관은 "7대 종단 방북이 큰 성과가 있었다. 종교계 어른들이 방북해 민족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교류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을 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장관님의 방문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표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라고 물었고, 류우익 장관은 "그렇게 하시라. 정부가 여러 사정으로 (조계종에)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답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공존'과 '상생'으로 정리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정부가 이를 잘 이해해 종교적인 순수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에 배석했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지난번 신계사 법회를 앞둔 방북 번복이 세 번째였다"며 "이번 사과는 일단 받아들이지만 통일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봉은사 선·교·율 대법회 연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1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5차례에 걸쳐 계 '선禪·교敎·율律 대법회'를 봉행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둘째 주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법화경〉을, 셋째 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서장〉을, 넷째 주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법구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마지막 행사인 다섯째 주에는 재가자를 초청해서 그들의 신행 이야기를 듣는다.

조동섭 기자

관음사 차기 주지 선거에 4인 출마

26일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 주지선거에 현 주지 원종 스님과 도종 스님(월라사 주지)과 성효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진우 스님(법화사 주지)이 입후보했다.

제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4명의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교구 내에서는 일부 후보간 연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태고종 종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저희 태고종도 대부분은 현 총무원 집행부와 운산 전 총무원장측과 그간의 불화과정과 유인물들을 접하면서 실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그저 이웃집 불구경 하듯 관망만 하며 뒷말만 많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켜보는 종도들이 각각 견해를 달리하면서 종단을 불신하여 애종심이 이완되면서 편이 갈라지는 것 같아 총무원과 종단의 중요 직책을 가지고 계신 원로 중진 큰스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1천여 대륜문도를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우리 종단의 현재 상황을 걱정하면서 협의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태고 종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승가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다함께 구종의 길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태고종은 불조의 혜명을 계승한 대륜대종사를 비롯한 종단의 선조사 스님들께서 태고종조의 종지를 받들어 목숨 받쳐 지켜온 정통종단 입니다.

한국불교 분규 당시에 전국 1,000여 전통기성사찰에서 타의에 의하여 강제로 퇴거당하면서 흘렸던 피눈물을 잊지 않고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을 지키기 위하여 유점사의 경성(서울) 포교당이었던 불이성 법륜사에 총무원을 이전하고 종단 중흥을 위하여 전종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 협력하여 종단 기반을 다져 왔던 것입니다.

불이성 법륜사는 한국불교의 정통법통과 법맥을 계승해 오신 대륜노사께서 창건하시고 주석하시면서 7,000여 법려들을 이끌고 종단을 수호하고 발전시켜오는데 기여한 근본도량으로 우리 종단의 구심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도의 구심도량인 불이성 법륜사에 태고종을 창종하신 대륜 노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20억원이라는 대작불사를 시행하여 전통문화전승관과 총무원사를 완공하였을 때 우리 태고종도는 함께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환희용약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현 인공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전임 운산총무원장과 대부분 우리 문도들이 앞뒤로 도와서 인공총무원장이 당선되어 또한 기뻐하였으며 앞으로 종단은 그동안의 불협화를 일소하고 전 종도가 화합하여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전 총무원장과 현 총무원장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심한 갈등을 일으키더니 현직 총무원장을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종단을 대표했던 전 총무원장을 멸빈시킨다는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종단 내부의 문제를 세속법에 호소하고 좌우당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마치 함께 타고 가던 수레나, 같이 살고 있던 집을 서로가 부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종단발전의 초석을 다시 놓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화경의 가르침을 실천 하며 종도간 서로 탁마상성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 방안이 있고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임 운산총무원장과 현 인공총무원장이 마음을 털어 놓고 대화를 한다면 무슨 문제라고 풀지 못할게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종법으로 징계하고 사회법으로 나가는 것이 언론을 통해 종도들과 세간에 회자되면 우리 종단에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현재 야기되고 있는 종단의 모든 문제는 다툼의 양상을 지양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서 결자해지로 풀어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고종도들은 해탈과 교화의 길(깨달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입니다. 다함께 불보살의 동체대비심과 태고종조의 원융정신과 창종주 대륜 대종사의 불이의 사상으로서 원융화합하여 현실을 타파하고 종단을 중흥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도가 불지혜로서 현시점을 전환점으로 하고 새로이 대법륜을 굴릴 수 있는 바른 큰 길을 찾도록 합시다.

불기 2555년 9월 19일

대륜화상 문회 이사회

‘지역 조직화’ 화두로 포교 고민 한방에

지역 모임 · 어린이 교육 강화
새로운 접근으로 다각적 활동

조계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인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지하 2층에는 어린이 전용 법당이 마련된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조계사는 ‘넌 학원가니? 난 조계사 간다’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린이 전용 법당에서 실시해 포교에 교육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면 사회 진출 후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는 법회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계사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어린이 법당으로는 포교에 한계가 있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넌 학원가니? 난 조계사 간다’는 불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세계사 탐험대’, ‘우리역사 탐험대’, ‘미술 탐험대’ 등의 역사 및 미술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다. 조계사는 앞으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 예체능,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계사 선림원이 참선으로 성인들의 불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다면 ‘넌 학원가니? 난 조계사 간다’는 어린이들의 불교 소양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과 어린이 등 모든 계층에 걸쳐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겠다는 조계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계사는 또 지역조직화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활동의 체계화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조계사는 신도들을 거주지에 따라 서울시 25개구별로 분류하고, 각 지역별 대표자를 선정했다. 지역모임은 방생법회나 각종 행사 때 지역 신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며, 평소에도 지역의 불교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 또한 주지 토진 스님도 직접 25개 지역별 모임에 참석해 신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 생활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포교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 지역 모임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조차 지역 모임의 건의사항과 여론을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다. 10월 17일 조계사를 방문한 한 국회의원은 지역 모임 대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당 지역구 신도들의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기도 했다.

조계사는 5월부터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 동참을 결의하고 ‘백제 미소길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0월에도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조계사에 전시된 국화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진 한나라당 의원, 전세균 민주당 前 대표,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나를 비우는 미소기도 행복순례’를 진행하며 서산마애삼존불을 참배하고 보원사지 복원의 중요성 등을 신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16일 순례에서는 서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해 불교 활성화 및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17일에는 신도들과 주지 스님이 서울시장 선거와 투표의 의미에 대해 3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조계사는 지금 국화향기가 가득하다.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행사가 10월 21일~11월 10일 조계사 경내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전남 함평군에서 공수된 국화는 조계사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해 불자들은 물론이고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조계사는 국화 축제 기간 동안 교리 경진대회와 실버 예술제, 국화 영산재, OCI미술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대회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함평군의 우수한 농 · 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해 도농교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이런 활동들이 모두 지역모임의 구심점이 된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고 불교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①**

우리가 진실로 절실한 적 있었던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慶山 八公山 冠峰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431호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 선본사



경북 팔공산 남쪽 관봉(冠峰) 정상에는 누구나 지성으로 기도 드리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다는 약사여래좌상이 있다.

9세기 조성된 석불로 보물 제431호인 이 불상은 ‘관봉 석조여래좌상’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머리에 갓을 쓴 생김새 때문인지 ‘갓바위 부처님’으로 더 유명하다.

갓바위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가에 선본사가 내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뤄질 것”이라는 플래카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갓바위 부처님을 쉴 새 없이 찾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관봉에 올라본 사람이라면 알지만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가파른 등산로에도 마음 속 소원 하나를 빌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부처님 품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간다. 자력 · 타력신앙 등 거창한 말로 구복신앙의 이기심을 비웃기 이전에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위해 진실로 절실했던 적이 있던가를. **조동섭 기자**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전혀 줄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여전히 설치
6 · 2 지방선거 비교 2배 증가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교회 등 특정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금지를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서울특별시민의 종교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는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 행위다. 지금이라도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종평위가 선거를 앞두고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2206개 투표소 중 28개 투표소가 종교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개신교 시설 23곳, 천주교 시설 4곳, 대순진리회 시설은 1곳이다. 특정 종교의 시설로 의심되는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종평위는 모니터링 결과가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유사하며 지난 해 실시된 6 · 2 지방선거 때 설치된 종교시설 투표소 14곳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또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을 접종하면서 서울시 25개구 중 10개 구가 종교시설에서 접종을 진행했다. 종평위는 13일 관계당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2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를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자연은 특히 “8월 실시된 무상급식 투표 때 종교시설 투표소 중 상당수가 인접한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에 따르면 신림동 제2투표소였던 A교회 인근에는 신림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다. 중앙동 제1투표소인 B성당에는 산봉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이유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 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재가연대 김동건 대표 돌연 사임 표명

불교계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김동건 상임대표가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10월 13일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열린 재가연대 임시총회에서 “내년 초 정기 총회까지 사무국 정상화와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연대는 김 대표 후임 논의와 조직 진단을 위한 TFT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김동건 대표의 사임 승인은 내년 초 열릴 재가연대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낙산사, 종부세 부과 부당해 대법원 간다

“사하촌 특수성 불구 과세 부당”
판례로 남을 경우 파장 우려

경내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 중인 낙산사(주지 무문)가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는 낙산사가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낙산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사찰 소유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등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로 볼 때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종부세가 부과된 지역은 양양군 전진1리와 2리 등 낙산사 사하촌 일대다. 이곳에는 일부의 상점과 일반 주택들이 분포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 경 80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됐다. 낙산사는 전통사찰 경내지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낙산사가 고법에서 패소하자 전국의 각 전통사찰들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전통사찰들은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경내지인 사하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산사와 종단도 재판부가 사하촌의 특수성에 정확한 이해 없이 세무적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단과 낙산사는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사찰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며 재판을 하는 것은 낙산사가 최초다.

총무원 재무부 김영주 팀장은 “전통사찰은 공적기능을 한다고 봐야한다. 세무적인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낙산사 법주 정념 스님은 “상가보다 민가가 더 많은 지역이다. 발생하는 소득도 낙산사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활동에 쓰고 있다. 재판부의 현장 실사가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판례로 남을 경우 재판부가 획일적으로 판결할 수 있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행운을 잡는 나를 찾는 참선을 합시다

나를 찾겠다는 생각을 정하면, 그 순간 천 갈래 만 갈래 가시밭길을 헤매며 힘 빼고 곤두박질치는 일은 꼬리를 감추고 접게 됩니다.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 보살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지 않으니 재앙도 업장도 없고 수그러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를 따르지 않으니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참선의 길에는 행운이 있을 뿐입니다.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참선의 길로 나서면서 행운은 시작됩니다.

행운을 만나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최상의 참선을 잡은 것은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선지식의 한마디를 듣고도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참선의 수승함 그대로 받아드립시다.

참 선 대 축 제

제6차 참선대중화선회 삼매체험수련회 단기출가

선 회 3일	삼매체험수련회 8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입재 : 11월 11일(금)	입재 : 11월 11일(8일)	입재 : 11월 11일~
회향 : 11월 13일(일) 오후 3시	회향 : 11월 18일	

입재시간 오후 3시

단식

몸에 밴 관행 체질전환,
참선 단식으로 해결

행운이 다가가는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나를 찾는 참선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이어트 1일최고 3kg, 금연 금주 해결 요요현상제로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 면역성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공포불안 사고암기력 자신감 담력대범
단식(무단식-선택) 〈청소년 대학생 일반〉

2011 겨울 수련일정8일(12월, 1월, 2월)

1차 - 12월 23일 ~ 30일	2차 - 1월 7일 ~ 14일
3차 - 1월 20일 ~ 27일	4차 - 2월 18일 ~ 25일

접수,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에서 받습니다
☎ 1644-5266, 070-7519-9929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活 인人 선禪 원院(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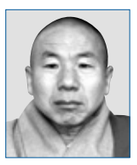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은 11월 11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5306



정련스님 일맥문화대상 수상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일맥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일맥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1회 경산갓바위축제

경산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10월 28~29일 갓바위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1회 경산갓바위 축제를 개최한다. (053)804-7472



화엄사 2011화엄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0월 29일 화엄사 특설무대에서 2011화엄제 '기쁨마중'을 개최한다. (02)703-6599



보문사 환수 공로패

민을식 하동 보문사 신도회장은 10월 17일 4년 여에 걸친 보문사 소유권 보호 공적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권대자 포교사 대구예술상

권대자 포교사(정현사 대구문인협회 간사)는 10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11대구예술상을 수상했다.

전통불교원 본부장 정안 스님

사무국장에는 광전 스님 임명



정안 스님



광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7일 공주 전통불교 문화원 본부장에 정안 스님을, 사무국장에 광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정안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무처장,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가타보원사 주지다.

신임 사무국장 광전 스님은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교육원 연수국장, 용궁사 주지, 국제선센터 국제국장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 보존 넘어 콘텐츠 생산을

은관문화훈장 받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우리 전통문화는 후손들로 하여금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문화의 창달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한국의 출판과 문화, 문화재를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72 ·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겸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정부로부터 10월 15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향한 그의 정열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별로는 故 박경리 박완서 백남준 작가 등이 추서 받은 금관문화훈장과 생존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으로 알려진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이 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70%가 넘는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지정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민족문화는 우리 민족의 DNA에 저장돼 온 것이다. 불교문화유산에는 170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가 팔만대장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1년은 초조대장경 1000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김종규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성출판사가 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은 이런 기념비적인 세월의 흐름 외에 숫자 3000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1년 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200여 회원을 1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 수가 2000명을 넘어 3000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향한 그의 열정은 임권택 감독 등 유명인은 물론이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와 피에르 쿠뢰 '앙드레말로 국제친선협회' 회장 등 외국인까지 가입시켰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을사늑약의 현장인 덕수궁 중명전,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전남 보성의 보성여관, 서울 통인동 이상 시인의 옛 집터 등 셀 수 없이 많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TV드라마 '선덕여왕'을 예로 들며, "드라마 한 편이 역사적 사실 외에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복식 연구 등 다방면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별도로 이를 통한 콘텐츠 생산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등서 활동 중인 한국스님들 덕분에 한국불교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것이 혜초 의상 원효가 꿈꿨던 모습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계도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공심(公心)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자신이 박물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소장품으로 갖고 있던 문화유산을 대중과 함께 향유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을 더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문화유산들은 선조들이 릴레이식으로 이뤄온 것"이라며 " (문화와 문화재 사랑에) 완결이란 있을 수 없다. 후임자에게 바톤 터치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02)732-7524 문화유산국민신탁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김의정 회장, 옥관문화훈장

10월 15일 2011문화의 날 맞아 수상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2011년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옥관훈장을 수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광부)는 10월 15일 강릉 임영관 관아에서 '2111년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서훈했다.

문광부는 김의정 회장에 대해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사업 및 전통문화보급 등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같은 훈장을 수훈했다.

김의정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다도의 진흥과 세계화를 비롯해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사업,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 및 봉사활동, 전통문화 보급과 인재양성 등 한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김의정 회장의 이번 문화훈장은 모친인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이 2000년 5월 '차의 날'을 맞아 보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데 이어, 11년 만에 모녀가 2대에 걸쳐 문화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의정 회장은 이번 훈장 수훈에 대해 "우리 민족문화이 고유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 수호와 창달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10년 젊어진 진흥원, 반드시 달라진다

만장일치 추대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제13대 이사장



"젊은 발상과 진취적 행보 위해 진흥원이 먼저 대중에게 마음의 문과 귀를 열겠다."

대한불교진흥원의 김규칠 신임 이사장(사진)의 일갈이다. 김 이사장은 10월 14일 대한불교진흥원 제142차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0월 20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대 소감과 계획 등을 밝혔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 이사장이 영광된 자리라기보다 불교문화 창달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추대 소감을 대신했다.

김 이사장은 "진흥원 변화는 이사회의 의지 · 주문에 따라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출을 비롯해 새로 이사로 영입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구상진 서울시립대 교수만 봐도 이사회가 10년은 젊어졌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김규칠 이사장은 "젊은 세대로 이사진이 교체되고 있는 것은 발상을 젊게 하고, 진취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젊은 발상과 진취적 행보를 위해 과거 진흥원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되 불교와 문화를 새롭게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규칠 이사장의 새로운 시도는 '문화를 통한 불교포교'와 '불교를 통한 문화창달'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김 이사장은 "현대는 통섭과 융합의 시대이다. 통섭과 융합에는 불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사장을 비롯한 새 이사진 선출 과정을 비롯해 대원상 선정 등 진흥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어느 재단이든 이사 공모를 않는다. 심사과정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검토 후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BBS불교방송 설립 · 운영, 사찰환경 개선 사업, 군불교, 대학생불교 등 불교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줘 왔다. 그러나 BBS불교방송만 봐도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개선점은 있겠으나 이는 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닌 불교계 전체의 문제이다.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BBS불교방송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주고 노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신임 이채원 사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영담 스님과는 이제 관계가 개선됐다"며 "BBS불교방송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BBS이사장 영담 스님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사장의 첫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진흥원을 설립한 장경호 거사의 뜻을 원칙으로 두되 사업과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점차 진취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양용은 불교홍보 나선다

템플스테이 홍보대사에 위촉



'바람의 아들' 프로골퍼 양용은(사진)이 템플스테이 홍보대사에 위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양용은 선수를 템플스테이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아시아 남자선수 최초로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어 이번 템플스테이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단은 "치열한 우승 경쟁 속에 있는 스포츠선수들의 집중력과 평온한 마음가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위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양용은 선수는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봉인사 Templestay

가피명상 상(相)상(想)템플

상담이 있는 명상

내(內)적 효과

★ 현재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음
★ 억눌렸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됨
★ 복잡한 생각들과 지속되는 마음의 재잘거림으로부터 벗어남
★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음
★ 해결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음
★ 평온, 고요함, 행복과 환희를 경험
★ 지금의 현실에서 만족감을 찾아 느낄 수 있음
★ 대인관계가 원활해 짐을 경험할 수 있음

외(外)적 효과

★ 상황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관점이 바뀌어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됨
★ 상황자체에 변화가 일어나 모든 관계에서 균형,조화,성공을 이루게됨

	가피명상	상상템플
참가비	50만원	9만원
일 시	매월 넷째주 화요일(5박 6일)	매주 토요일(1박 2일)
장 소	봉인사 (경남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2리 304번지)	
대 상	자신의 성찰 및 성장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 수	www.bonginsanet / 031)574-5585	
입금계좌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시 수행센터

우 수완나 사야도의 위빠사나(통찰) 집중수행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스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위빠사나(통찰) 명상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수행 전, 수행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차근 차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U Suvanna 사야도께서는 Mahasi 큰스님의 지침하에 위빠사나 용맹정진 course 수행을 하셨으며, Mahasi 센터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들로부터 Mahasi 국제명상지도 큰스님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치시고자 한국으로 오셨으며 봉인사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일정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 11월 27일
♣ 장 소 : 봉인사 www.bonginsa.net
♣ 동 참 금 : 1박에 3만원(12만원) / 스님 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필기도구, 편안한 복장

미얀마 파욱 센터의 수행방법 지도

구니카 스님 초청 집중 수행

파-욱 수행센터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큰 수행센터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곳입니다.
캐나다, 미국,페루 등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 지도 중이신 **'구니카 스님'**을 특별 초청하여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9일 – 15일까지 6박 7일간** 부처님께서 수행사하고 가르치셨던 정통수행법인 사마타(지)와 위빠사나(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니카 스님'은 직접 체험하신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자상하고 상세한 수행지도와, 빨리어 경전의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훌륭한 법문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수행일정 2011년 11월 9일 ~ 11월 15일
신 청 전화접수, 문의 : 031)574-5585 www.bonginsa.net
참 가 비 스님 1일 2만원 / 재가자 1일 4만원
입 금 처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장 소 봉인사 한길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2리 304번지

한국 스님들, 중국 선사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어

15년 만에 소설 〈선〉 재출간한 고은 시인

"저쪽에 있는 거 다시 여기로 놓고 싶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위해 '선(禪)'을 한다. 옛 선사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많은 수행자들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하게 정진해 왔다. 최근에는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故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제품 디자인이 '선(禪)'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우리가 손에서 한시도 놓지 못하는 아이폰의 배경에 '선'이 있었다는 말이다.

한국문학의 큰 산이라 불리는 시인 고은. 그는 "선은 그냥 여기저기 도처에 편재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詩)가 자신의 종교요, 시인이라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고은 시인이 최근 15년 만에 소설 〈선〉을 재출간했다. 책은 초조 달마에서부터 육조 혜능까지 중국 선종 6대조의 선사들의 치열했던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고은 시인에게 과연 '선'이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다.

-소설 〈선〉을 15년 만에 재출간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은의 작품세계는 '선(禪)'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에서의 '선'은 어떻게 이해돼야 하나.

나는 수행 생활에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선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선의 흐름들을 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내게는 산중 생활을 할 때 선에 대한 강렬한 집중을 바쳤던 기억은 있습니다. 〈선〉도 그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쓰게 된 것입니다. 1950년 후반 선배 시인인 조지훈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 분은 한암스님의 영향으로 '선'에 대한 남다른 깊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 조지훈 시인은 '중국선', 저는 '고려선'에 대해 함께 집필을 해보자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조지훈 시인이 6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산중생활을 마치고 속세로 돌아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운허 스님이 제게 〈화엄경〉의 '입법계품'으로 서사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소설 〈어린 나그네〉를 집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지훈 시인과의 약속이 떠올랐고, 본래 조지훈 시인이 쓰려던 '중국선'을 제가 맡아 쓰게 됐습니다.

다만, 역사기술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소설로 엮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스즈끼 스님으로부터 유럽에는 선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선'이 문학형식을 통해 넓혀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책 속에 있지도 않고, 찰나에 있지도 않고 햇빛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도처에 편재해 있을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간화선에만 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든 현대인들이 '참 나'를 찾기 위해 점차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선(禪)'은 서양인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서양에서는 '선'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재출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선은 달마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본래 우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소리에 의해서도 선을 봐야하고, 또 세상의 모든 형상을 통해서도 선을 만나야 합니다. 15년 전에는 선은 이쪽(동양)에는 있지만, 저쪽(서양)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쪽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다 놓고 싶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남방불교, 중국불교, 일본불교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한국불교의 '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지구상 도처에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5년 전 〈선〉을 출간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선이 많이 대중화 돼 있습니다. 선은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명상법, 치유의 방책 등으로 다양하게 번성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림하는 간화선 같은 비대중적인 선만이 선은 아닙니다. 한국선은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 불교계 안에서도 간화선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재기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중 선방에서부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선은 이미 고대서부터 서양에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18세기부터 서양의 여러 나라에 일본의 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세상에서는 한국이 자아를 알고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때문에 많은 서양인들은 한국의 선이 중국이나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세 500년 동안 한국은 자신을 폐쇄하고 오직 중국에만 경도돼 있어 자아를 확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선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임제선(臨濟禪)은 본래 중국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특한 선인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현재의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장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중국 법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선사의 법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송시대의 중국 승려 앵무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서양에서 한국선을 몰라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일본강점기를 비롯해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자아를 형성시키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숭산 스님 등을 통해 이제 막 세상에 한국의 자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손만대에 가면 중국이나 일본의 선보다 한국에서 독실하게 이어져 온 이것이, 선의 커다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계가 국민 · 사회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차원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도 출범시켰다. 한국불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조계종의 이번 결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는 몇 번의 결사가 있었고, 또 괜찮은 성과를 얻은 결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광사가 그랬고, 강진 백련사의 백련결사 등도 잘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담배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버린 결사도 있었습니다. 나는 결사를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합니다.

-'시인'으로 불러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었다. 이번 소설 〈선〉을 비롯해, 시 외에도 평론, 에세이, 번역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넘나들며 집필을 하고 있는데.

내 종교는 '시'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도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라는 닫힌 방에서 문을 걸고 작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열린 공간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떨 때에는 노래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지, 옛날의 틀에 의한 다른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식과 장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늦게 장르가 정식화되면서 사람들은 그 장르에 속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편안함으로부터 불편한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문학'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문학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문학은 앞으로도 많이 해외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로 갔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져갈 겁니다. 세상은 부정할 것도 많고 긍정할 것도 많습니다. 나는 한쪽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를 딱 두 개로만 쪼개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집필계획은 어떠한가.

너무 할 것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른 걸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재출간된 〈선〉을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는가.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읽는 것이 아마 달콤한 길음은 아닐 겁니다. 조금은 고행의 여정이 따라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화제의 책!!!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화제의 신 간



2011 KBS 특집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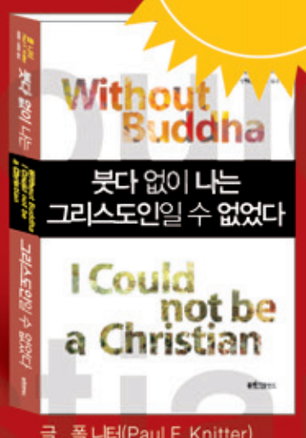
한국 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에 출연한 폴 니터 교수의 신작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떠한 자세로 실천하고 다가서야 하는지를 그 어느 사상가, 실천가보다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_ 진제 스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평생 니터 교수의 신학적 작업을 추동해 온 두 가지 실천적 관심, 즉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해방적 관심과 헌신, 그리고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불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_ 길희성



글_ 폴 니터(Paul F. Knitter)
정경일 · 이창엽 옮김
정가 19,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문의_ 02-2198-5151

다시보는 만암 스님…첫 학술대회 열린다

조계종 5대 총림 하나인 백양사
지정은 늦었어도 결성은 가장 빨라
반농반선 청빈 사판 만암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의 근간 키워

조계종 5대 총림 중 마지막 총림 지정을 받은 백양사. 고불총림 백양사는 사실 가장 먼저 총림을 자체적으로 결성한 곳이다. 1947년 만암 스님은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함양, 승풍진작 등 3대 목표 아래 호남 20여개 사암과 포교당을 동참시켜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한 것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냈고 반농반선으로 현대 청빈 사판승의 사표로 추앙받는 만암 스님에 대한 재조명 자리가 마련된다.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와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만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만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사회로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가 '만암의 생애와 불교사상',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만암의 수행과 백양사 강학전통', 김광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가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 한동민 수원시박물관 학예팀장이 '만암의 교육활동',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이 '만암의 교화활동, 내가 들은 만암 스님'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이종수 동국대 연구초빙교수,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나선다.

백양사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2012년 '만암대종사의 정화사상'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논문집과 만암대종사 평전, 백양사 사지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만암 스님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1세이던 1886년 백양사 도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6세 구암사(龜巖寺) 전문강원에서 한영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10여년 가까이 경전 연구에 몰두하던 만암 스님은 환응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받고 이후 강의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스님은 백양사로 돌아와 교육사업에 매진한다. 백양사 청류암에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립하고 기존 강원제도를 혁신한다. 광성의숙에서는 약 100여 명의 학인들이 모여 선과 교, 율 등을 공부하며 다른 교육도 병행했다.

만암 스님은 1917년부터 10여 년에 걸친 중창불사에 착수하는데 특히 스님의 중창 불사는 철저하게 사찰의 자급자족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양봉(養峰) 또는 죽기(竹器)로 '선불장' 공동기금을 조성했다. 중창불사 후 스님은 불교 교육사업에 나서 1928년부터 3년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했으며 1947년에는 광주 정광중학교를 설립해 7년간 교장을 역임했다. 금호고속과 전남 방직의 모태인 전남여객 버스회사와 전남베어링 공장을 세우기도했다.

194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있어 만암 스님은 조계종 교정(教正)으로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만암 스님은 비구승 중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비구승단 내 강경세력과 마찰로 인해 스님은 백양사로 내려왔다. 1947년 장성 백양사에서 이뤄진 고불총림 결성은 정화운동 과정



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백양사로 돌아온 만암 스님은 후학 양성에 몰두하다가 1957년 세속 나이 81세, 법랍 71세의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만암 스님 입적 58년인데 너무 소홀했다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1947년 만암 스님께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내건 것은 일제 식민지 불교 체제하에서 발생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8·15 해방 이후 종단 안팎에서 정화의 바람이 불 때 만암 스님은 종단 내부에서 자주적인 불교정화를 모색하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화를 펼쳐나가고자 했습니다.

고불총림이 등장하기 이전 해방 이후부터 이듬해인 1946년 12월까지 불교계에서는 식민지불교의 극복과 교단 정화를 둘러싸고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교단 집행부와 재야혁신단체의 다양한 의견에도 교단정화의 노선과 방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성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만암 스님은 1947년 2월 스님이 거주하던 백양사에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고불총림은 백양사에서 거주하는 상주대중만에 한하지 않고 전라도 일대 각 사찰대중을 한데 어우르는 총림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식민지불교 청산을 전제로 정화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내려는 만암 스님의 혜안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만암 스님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정화운동을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암 스님의 정신은 정화 실천에 있어 기존교단과 차별성을 지녔으며 추진에 있어 개방성, 점진적 추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만암 스님은 총림의 실천방안을 제시해 식민지 불교 잔재에 대한 화합의 강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애석한 점은 아직 만암 스님에 대한 종단 차원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스님 입적 후 58년이 흘렀지만 기록물 정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스님의 사상 조명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뭐라할 권리 없다 불교가 빌미 주지 않으면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사방승가의 불교는 그 시작부터 세간의 왕권과 출세간적 교권의 기능과 역할을 서로 승인하며 출발했다. 이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금욕생활로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기에 가능했다."

조준호 고려대 교수는 10월 19일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에서 〈세기경〉을 토대로 '초기불전에 나타난 불교와 국가의 관계'를 조명했다.

이날 조 교수는 국가와 불교가 세간과 출세간을 담당하며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가의 목적은 백성들간 분쟁을 조정해주고 살인과 도둑질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 확충에 있으며 불교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계도가 그 기능과 역할이었다.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 오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붓다가 제시한 국가와 불교의 기능과 역할은 공동체 화합과 소통의 의식측면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인류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잘못된 결합은 비극을 빚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서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의 문제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왕권과 교권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승인하며 출발한데는 승가가 권력과 경제권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준호 교수는 "작금의 시대에는 탁발과 보시의 비영리활동과 독신에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종립대학들, 불교학 자료 공동 연구키로

각 대학 도서관 공동 이용
공동 연구 등 학술교류 추진

불교계 종립대학들이 불교학 발전을 위해 각 대학 도서관 공동이용 및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종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는 10월 17일 종립대학 불교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사업은 학술회의 개최 및 협동연구 추진, 학부 및 대학원 학점교류, 불교학 관련자료 교환열람 등이다.

협의회 회의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배도순 위덕대 총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종립대학 대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 9명 선발

이자랑 · 박인석 · 김호귀 · 이종수 · 김기종 박사 등 정년 보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0월 19일 인문한국(HK) 연구 사업에 동참하는 연구교수 9명을 최종 선정했다.

동국대 인문한국 초빙심사위원회가 진행한 심사결과에 따르면 총 34명이 지원한 가운데 '인도불교 분야'에 이자랑 박사, '동아시아 분야'에 김영진, 고승학, 박인석 박사, '한국불교 분야'에 김호귀, 정영식, 박광연, 이종수 박사, '한국불교 고전어문학 분야'에 김기종 박사가 각각 선정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8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사업에 선정돼 매년 약 5억원씩 향후 10년간 50억여 원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교수는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정년이 보장되며 최대 10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복발' 불교정신 어긋나 속히 폐기해야"

이희봉 중앙대 교수, 선리연구원 발표회서 주장

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18일 서울 선학원에서 제15차 월례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월례발표회에서는 이희봉 중앙대 교수가 '중국 번역 불교의 불탑 오류 1800년', 최경아 동국대 강사가 '떼비자 숫따에 나타난 종교관의 재정립'을 각각 발표했다.

이희봉 중앙대 교수는 "한자 문화권에서만 사용하는 불탑번역용어 중 뒤엎어 놓은 공양밥그릇 '복발'(覆鉢)은 불교 근본정신에 어긋나므로 하루빨리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발은 부처님 몸체를 나타내는 탑의 신성한 상징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며 "깨어나 무한히 뻗어 나가야 할 알의 성질을 나타내는 '불란'(佛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탑 꼭대기 전체가 원반 바퀴 모양이 아님에도 상륜부라 칭하는 호칭 또한 더 이상 해서는 안되며 대안으로 '상탑부'(搭上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특히 "탑 꼭대기 바퀴인 '상륜'(相輪)은 바퀴가 아니다. 부처님께 씌워주는 '양산'(陽傘) 의미로 법륜과 혼동돼서는 안되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탄허기념박물관 1주년 기념식

제1회 금강경 강송대회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에서는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보살사상 만일(萬日)결사 선포식과 함께 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선,간경,염불반으로 나누어 진행될 보살사상 실천운동은 불자로서 개인보다 사회에 이익을 주고 세상을 더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참된 보살상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널리 알리고 수지독송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금강경 강송대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불기2555년) 11월 26일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식전행사 : 금 강 경 강송대회 시상식 (오전 10시)
■ 본 행 사 : 보살사상 만일결사 선포식 (오전 11시)

1. 응 모 자 격 : 일반부 : 사대부중
학생부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연령제한없음)
2. 대 회 일 정 : 1차대회(필기) - 2011.11.19.(토) 10:00 ~ 12:00
2차대회(강송) - 2011.11.19.(토) 13:00 ~ 17:00
3. 대 회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4. 전 형 료 : 일반 - 2만원, 학생 - 무료
5. 접수마감일 : 2011. 10. 31 (월) 오후 5시
6. 지원서 및 모집요강 : 탄허기념박물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tanheo.org)
7. 우편접수 및 문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3 금강선원 02)445-8484
8. 결과 발표 및 시상식 : 2011. 11. 26. (토) 오전 10:00
9. 상 금 : 대 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특 별 상 20만원

■ 주최 : 오대산 월정사, 탄허불교문화재단, BTN불교TV,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금 강 선 원

대만 불교의 성장 뒤에는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불광연구원, 15일 '대만불교 조직체계와 리더십' 조명

경상도 크기의 국토에 2300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 하지만 불교가 교육, 포교, 봉사 등 사회 각 분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나라. 현재 세계불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만불교의 조직체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만불교의 조직체계와 리더십'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대만불교는 현재 세계에서 한국불교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불교를 대표하는 4대 종파인 불광산, 중대선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의 현실적이고 사회참여적 성격과 함께 정관계를 비롯한 사회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체계와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는 열의가 높다.

대만 불교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양정연 한림대 연구교수는 대만불교 교육의 특징으로 "개창조나 특정개인의 사상, 저작을 학과 과정에서 배우거나 연구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복엄불학원의 경우 인순 법사의 사상이 교과과정에 있으며 법고산은 성엄 사상을 연구하며 법고 종풍을 잇는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또 불광산도 성운법사의 저작과 사상을 교과과정에서 학습·연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런 특징이 승가교육에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니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대만에서 주목받는 향광니승단은 교육은 지적인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활동과 수행을 같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 있다"며 "개인의 해탈 추구와 함께 종교적 봉사와 헌신이 이뤄질때 종교인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불광산사의 인재양성을 예로 들며 "불광산도 승가교육은 지식과 의례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홍법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불광산 모든 별원과 분원은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끝으로 "한국불교의 조계종도 수행과 실천과정에 있어 출가자의 방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승가교육에서 사회실천을 담보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야한다"고 말했다.

대만불교의 전법과 포교활동은 다양하다

이상미 국립 대만대 겸임교수는 대만의 포교활성화 저변에 각 종파간 특색있는 위치 선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교수는 "대만불교는 1949년 중국불교회가 입성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이후 많은 종파들이 나뉘며 자유롭고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 종단은 각기 '인간불교', '자선, 의료, 문화, 교육의 4대불사', 불교교육기관 건설, 사회사업을 주축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만의 경우 상좌제도의 개념이 없어 사찰을 물려주거나 법통을 이어가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그 각자의 특색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것이 순수불교의 색채를 넘어 사회불교로 또는 민간신앙으로 자리하게 해 불교에 대한 반감을 적게하고 어릴 때부터 접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낳게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는 민중 참여 행사가 큰 사찰에 국한돼있다"며 "세부화된 지역구분, 특색있는 사찰간 접근을 통해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만 불교 지도자의 리더쉽은?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대만불교 부흥의 원동력을 각 종단 지도자들의 리더쉽에서 찾았다.

> 대만의 승가교육은 의식·의례 아닌 포교
> 사회실천 담보하는 프로그램 활용이 특징
>
> 한국은 큰 사찰에서만 민중참여 이뤄져
> 특색있는 사찰 모아 지역민에 다가가야

김호성 교수는 "대만불교 부흥의 역사는 그리 길다 할수 없지만 훌륭한 불교지도자들로 인해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대 종파의 대만불교지도자들 중 자재공덕회 증엄 선사의 리더쉽을 분석했다. 먼저 김 교수는 "영향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증엄 선사는 자비와 원력에 기반한 실천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동참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과학의 리더쉽 이론에 비추어 볼때 증엄 선사의 리더쉽은 민주형이고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의 절충이며 보살형 리더쉽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추종자들에 의해 부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증엄 선사의 경우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로 자리했는데 이는 증엄 선사 스스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자제공덕회 회원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실천을 대행한다는 자각을 가짐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증엄 선사의 관음적 리더쉽은 관음신앙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자 전범으로 전세계 불교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광산 개산 40주년 기념 조산예불 수지활동. 개산 초심을 다지기위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사룩산문 본산 굴산사 고대도시와 함께 조명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10월 20~21일 강릉 관동대에서 '고대도시 명주(溟州)와 굴산사(堀山寺)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릉시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10개년 중장기 학술조사 업무협약에 의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굴산사지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보존·정비를 위한 발굴(시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9세기 이후 한·중·일 동아시아 고대도시와 지방불교가 후대에 끼친 사상적 영향 및 문화유산 등에 대해 고고학·미술사·역사학·불교사상사·민속학·건축학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이 모색됐다.

한편, 강릉 굴산사지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문(闍堀山門) 본산으로 범일 국사(梵日國師)에 의해 개창된 이래 수차례 홍수피해로 인해 사역의 대부분이 유실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럼에도 강릉 굴산사지에는 석조공예의 극치를 보여주는 굴산사지 승탑(보물 제85호)과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가 남아 있어 사세를 가늠케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천구 부산대 외래교수 '삼교지귀'로 지원 선정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지원하는 올해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에 정천구 부산대 한문학과 강사가 선정됐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0월 18일 제8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으로 번역부문에서 정천구 박사의 〈삼교지귀(三教指歸)〉와 〈변현밀이교론(辨顯密二教論)〉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교지귀〉와 〈변현밀이교론〉의 저자는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우카이(空海; 774~835) 스님으로 〈삼교지귀〉와 〈변현밀이교론〉은 당시 일본 한문학과 불교의 이해 수준과 함께 문학, 사학, 종교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긴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 쿠우카이 스님의 구도과정을 보여줘 일본 진언종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제8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여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렸다. (02)539-2631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30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문화재 환수,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

문화재환수위, 노다 요시히코 日 총리 의궤반환 환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이번 의궤반환을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입니다. 이번 반환을 계기로 약탈문화재환수운동을 국민과 민족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과 함께 직접 반환한 〈대례의궤(大禮儀軌)〉 등에 대한 입장을 10월 1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했다. 이들은 조선왕실의궤 반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환수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궤환수위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정부가 포기한 문화재를 불교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양국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번 반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문화재 환수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반환청구권을 포기해 일본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요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환수위원회는 5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이끌어 냈다. 반환이 결정된 도서들은 12월 10일까지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번에 직접 반환한 책은 〈대례의궤〉를 비롯해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순종의 왕세자 시절 결혼식 과정을 담은 〈왕세자가례도감의궤〉 등 5권이다. 〈대례의궤〉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도서이며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수위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1월 12~13일 경복궁에서 조선왕실의궤 환수의 의미를 담은 국민환영행사와 오대산 사고지에서의 고유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를 통해 조선왕실의궤환수의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약탈과 문화주권을 주제로 전국 순회공연과 국외 반출 문화재의 정보를 담은 2012년 달력을 제작·배포하고, 반출문화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민들이 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환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수위는 또 제2기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강화한다. 국회에서도 '국외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돼 환수위의 활동을 지원한다. 김의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대표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도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계승·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정부 노력 소극적이다

혜문 스님, 정부 태도 지적
반환 의궤 저평가 반박해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사진)은 조선왕실의궤 환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했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문화재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가 방한과 함께 반환한 도서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규장각에서 대출한 뒤 반환하지 않은 도서들이 포함돼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이라며 66종 938권을 대출했다.

혜문 스님과 환수위는 2006년부터 규장각과 문화재청에 대출 도서의 반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혜문 스님은 "대출 도서가 반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정부는 궁내청에 보관되지 않은 도서들에 대해서는 일본에 반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혜문 스님은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가 어람용이었던 외규장각 의궤와 달리 분상용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낮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환되는 의궤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이런 평가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반환은 경술국치 100년의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일본 정치의 가장 큰 상징인 궁내청에 보관됐던 책이 돌아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승리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혜총 스님, 마지막까지 불교사랑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법당 및 승려노후복지기금, 승가교육진흥기금 등 3000만원을 전달했다.

퇴임을 앞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10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군법당 및 승려노후복지기금 2000만원과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을 지내시는 동안 많은 기금과 후원을 하시더니, 마지막까지 불교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모습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총무원장 스님 덕분에 나도 포교원을 잘 이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자성과 쇄신의 동참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포교원, 모범 불자 교도관 표창… 교정교화 본격 지원

모범수용자 자녀들 위한 장학금 500만원도 지급



(왼쪽부터) 김영찬 교위, 현강 스님, 혜총 스님, 포교국장 남전 스님, 김희종 책임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교화시설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 모범 불자 교도관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혜총 스님은 10월 17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의정부 교도소(지도법사 지일) 김영찬 교위와 서울남부구치소(지도법사 법운) 김희종 책임관에게 상장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찬 교위는 3년간 의정부 교도소 교정교화 불교담당 주임을 맡으며 재소자 소양 교육 및 불자양성에 힘을 쏟았다. 김희종 책임관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 등 위기 수용자를 관리하고 직원불자를 중심으로 신행회를 조직해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혜총 스님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에게 모범으로 있는 불자 교도관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할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물적 지원은 포교활동의 단초가 돼 교정교화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이날 모범수용자의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500만원을 원주교도소(지도법사 혜원)와 성동구치소(지도법사 본공)에 전달했다.

교정교화 전법단장 현강 스님은 "교도소 포교활동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 재소자들은 한순간 실수로 구금이 되면 경제적으로 가정을 지원할 수 없어 정신·신체적으로 힘들어 한다. 이럴 때 포교원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전달식이 교정교화 포교발전에 초석을 이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지난 1월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을 출범했다. 포교원은 그동안 춘천교도소, 영등포교도소 등 8개 교도소에 불교도서 340권을 지원했다.

또한 불교 수계법회 시 수용자들에게 통일된 수계복을 입고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계복장 250벌을 각 교도소에 제공했으며 모범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들에게 지난 7월 춘천교도소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미래 불교 재가자 손에 달렸다"

불교 총지종 창종 40주년… 통리원장 지성 정사



"기지개를 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 마련했습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 정사·사진)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총지종 교도들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음악예술제를 연다.

통리원장 지성 정사는 10월 17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교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9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홀에서 사회화합을 위한 통일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성 정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총지종은 창종 당시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불교 실천에 역점을 뒀다. 40년을 맞아 총지종이 기지개를 켜고 대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성 정사는 "총지종은 창종 이후 '나라의 안녕과 조국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공공서원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불공을 올려왔다"며 "이 일환으로 답보 상태의 남북관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문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불교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활불교, 재가불교를 표방하는 총지종은 대중과 함께 하고자 도심 공연장에서 공연을 연다.

지성 정사는 "기존의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진 공연위주의 행사였다면 총지종은 이를 과감히 탈피해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지종은 이에 앞서 10월 27~29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경희대에서 '제5회 국제 재가 불교지도자대회'도 개최한다.

지성 정사는 "2007년부터 세계 20여 개국 50여 학자와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해온 이번 대회는 창종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졌다"며 "세계여성불자협회 회장 크리스티나 장과 진 리브스 중국 북경 인민대 석좌 교수 등이 참가해 재가불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성 정사는 또 "오늘날 많은 재가불자들이 다양한 신행과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자의 손에 달렸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가불자 성장의 의미를 상호 이해하고 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천하대도 모든종교의 최 고수가 되어 에델과학 천지공사로 자신의 생명인 운전수가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아 즉시견성도통 득도하는 마음에 성품인 부처되는 대법회

● **모든 종교로** 염불정진 화두정진 참선정진 수행으로 성불했다하더라도 담원견고, 보탑견고, 선정견고, 투쟁견고, 해탈견고의 정진수행으로는 넘지 못하며 견성성불을 하고 선정에 들어간다해도 마장의 장난이며 귀신놀음에 지고마는 것이다. 그이유는 화두인 (시습마) 이것이 뭣고 하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대도는 즉시 부처가 되는 마음을 보는것이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 생명을 가진 수행자들이 시여 견성도통의 핵심은 생명이 하나이거늘 네종교 내종교에 싸우고 옳고 그르고 애고지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인 즉 마음을 찾지 못하고 사람은 자기집에는 현관으로 들어 다니면서 자신의 운전수가 들어다니는 현관문인 마음의 문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수행도중 화룡신선님으로부터 사사하셨으며생포태를 전수 득도 하시고 생포태 핵심인 생로병사 공의 삼매에 들어가 마구니들의 장난을 항복 받으신 공의 고 집 진 도의 핵심의 고는 중생을 괴롭히는 자 누구냐 집은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는 제도해야한다. 이 제도법은 천장지비에 감춰진 60일에 한번드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경신수행일에 제도되는 것이다. 도의 근본은 생명이고 마음이며 마음의 생명은 누가 제도 하느냐 그것은 빛이 관리하며 빛은 태양이 관리하는 것이다. 부처님 열반 후 후 500세 동안에서는 방편불교로 고 집 멸 도의 반야심경이었으나 이제는 에델과학시대가 도래되고 생존시에 고행으로 부처님께서금강경 첫장에 행을 보이신 에델과학인 걸식을 하여 제자들과 천이백오십인을 먹이시고 예수님도 보리떡 세개로 오천명을 먹이신 핵심인 것이다. 불교는 종교와 과학을 넘어 신지학인 마음찾아 부처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 경신수행으로 오통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은 할수 있으나 누진통 육신통만은 제바달다품에 견성도통과 성불은 겨자씨가 들어가는 문에 비유하시고 누진통을 하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

● 참선정진 독경 화두 견성 수행자들이 귀신마장과 인마 수마, 병마, 색마의 지고 자신의 일신 성불 못하는 것은 업장에 가리어 현관에 빛을 모르기에 수행부족으로 주저 않고 기도 수행중 서출동휴수를 철분과 DNA인 지장수를 하루에 천CC이상을 운모단과 연부단을 복용하며 수행하여야 팔맥이 살아나는 금단체로 몸을 만들어 그 어떠한 귀신도 진태인 도깨기방망이로 마장도 마장도 이길수 있는 마음장생법인 마음의 부처를 천마신공 육신통이 누진통으로 정신의 세계 심신의 세계 육신세계인 삼신이 하나되는 진법이 영보장쟁 일신성불로 불립문자 견성성불은 법왕달마 묘법수행인 것이고 마음을 봐야 부처가 되어 처처불이요 사불범정이라 일만이천 조정불이요 12인연이니라 인연의 근본은 마음심자이고 마음심자는 팔만사찰 귀납경의 핵심이며 반야심경의 근본이고 반야심경은 여래후 모든 경전과 말과 글과 문자를 2,500년 동안에는 방편불교로 범소유상 개시허망의 고집멸도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고집진도의 본문불교시대가 되어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금강경 진법 사구게 이제는 본문불교 우담바라의 달마묘법 팔품인 마음을 찾아 생명의 문을 여는 금강경 사구게 수육보영 수산정이요 산다천지 진민봉이며 천영화상 종족천이요 정결종락 도천명이로다. 이 진법 사구게는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선포하오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경신화두정진 수행으로 지구촌 모든 종교가 하나되는 핵심의 근본은 생명이고 빛이며 태양의 빛이 현관문으로 들어가기에 성령이 들어가는 곳이 현관이므로 모두가 하나로 되는 것이다. 고집진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 이종선근이며 생정신자니라. 참선 화두 정진은 견성한 자들이 독불이 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27대 반야바라 존자님들께서 에델과학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모두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생로병사 공 고집멸도 사만다사구게 사성제 삼계를 관장하는 심자인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방편불교인 말과 글과 염불 독경 주력 고행정진 참선화두 수행인들이 이뭣고를 세친보살과 용수보살이 소승 대승으로 불상에 의지하여 불법과 마음의 근본을 말살시킨 이유인 것이다. 심자의 핵심은 心 일만이천 도통군자 사명사 인류스승의 자리인고로 12인연법이며 생명으로 마음으로 이어지는 선성의식 자성의식 악성의식 억의식 환상의식 괴멸되어야 루진법계인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보여야 意에 라가야만이 누진통을 하는 것이다. 7식 8식 9식 10식 11식 12식은 수행인의 화두로 찾을 것이고 12법장의식은 부처님께서 도판에 화룡신선님께 사사받아 마음의 문을 열어 일체마장을 항복 받은 진법이 태양이요 빛이며 생명이라 던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법왕달마묘법 본문 불교로 마음을 열고 즉시 성불하는 화두수행 정진이 신묘년 양력 10월 31일 밤 9시와 11월 1일 9시에 들어 천지공사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핵심은 모든 종교에서 내놓은 비법인 것이다.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생사문이며 성품이니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것은 생명이 현관에 있기에 하나로 되는 것이다. 道法에서는 생아지문, 불교 – 불이문 정법안장, 도교는 황정, 주역은 정이거체, 명덕은 군자시중 대학은 지지이유정, 자사는 체와중용, 논어는 조석도석사가위, 자공은 성, 신광은 일지가어디로, 팔괘는 리궁구자, 오행–중앙정위, 자자–중야자, 오본도인은 사람은 성품, 선불은 번천복지, 역경은 무극논장경장은 일문, 율론은 천이문, 천문은 일서, 존사는 일신, 부모미생전은 일성분, 유교는 궐성봉로, 도교는 반본환원, 불교는 본문시 성품이 축이다. 카톨릭은 거존혈, 기독교에서는 성령, 주찬은 서천의 불조, 단시는 일관진전, 학용은 행주좌와, 여조는 인순, 유가는 의, 도가는 일심유의 도심유, 의는 적이고, 심은 신이고, 성은 군이므로, 불교는 공이요 유교는 성리이며 도교는 윤리치생이니 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근본이 현관으로 시작되나니 종교의 자성자리가 마음이고 본래면목이므로 모든 종교가 돌아가니 유불선 종교가 천지공사 본집으로 하나되어 대일여래 창조주인 생명의 빛으로 하나되는 천지공사인 것이다. 지구촌 천지 개벽을 이끌어갈 이시대의 선구자들이여 일만이천 사명자 도통군자 인류스승의 마음을 열어 견성도통하여 천지공사 만들수 있는 박홍래총재 특별 도통법 강의를 하오니 동참하시어 일만이천 도인대열에 입문하여 중생을 모든 종교의 중생을 구합시다.

● **입제 : 양력 2011년 10월 31일(음 10월 5일 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11월 1일(음 10월 6일 화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전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널목건너 악사회 골목 우측

서울부산동시법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 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박홍래 총재
천 지 공 사 웅 조 법 왕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십팀 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환성.태일 대사 합장

아 파 트 특 보 복 지 원

개요 :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아래의 기업과,재단,사단법인은 사업 이윤을 사부대중과 사회에 기부하여 자리이타를 실천한다.

주제 : 1.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주택(아파트)을 저가로 제공한다.
2. 노스님들과 노인대중을 위해 복지후생을 실천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평당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750세대)을 서민에게저가로 공급한다 (평당600만원선)

2. 사업 계획 : 서방정토극락세계구현

토지 3000평 허가득 봉황산끝자락 서남향 노스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원을 건립한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보재단(가칭)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좌–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전현수 원장

지난 과거와 다가올 일에 무심하면… "행복하다"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의 저자 전현수 원장이 11월 19일 열린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의 다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 전현수 원장은 자신의 위빠사나 수행 경험담과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 원장은 "과거와 미래에 끄달리지 말고,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저자 전현수 원장은 과거 · 미래가 아닌 현재만을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마음의 두 가지 작용

저는 위빠사나를 통해 몸과 마음의 본질을 알고 난 뒤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찬메명상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좌선과 보행명상, 일상생활에서는 행위 관찰로 이뤄집니다.

좌선에서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코 주위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거나, 호흡으로 인해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저는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는 불교와 정신치료 두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 가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끄달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만을 갑니다. 마치 등대가 밤이 되어 불을 켜면 항상 어딘가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등대는 한 번에 한 곳만을 비춥니다. 등대와 우리 마음의 차이는 등대는 날이 밝아지면 불을 비출 필요가 없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작용을 하며 어딘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은 등대이고 등대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항상 작용하고, 어딘가 한 곳에 가서 그곳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을 크게 나누면 건전한 대상과 불건전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건전한 곳이면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불건전한 곳이면 우리의 정신은 괴롭고 불행해집니다.

둘째, 마음은 어떤 대상으로든 자꾸 그곳을 향해 길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건전한 대상으로든 불건전한 대상으로든 어느 쪽이든 마음은 한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두 갈래 사유의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무엇이든지 점차 마음의 경향이 된다. 그가 자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읜 사유를 버리게 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사유를 계발시켜서, 그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사유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마음이 그것을 하려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 본 사람들은 마음을 어느 대상으로 자꾸 향하면 길이 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지만, 자꾸 집중하다보면 나중에는 쉽게 집중이 됩니다. 또 아주 많이 하면 자동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대상에 마음이 자꾸 가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건전한 대상으로 가게 됩니다.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유심히 관찰하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뤄져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은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속성이 어딘가에는 가 있어야 하고, 또 자꾸 간 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을 건전한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전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불건전한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곳으로 가고, 불건전한 곳으로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건전한 대상

정신건강 측면에서 분류해 보자면, 건전한 대상은 현재고, 불건전한 대상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하면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갔을 때 우리는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현재로 갔을 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과거로 간다는 것은 과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 생각이 불건전한 것일까요. 과거를 떠올리면 기분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추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과거 생각을 불건전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많지만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후회되거나, 화가 나거나, 아쉽거나 억울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좋은 과거는 떠오르는 힘이 약합니다. 한두 번 떠오르다가 맙니다. 좋은 기억 속에 있고 싶으면 그것을 개인의 의지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에 비해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은 떠오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마저도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미래에 대한 생각은 시간낭비
현재에 집중해야 본질을 발견한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증세가 '강박신경증' 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힘이 강할수록 힘들어 집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추억이, 우리를 후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안 좋은 과거 생각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에 불건전한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시간을 쓰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추억과 같은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 결국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마음의 속성에 따라 그쪽으로 길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건전하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생각과 형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설레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처럼, 우리에게 주로 떠오르는 미래는 걱정되고 불안한 내용의 미래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 설레게 하는 미래는 떠오르는 힘이 약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자주 찾아가는 미래는 우리를 걱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안 좋은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불건전합니다. 안 좋은 미래를 생각을 하는 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이 결정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집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정도가 아주 커지면 불안장애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현재만 생각해야 행복해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는 싫고 안 하고 있자니 불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통해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일시적으로 안심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서 말한 마음의 속성에 의해 그쪽으로 길이 생겨서 일이 잘 안 될 때 쉽게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뭘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올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재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지 않는 삶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쓰다가 가는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불건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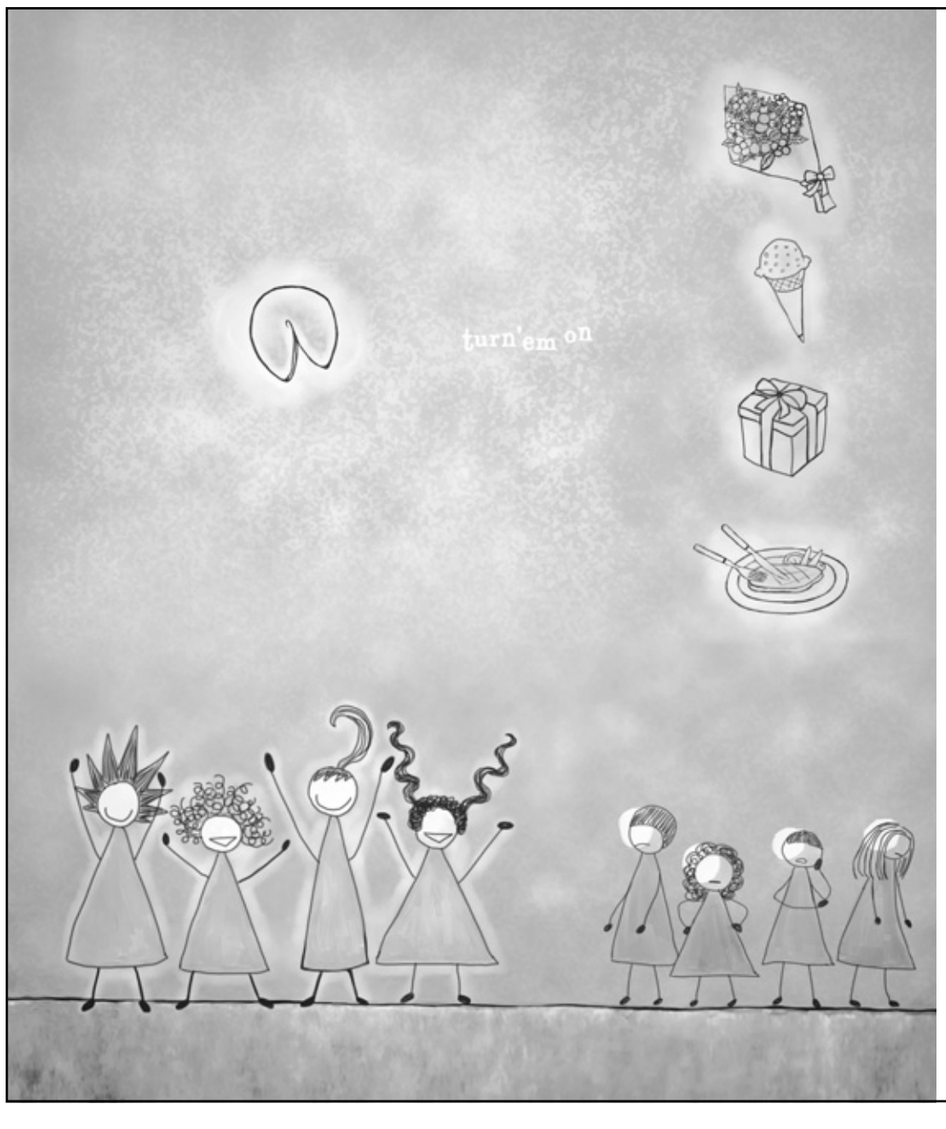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현재에 있는 것이 건전한 것일까요. 마음이 현재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진정하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속성상 한 순간에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갔을 때 빠질 수 있는 상태인 화나 불안에 빠지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현재에서 뭔가를 진행함으로 그 일이 축적이 됩니다. 다섯째는 현재에 마음이 오롯이 와 있으니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숲속의 경〉에도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에는 천신과 붓다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천신이 "숲 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붓다는 "숲 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것은 지나간 것에 마음을 애태우지 않고 앞으로 올 일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환자들이 병이 난 과정을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도 못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도 못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병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보다는 문제와 관계된 과거와 미래로 엄청나게 많이 가 있다가 병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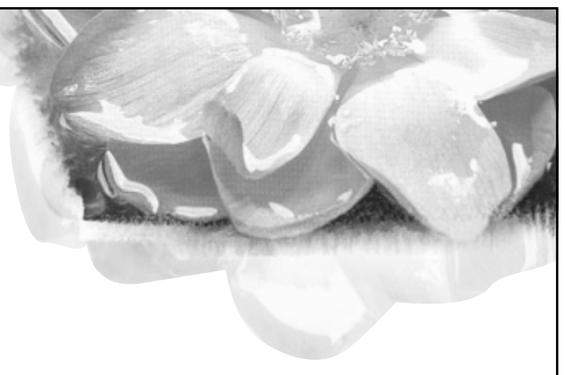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에 대해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많이 한 것에 비해 괴로움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생각을 줄이면 줄인 만큼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생각을 줄이도록 도와주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줄이면 고통도 줄고 정신적인 증상도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현재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남북평화 위한 마음 대장경에 담았다

남북 공동조성 '평화대장경' 합천 해인사서 봉안법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3년 여의 준비와 5개월의 작업 끝에 공동조성한 평화대장경이 해인사와 판각지인 강화 선원사, 남해 화방사 등에 봉안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18일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기념 '평화대장경' 해인사장경판전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장경을 만든 선조는 후손의 번영을 기원했을 터인데,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돼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평화대장경 조성이 공존 · 상생 정신의 실천으로 이어져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대장경 조성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대장경 봉안 등 현대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발원문을 통해 "고려의 대몽항쟁이 초조 · 재조대장경을 만들어 냈다. 오늘 평화대장경 봉안을 통해 남북통일과 겨레의 아픔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평화대장경'은 남북이 공통으로 봉안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와 민족 화합을 기원하고자 〈금강경〉 9판과 〈반야심경〉 1판으로 조성됐다. 판각은 남북분단현실을 고려해 중국에서 이뤄졌다. 북측 판각전문가가 수각(手刻)을 기본으로 조성된 평화대장경의 서체는 원본과 같은 구양순체를 적용했다.

평화대장경은 3년 여 준비와 5개월의 작업 끝에 조성돼 인천시(시장 송영길)에서 〈금강경〉과 〈반야심경〉 각 2질을 후원하고 남해군(군수 정현태)에서 〈금강경〉 1질을 후원해 총 〈금강경〉(9장 17면) 4질과 〈반야심경〉(1장 1면) 2질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9월 북한 방문을 통해 평화대장경(〈금강경〉 1질, 〈반야심경〉)을 북측에 전달해 봉안한 바 있다. 이날 해인사 봉안법회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유산 축전기간을 통해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가운데)이 평화대장경 봉안을 위해 장경각으로 향하고 있다.

해인사는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참여한 기관장과 함께 팔만대장경보존회 후원회원 가입식을 가져 보존회를 대중화 시키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대장경 지킴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정토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2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2주년 행사모습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지현)에서는 10월 19일 '호스피스와 임상사례'를 주제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2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총회법회, 제2부 기념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 총회법회에는 협회총재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 협회장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협회상임이사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홍영선 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협회총장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하루 하루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삶 속에 호스피스인들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회법회에서 협회장 지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정토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사랑과 이해는 정토건설의 주춧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 곁에는 관세음보살의 분신인 봉사자님들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며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홍영선 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장(한국완화의료학회 자문위원)은 "불교는 수천년 동안 한국인 정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한국 최대의 종교이다. 이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운동이 싹 터 말없이 임종환자들의 선종을 도와 오다가, 2년 전에 협회를 창립한 이후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이제는 한국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홍 대학원장은 "이제는 한국은 물론 외국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이다. 한국 불교 호스피스협회가 큰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적 활동과 지원 노력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능행 스님과 최진영 박사가 기조발제 했다.

조동섭 기자 · 이재진 부산지사장

7년째 지역불자 한마음

울산 월봉사, 어르신후원 위한 제7회 문화예술 축제 성료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축제가 울산 월봉사에서 열렸다.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10월 15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거주 어르신들 후원금 마련을 위한 제7회 월봉사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겨울 채비를 준비하는 이웃들은 늘고 있다"며 "자비심을 바탕으로한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 보살행으로 구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은 봉행사에서 "7년 전 주지 부임 이후 시작한 문화 예술 축제가 어느덧 7회를 맞았다. 불교문화와 월봉사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월봉사 대중의 정성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과 덕의 상징인 포대화상을 봉안해 불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경로효친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효자 · 효부상 시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울산파라미타 청소년 장학금도 전달됐다.

사찰음식전문가인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월봉사 달빛다도회의 전통 다도 시연이 펼쳐지는 한편, 노인복지요양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장터와 청소년 염주 만들기, 핸드폰 줄 만들기, 거울 만들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는 '달이랑 별이랑 사랑이랑'을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와 함께 절정에 치달았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주지 오심 스님이 직접 법고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목관5중주, 가수 주병선, 범능 스님, 범서고 파라미타 학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행사에는 안효대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10월 15일 문화예술축제가 열린 울산 월봉사 모습

생활불교가 불교의 갈 길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



울산 월봉사는 신라 고승 성도 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천년을 수행정진의 터로 이어온 도량이지만 현재는 매년 축제가 열리는 열린 도량으로 탈바꿈해 있다. 월봉사는 10월 15일 열린 제7회 월봉사 문화예술 축제를 비롯해 사찰음식, 다도시연,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곳이다. 천년고찰과 도심사찰의 경계를 피안과 차안을 넘나들 듯 감로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불심을 다져주는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7년 전 이곳 울산 월봉사 주지에 부임한 오심 스님(사진)의 이력은 화려하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건복지부 지도법사, 울산해양경찰서 경승실장, 파라미타 지회장 뿐만 아니라 월봉사 부속 룸비니 유치원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까지. 시쳇말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스님의 이력은 7년간 불교 발전과 지역포교를 위해 바삐 살아온 지난날을 대변해 주고 있다.

스님은 월봉사 주지 부임 후 첫해부터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각 지역 단체에서 큰 규모로 다양하고 많은 축제를 열고 있다 보니 웬만해서는 빛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월봉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열고자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봉사의 축제는 말사의 행사치고는 제법 규모가 있다. 무엇보다 매년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성장세는 여느 불교계 단체 못지않은 수준이다.

오심 스님은 월봉사에 불교대학도 만들었다. 불자들도 배우고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불교는 수행이고 체험입니다. 직접 수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108배를 직접 해보지 않고는 수행이 힘든 것을 알 수 없지 않겠냐"며 "불교를 자신의 삶에 접목해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심 스님은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도록 국가적인 인프라 구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스님은 월봉사가 위탁운영 중인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운영에 각별히 애정을 쏟고 있다.

조동섭 기자

여산문학상 시상식 … 소설 '빈들' 대상 영예

제2회 여산문학상 시상식이 10월 15일 부산불교회관건물 여여선원 8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여산문학상 대상은 김광수의 장편소설 〈빈들〉이 수상했다. 〈빈들〉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 태어난 '김희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5 · 16 전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은 문장구사와 내용미를 높이 평가받았다.

여산문학상 운영위원장인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자신의 존재나 목적지도 설정하지 못한 채 어딘가를 향해가는 사람에게 문학은 인생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등불이니 앞으로 부산의 문학인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양산 통도사 두 번째 '通하는 강연회'

11월 6일 오전 11시 설법전서 조용헌 원광대 교수 특강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에서 대중 특강 '通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통도사는 10월 2일 우승택 생테크연구소장 초청 특강에 이어, 11월 6일 오전 11시 경내 설법전에서 조용헌 원광대 교수를 초청해 두 번째 '通하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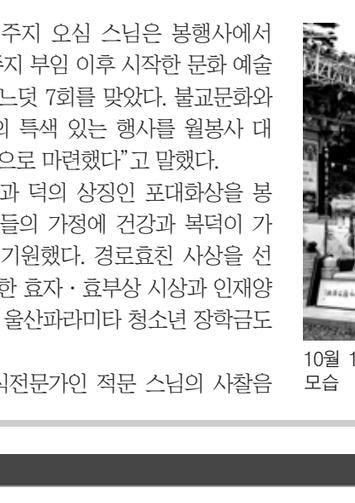
조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선조들은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를 특강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通하는 강연회'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법회이다. 앞으로도 불법의 다양성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055)382-7182

조동섭 기자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입문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내가 바로 축구왕 슛돌이”

조계종 스님들과 장애인 축구단과의 한판 승부
10월 15일, 조계종 vs 곰두리 축구단 친선경기

“곰두리 파이팅~!”
“스님, 공을 패스 하세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남양주 광동고 운동장 한복판에서는 축구경기로 학교가 들썩이고 있었다. 갑자기 내린 가을비 탓에 체감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진 날이었지만, 선수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운동장을 열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선수들의 축구경기 장면을 지켜보니 조금은 독특한 점이 눈에 띠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모습이 여느 축구선수들과는 달라보였기 때문이다. 한 팀은 일반인들과 달리 몸이 조금 불편해 보였고, 한 팀은 선수 모두가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이었다.

행사는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나눔결사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계종 스님들과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단인 곰두리 축구단(회장 신철수)의 친선경기였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 교역직 스님 10여 명과 재가불자 축구팀 FC Buddha(단장 이동격) 등 80여 사부대중이 함께 참석했다.

곰두리 축구단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에 축구대표팀으로 참가했던 선수들이 창립한 단체로 5월 26일 美 하버드대 축구단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10월 14일 공군사관학교와의 친선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유명세 만큼이나 실력도 뛰어난 팀이다.

이날 경기는 스님들과 곰두리 축구단, FC Buddha와 곰두리 축구단, 그리고 3개 팀의 구성원들을 섞은 혼합팀의 경기로 각 20분씩 진행됐다.

첫 번째 경기는 스님들과 곰두리 축구단의 대결.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자, 스님들이 먼저 골 찬스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곰두리 축구단 골키퍼의 선방으로 아쉽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어 곰두리 축구단 선수도 바로 슛팅을 시도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경기 막바지 무렵,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결정적인 골 찬스의 기회를 얻어 골로 연결시켰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 뒤, 바로 FC Buddha와 곰두리 축구단의 경기가 이어졌다. 두 번째 경기는 곰두리 축구단 주장인 박해철 선수의 맹활약으로 곰두리 축구단이 4대1로 승리를 거뒀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박해철 선수에게 “나는 나를 비롯한 스님들이 축구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곰두리 축구단이 우리를 봐준 것 이었다. 실력이 놀랍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승 스님은 박해철 선수를 비롯해 경기에서 활약이 돋보인 선수들에게 직접 기념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경기에 대해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니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철 선수는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불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달라”고 답했다.

곰두리 축구단이 4:1로 승리 거둬
자승 스님, 격려…계속 지원 약속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를 통해 축구연습에 필요한 축구용품, 종단에서 판매하는 ‘감로수’를 비롯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 스님 등도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 “내년에는 선수들에게 마곡사 불교문화원에서 4박5일 정도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축구 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또 “동국대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등 곰두리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친선경기를 계기로 ‘장애인 템플스테이’ ‘장애인 전법단 구성’ 등을 통해 불교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관련한 미흡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곰두리 축구단과 경기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조계종 스님들과 곰두리 축구단, FC Buddha팀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은 이날 경기에서 곰두리 축구단에게 격려금을 지원했다.

“뛰고 싶지만,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없다”

곰두리 축구단 조제덕 감독



“우리 가족은 24년 째 일요일마다 곰두리 축구단과 축구연습을 하는 걸로 한 주를 마감합니다.”

이날 경기가 치러진 광동고 운동장에서는 곰두리 축구단을 24년 째 이끌고 있는 조제덕 감독(사진)의 응원소리가 누구보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조제덕 감독은 일일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해 가며 열띤 응원을 하고 있었다. 선수가 실책을 하면 “괜찮다”고 큰 소리로 응원해 주고, 골을 넣으면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날 조제덕 감독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조계종에 너무 감사드린다. 특히 내년에는 곰두리 축구단을 위해 마곡사 불교문화원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신다고 해 가슴이 너무 벅차다”고 말했다.

현재 곰두리 축구단은 조제덕 감독을 비롯해 그의 남편인 신철수 곰두리 축구단 회장, 또 부부의 아들이자 코치를 맡고 있는 신상덕 씨가 이끌고 있다. 1988년 처음 신철수 회장이 축구단을 창단한 이후, 온 가족이 합심해 24년 째 선수들을 돌보고 있다.

선수들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로 구성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때문에 곰두리 축구단은 어느 단체보다 훈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제덕 감독은 “곰두리 축구단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단체보다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매번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제덕 감독은 “곰두리 축구단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공군 김성일 참모총장은 2005년부터 곰두리 축구단에게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숙소 마련과 운동장 사용, 시합 시 차량운행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조 감독은 “10월 11일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선수들이 그곳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선화가인 정연 스님은 ‘날마다좋은날’ 작품을 통해 수익금을 축구단에 지원하고 있다.

조제덕 감독은 “정연 스님의 작품명처럼 곰두리 축구단에게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내년 4월에는 美 하버드대에 초청돼 방문할 예정이며, 또, 일본 축구단과도 자매결연을 협상중이다”라며 “앞으로 곰두리 축구단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봉안함이 물속에서도 안전하다고요??

직접 확인 해보세요!!!!

직접 시험할 수 있고, 물 속에서 조차 안전할 수 있는 봉안함은 (주)태림원의 봉안함 안향(安享)이 유일 합니다.



3중밀봉함 제품소개


3중밀봉 · 진공함 구조

발명특허제품
•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10-0768910)
· 재질 : ABS, 황토, 백토
습기, 결로방지 및 완벽한 수분차단 입증 제품
부산시 추모공원, 정관 주민자치회 지정 봉안함

습기,결로방지 입증 방법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결로 방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입증.
• 봉안함의 구조가 습기, 결로, 수분유입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내구성(ABS)
• 집어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증 결과 최대수직압 10.7톤

친환경제품
• “친환경 상품진흥원”에서 친환경 표지 인증 (2008. 7. 3)

부산시 영락공원 장묘운영팀에서 함에 티슈를 넣어 땅속에 묻는 실험 시도
1년후 개봉결과 티슈가 원상태 그대로 보존 되어 있음을 확인

• 현장에서 직접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신뢰를 주는 유일한 봉안함.
• 물속깊이 함을 넣어도 함속으로는 단 한방울의 물은 물론 수분의 유입 마저도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함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뒤집어도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태 림 원 Mobile 010-2257-3887, 02)763-1305 Fax 02)763-1307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805호

수월스님의 기도 명상 대학

일정 : 매주 화요일(본방송)16시 30분 . 매주 목요일(재방송) 23시. 매주 금요일(재방송) 07시 30분

10월 불교TV 방송 일정 교육접수 문의 02)434-1717

천수경 1강좌 기초기도법 부자되는 복덕 기도법	천수경 2강좌 기도의 원리 8법 농사짓는 기도법 10월 25일 16시30분	초발심 자경문 3강좌 자기관리 기도법 개인 이미지 변신 10월 25일 16시30분	초발심자경문 4강좌 비즈니스 사업성취 기도법 사장되는 법	아함경 5강좌 인생 풀어지는 원리 자녀 교육법	아함경 6강좌 부부 사랑 기도 사서삼경/사자소학
아함경 7강좌 직장생활 기도법 면접 보는 기도	아함경 8강좌 사성제/팔정도 메모지 기도법	반야심경 9강좌 예불문 칠정례 법당예절 기도법	반야심경 10강좌 자녀 교육 기도 명상 대학 입시 기도/명상	금강경 11강좌 삼강오륜/명심보감 10바라밀 보살기도	금강경 12강좌 오계/십선업 마인드체인지
정토 삼부경 13강좌 1)무량수경 영가 천도 50가지 내생 기도법/예수재	2)아미타경 14강좌 (임종 기도법) 3)관 무량수경 미타기도 왕생극락	지장경 15강좌 (영가 장애 퇴치 법) 참회 절기도 10법	자비도량 참법 16강좌 업장소멸기도 조상 천도공덕	능엄경 17강좌 아비라 기도법 능엄신주 삼제 소멸 액살소멸	능엄경 18강좌 이근원통 50변마장/병고쾌차
법화경 19강좌 1.일념 삼천 2.회삼 귀일불승 사업성취	법화경 20강좌 7 비유 품 나눔 기도명상 포교전도 공덕	화엄경 21강좌 법계연기/마인드체인지 문수보살 기도명상법	화엄경 22강좌 보현보살 기도명상법 비즈니스 인생	화엄경 23강좌 십지 법계/십현연기 육상원융/행복 기도	화엄경 24강좌 참사랑 등불 운동 불성 기도법

간화선 수행 기도법
다이어트. 요가. 달마선체조참선요지. 선관책진. 선가귀감 벽암록오매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생사일여. 영겁일여 삼매 기도법

위빠사나
1. 사념처 수행법 2. 오 정심관법 3. 37도 수행법 4. 사선팔정 수행법

대한불교조계종 극 락 사 (불교대학 교육 접수 중)

김제 금산사, 자비와 보살행 실천 다짐

제1411주년 개산대재 봉행

전라북도의 대표적 미륵성지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회주 태공월주 주지 원행)가 1412주년 개산대재와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를 10월 16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성, 장세환 신건 국회의원 이건식 김제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등 불자들과 지역 기관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하신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에 이어 범종타종과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금산사 개산대재는 축원, 금산사 연혁소개, 역대조사스님 행장소개에 이어 축사, 법어의 순으로 이어지며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의 창건정신을 계승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제불보살님과 역대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수행과 전법, 대승 보살불교 운동을 실천하고 완성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신명나고 살기 좋은 사회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돼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금산사 창건 1412주년 개산대재에 임해 수승한 공덕을 쌓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산 1412주년을 맞은 금산사는 국난의 위기를 맞아 외적에 맞서 싸운 뇌묵처영 대사와 같은 스님들의 충정이 서린 호국불교의 도량이다"고 소개하고 "현재 범 조계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도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아 부처님답게 살아가자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연장선상이다"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법구현의 원력이 활화산처럼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금산사 성보박물관 개관식도 이날 열렸다. 보물 제25호 금산사 5층석탑의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보물 제421호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화 등 수백 점의 문화재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금산사는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자비와 보살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은 금산사와 말사의 문화재급 성보수백점이 보관돼 있으며 선별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날 개산대재에는 완주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불자노동자 50여 명과 임실 제6탄약창 군장병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으며, 오후에는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와 형형색색의 등을 밝혀 중생의 마음을 자비롭게 하는 관등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목숨 다하도록 산목숨 죽이지 말라"

태고종 수계산림 수계식 봉행

"이 몸이 목숨을 다하도록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미 사미니계이니 받아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에 중앙금강계단을 열고 제3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을 10월 19일 봉행했다.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인공 스님, 교수아사리 종회의장 영우 스님, 갈마아사리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을 계사(戒師)로 진행된 수계식에는 전체 96명(사미 61명, 사미니35명)의 행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수계행자는 9월 7일 행자 소양 및 면접시험을 치른 후 3주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아나빠나사띠 등을 이수했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과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교육일정과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앞 특설도량까지 1.2㎞를 일보일배로 진행했다.

타종과 종사이운으로 시작된 수계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공로패 수여, 표창장 및 상장수여에 이어 수계의궤에 따라 거향찬(擧香讚), 청성(請聖), 체발(剃髮), 연비의식이 진행됐다.


연비의식을 받는 행자승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십선계를 설(說)하면서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수계식에 앞서 경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출가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사회중생을 위해 봉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통종단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불교의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식을 마친 태고종 스님들은 종립 동방불교대학과 선암사 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전문강원 등 태고종의 공식인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스님이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생명나눔, 무등산 희망걷기대회

11월 6일 청풍쉼터에서 열려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희망걷기대회가 무등산에서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광주흥사단과 공동으로 11월 6일 오전 11시부터 제4수원지인 무등산 청풍쉼터에서부터 원효사에 이르는 5.35㎞의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아암 환우와 가족, 청소년, 광주시민들이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더 밝고 맑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매년 500여 명의 청소년과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걷기 외에도 문화공연, 백혈병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전하기, 장기기증희망등록접수, 헌혈증서 모집 및 모금 캠페인이 진행된다.


지난해 걷기대회 때 참가자들

(062)234-66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길

호남불교 포교결집대회 개최

호남지역 불자들의 포교결집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호남지역 6대 본사 협의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염주체육관에서 '다시 함께 세상과 함께' 라는 주제로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교결집대회는 올해를 호남불교 중흥원년으로 삼고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개최된다. 결집대회에서는 3000여 불자들이 모여, 합송으로 부처님 전에 예불과 한글금강경 독송이 이뤄진다.

이어 호남지역 포교영상과 호남포교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 전도 선언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조계종 최초 해외교구 지정
해외포교 조직화 Start

석원(휘광) 스님, 조계종 美동부교구 교구장 임명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 뉴욕 · 뉴저지 등 美동부 16개주 온타리오 등 加동부 6개주 관할

"조계종 최초의 지정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종단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뉴욕 불광선원 주지 석원(휘광) 스님(사진)이 10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동안 해외 포교는 스님들 개인 원력에 의지해 활성화의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종단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찰과 스님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석원(휘광) 스님도 이번 교구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스님은 "그동안 해외 사찰들은 도움 없이 독자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다보니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번 교구 지정으로 해외 사찰 및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석원(휘광) 스님은 지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3년 ~ 1975년 삼막사 강원, 1978년~1979년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총무, 2007년 10월 16일 미국 뉴욕 불광사 주지를 지냈다. 1979년에는 조계사 삼막사 30만평 환수업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지정된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나 동부지역 6개주를 담당한다.

미국 동부 16개 지역은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메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델라웨어 등이다.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는 온타리오(토론토 포함),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등이다.

그러나 지역이 넓어 같은 교구에서도 사찰들간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다. 교구는 설립됐지만 서로 자주 만나면서 교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원(휘광) 스님은 "같은 교구로 묶여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사찰 간 교류의 어려움이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통신 수단을 적극 활용해 연락을 취하며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구장으로서 해외 포교 스님들의 법랍 인정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유학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경우 법납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 유학을 온 스님들을 위한 장학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장학제도를 통한 인재 육성은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지역 사찰과 지역의 유기적 관계 형성, 청소년들의 불교 체험단 구성을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각 사찰들 형편도 좋지 못해 당장 분담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석원(휘광) 스님은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사찰들과 논의를 통해 모색해 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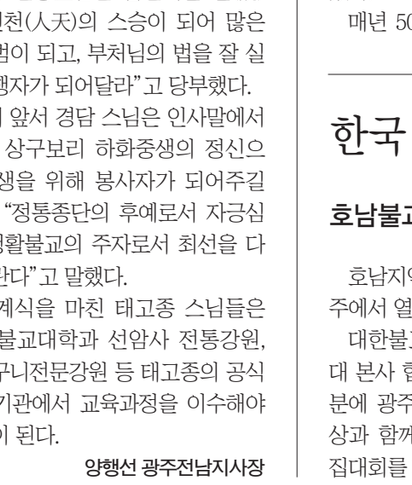
석원(휘광) 스님은 "종단의 물질적 지원보다 심리적 지원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동안 스님들 개인 원력에 의지해 현지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다보니 스님들이 '외톨이' 라는 생각을 들 정도였다.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승선교와 강선루… 보는 곳마다 "예술이다. 예술!"


세간에서 출세간에 이르는 길에 만나는 승선교와 강선루는 선암사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순천 선암사

호남 정맥에 우뚝한 탈속의 산

백두대간의 장엄한 기상이 두류 · 금강 · 설악 · 태백 · 소백 · 속리산을 거치며 남쪽으로 뻗어내려 가다가 전북 장수의 장안산(1237m)에서 서북쪽으로 불끈 힘줄 하나를 밀어 냈다. 65km를 달려 나간 그 힘줄의 끝은 무주의 주화산(600m)이고 거기서 북서로 금남정맥이 남서 방향으로 호남정맥이 산경(山徑)을 열었다.

호남정맥은 주화산의 출발점에서 만덕산 내장산 백암산 추월산 무등산 천운산 용두산 제암산 방장산 맥이 조계산 희아산 동주리봉을 거쳐 광양의 백운산에서 숨을 멈춘다. 지도에서 호남 정맥을 보면 호남지방을 팔로 감싸 안 듯 서쪽의 영산강 유역과 동쪽의 섬진강 유역을 나누고 있다.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하니, 산이 가는 길은 강에서 멈추고 강줄기의 흐름은 산을 에돌게 마련이다. 조계산(844m)은 호남정맥을 달리는 많은 산 가운데 하나다.

매표소를 통과하니 비포장 길이 활처럼 굽은 몸으로 드러누워 '더운데 쉬엄쉬엄 가라' 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측은 산비탈이고 좌측은 지난밤의 비에 물이 불은 개천이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흙길을 걸어 옛 절집에 간다는 것이 나름 멋진 풍경이란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부도밭이네."

오른쪽 양지에 새로 조성한 부도와 탑비들이 일렬로 서 있다. 근래 태고종 종정을 지낸 백암 · 덕암 스님 등의 부도와 탑비다. 선암사에는 부도가 많다. 그만큼 고승이 많이 배출된 유서 깊은 절이란 의미다. 입구 쪽의 동부도전 외에 송광사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부도전이 있고 동부도(보물 제1185호), 북부도(보물 제1184호), 대각암부도(보물 제1117호)가 있다. 보물로 지정된 이들 부도는 정확하게 주인을 알 수 없지만 조각솜씨는 매우 정교하고 우아하여 선암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선암사 기행의 포인트는 단연 승선교(昇仙橋 보물 제400호)와 강선루(降仙樓)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이르는 길에 아치형의 아름다운 다리가 있고 숲길에는 누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천천히 길을 걸으며 자연을 호흡하지 않으면 그 멋도 놓치고 만다.

"와, 사진에서 많이 본 다리다. 다리 아래로 저렇게 누각이 보이는 장면, 예술이다, 예술!"



승선교를 바라보며 나팔수 씨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승선교와 강선루. 선암사의 트레이드마크잖아. 어느 때에 와도 여기서 보는 풍경은 일품이라는데 이렇게 녹음이 무성하고 물이 많이 흐르니까 더욱 좋은 것 같다 그치?"

조선 숙종 33년(1707)겨울에 시작하여 6년 뒤에 완공했다는 승선교는 우리나라 홍예교의 대표작이다. 물길을 가로지르는 반원형의 돌다리, 물에 잠긴 그림자로 완전한 원형을 이루게 하는 그 의미심장한 축조기술은 생각할수록 묘하다.

승선교 위를 걸어 강선루 앞에 선 나팔수 씨는 누각에 한 번 올라가보고 싶었다. 올라가 옆의 계곡물을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일 것 같았다. 강선루 아래 작은 개천을 넘는 다리에는 선원교(仙源橋)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절 이름은 선암사고 다리는 신선이 승천한다는 승선교, 누각은 신선이 내려온다는 강선루, 그 아래 다리는 선원교. 모두 신선 선(仙)자가 들어가는데 불교와 신선사상이 어우러진 이름이겠지?"

혜능의 선맥 이어진 도량

선암사 일주문. '조계산 선암사' 라는 현판을 달고 서 있는 일주문은 화려한 공포를 높다랗게 쌓아 올렸다. 먼 길을 걸어 온 나그네를 맞아주는 포근함과 속세의 때를 씻고 들어오라는 근엄함을 함께 드러낸다고나 할까?

'고청량산해천사(古淸凉山海川寺)' 일주문 안쪽에 옆으로 걸린 현판이 조계산과 선암사의 옛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옛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1828년에 용암혜언(龍岩慧彦) 스님이 쓴 '순천부조계산선암사제6창건기' 에 이 이름이 등장한다. 내용은 신라법흥왕 때 아도화상이 꿈속에서 수기를 받고 절을 창건했는데 그 산 이름이 청량산, 절 이름이 해천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보다 100여 년 전인 1704년에 계음호연(桂陰浩然) 스님이 쓴 '조계산선암사사적' 에서는 신라 말의 도선 국사가 대비보사찰로 선암사를 건립했다고 전하고 있다. 1761년 상월 스님이 화재를 막기 위해 절 이름에 물과 관련한 글자[海川]를 넣어 불렀고 1825년에 다시 지금의 산 이름과 절 이름을 되찾았다는 기록도 있다.

일주문과 범종루를 일직선으로 통과하면 정면으로는 건물이 막아서 있다. 만세루의 뒷면이다. 추녀 안쪽에 '육조고사(六朝古寺)' 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도 서체도 오랜 세월의 자취를 보여준다. 글씨는 한글소설 〈구운몽〉을 지은 서포 김만중의 부친인 김익겸(金益兼 1614~1636)의 글씨라고 한다. 김익겸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성이 함락되기 전에 김상용 등과 자폭한 충신이다. 육조고사의 한자 조(朝)는 조(祖)의 의미로 쓰였는데 육조 혜능의 선풍을 이어받은 도량이란 의미다.

대웅전 앞에 누각이 있을 경우 누각 아래로 길을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선암사는 누각의 좌우로 돌아 대웅전에 이르게 된다. 부부는 두 개의 탑이 서 있고 석축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대웅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동쪽과 서쪽에 엇비슷해 보이는 두 기의 3층석탑(보물 제395호)이 서 있는 대웅전 앞마당은 커다란 방 같다. 석축 위의 대웅전과 마주한 만세루, 동쪽의 심검당과 서쪽의 설선당이 사면을 막고 서 있기 때문이다.

순천 선암사의 명물은 해우소
먹고 배설하는데 道 있지 않나

부부는 대웅전 안에 들어가 3배를 하고 조용히 앉았다. 중앙의 불단 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좌우 협시불은 없다. 상단에는 영상회상도가 모셔져 있고 왼쪽에는 비교적 폭이 큰 감로탱화와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어 불단이 장엄하게 느껴졌다.

기록에 의하면 이 대웅전은 도선 국사 창건 당시에는 중층의 미륵전이었다. 그 뒤의 기록은 전하지 않고, 조선 중기 정유재란 때 불에 탄 이후 1660년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고 다시 1823년에 불이 났다. 다음해에 해봉 눌암 익종 등의 스님들이 중창했다. 그로부터 19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선암사는 대웅전 중수를 위해 모연(募緣)을 하고 있다.

부부는 대웅전 뒤쪽의 전각들을 차례로 참배하기로 했다. 선암사 가람배치의 중심선은 여러 단으로 이루어졌다. 일주문을 들어서 범종루와 성보박물관까지가 한 단계를 이루고 만세루와 심검당, 설선당, 동서탑 등이 또 한 단을 이룬다. 그 윗단에 대웅전과 지장전, 응향각이 자리하고 있다. 뒤쪽으로 불조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팔상전이 왼쪽에 조사전이 있으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원통전과 첨성각 장경각이다. 원통전 뒤에는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로 불리는 매화나무가 늘어 서 있다. 다시 '호남제일선원' 이란 현판이 걸린 문을 들어서면 잔디가 고운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응진당과 삼신당이 보이고 왼쪽으로 달마전 오른쪽으로 진영당이 자리한다. 응진당과 삼신당 사이를 따라 뒤로 돌면 산신각인데 하도 작아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다.

건물마다 스며든 역사와 예술의 향기

다시 뒤로 돌아가면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진 원통전이 있는데 건물이 고무래 정(丁) 형이다. 별다른 장식은 없고 관음보살이 모셔진 불단이 정갈하게 모셔졌다. 관음보살이 주불일 경우 협시로 모셔지는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은 관음상 뒤에 모셔진 관음도에 나타나있다. 원통전은 오랜만에 들린 고향집의 안방 같은 분위기다. 안쪽에 걸린 '대북전(大福田)' 이라는 현판은 조선 순조의 글씨다.

"정조 대왕이 후사가 없어 근심하다가 선암사 눌암 대사에게 100일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 덕분에 순조를 얻게 되었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순조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인' '천' '대복전' 등의 현판을 하사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와, 그렇다면 저 작은 현판이 순조에게는 '출생의 비밀' 이란 말이지?"

꽃은 없지만 매화나무들이 싱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부부는 매화철에 다시 선암사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응진당이 정면으로 보이는 다음 구역으로 갔다. 이 구역에서 특히 감동적인 것은 달마전 뒤뜰의 석조(石槽)와 산신각이었다. 석조란 돌의 중간을 파내고 물을 담는 용기다. 달마전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건물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부부는 조용히 중간의 부엌을 통해 뒤뜰까지 들어갔다.

"예술이다!"

고목을 반으로 잘라 만든 홈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사각의 석조에 담기고 거기서 넘친 물은 둥그런 석조에 고이고 다시 넘쳐 더 작은 석조로 넘어간다. 거기서 넘친 물은 다시 더 작은 석도로 넘어가고. 그렇게 4개의 석조가 물을 나누며 한 가족같이 뒤뜰을 지키고 있다.

선암사 화장실은 이름이 높다. 높다란 일자형 건물 중앙에 출입용으로 맛배지붕을 따로 얹어 고무래 정(丁)자 형을 이룬 외관이 독특하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의 남자용과 오른쪽의 여자용으로 구분되는데 다시 2열로 배치되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바닥 판자가 잘 짜여 있어 무섭지 않고 칸막이벽이 그리 높지 않은데 민망하지 않다. 절집이라서 그럴 것이다. 자연발효의 과학이 깃든 선암사 '뒷간' 은 '일' 을 보는 위치가 지면에서 높고 앞뒤로 창살이 있어 통기가 잘되고 악취가 덜 난다.



어찌 보면, 먹는 일 만큼이나 배설하는 일도 중요하다. 먹고 배설하는 사이에 목숨이 살아 숨 쉬는 것 아닌가?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설악산 동해사 감로법비 19주년 기념 대법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같은 법비가 내리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992년 10월 12일 꽃비(法雨)가 내리기 시작한 이래 매년 10월에서 11월 약 40여일간 반복하여 동해사 사리탑전에는 법비가 내립니다.
매년 이 법비를 친견하려 수 많은 불자들이 몰려옵니다. 이 법비를 맞고 수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만나보기 어려운 신기하고 영험스런 광명을 친견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사에 내리는 감로 법비를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망울!
밤에도 낮에도 아 성스러운 광명이여!
아 이 신비스런 법비의 광명이여!
우리의 소원을 섭수하소서!
아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내려주소서.



감로법비 19주년 기념 대법회
[2011년 10월 28일 오전 11시 부터]
◇ 고승초청 기념 대법회
※ 식사 및 숙식 무료제공 (예약을 요함)

법비광명 축제 및 기도기간
◇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 (철야기도 가능)

※ 전화요청시 양양터미널에서 봉고차 운행

동해사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 전화 033)672-2900.2911/ 서울 연락처 02)358-6641~3 송림사

그늘 밑에 있으면서도 그늘의 고마움을 모른다

플라타너스 이야기 (1)



청주 시내로 진입하기 전 만나는 플라타너스길은 우리나라 길 가운데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길이다.

어느덧 넓은 플라타너스 잎이 나뒹굴기 시작한다. 한여름의 사명을 끝내고 서서히 적멸로 향하고 있다. 어느 시인은 "9월이 오면, 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허영의 옷을 벗는다"고 했다. 시적 은유일망정 플라타너스가 들으면 참으로 억울할 노릇이다. 플라타너스는 무성한 잎사귀를 거느리며 여름날 쨍쨍 내리쬐는 햇살을 온몸으로 항거하듯 막았다.

학교 운동장 가에 서 있는 나에게 당신들이 문방구 칼로 내 몸에 상채기를 내며 자신의 이름을 쓰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어설픈 문구를 써도 나는 신음소리 내지 않고 참았다. 당신들은 점령군 장교처럼 내 몸의 상처를 보며 희희덕거렸지만 나는 종군위안부처럼 말없이 당신들의 남긴 상채기를 달고 살았다. '용철', '성구 (♡) 미선'이라고 새긴 상처를 내 몸의 일부인양 진액을 뿜으며 참고 살았다.

내게 붙여진 이름도 억울하다. 나의 공식적인 한국 이름은 '버즘나무'다. 나는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쯤 미국에서 선교사들 따라 한반도에 왔다.

플라타너스의 한국 이름은 '버즘나무'
겨울에는 털 옷 없이도 잘 버텨 내고
대기오염에도 방독면 필요없는 나무
영양제 없이도 1년이면 2m 쑥 자라

'붉은 산'으로 대변되는 조선에 겁 없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무의 신분이라 귀화를 해도 주민등록증이 없다. 물 좋은 명산엔 기득권을 가진 소나무, 참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내가 설 자리는 도시의 길가, 가로수라는 직분이 주어졌다. 그래도 나는 대만족이다.

누구는 운이 좋아 껍질이 희다고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고(자작나무), 어떤 새는 화려하다고 공작(孔雀)의 작위를 받았다(공작새).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없단 말이여!

진시황이 죽고 2세 호해가 즉위하자 환관들이 득세하여 백성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진승이라는 농민은 국경 수비대로 징용되어 어양으로 가다가 큰 비를 만나서 기일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다. 도착한다 하더라도 기일을 어겼으니 처형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진승은 같이 가던 오광과 뜻을 같이 해 농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들은 호송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진승과 오광은 장초라는 국가를 세우고 진승이 왕, 오광이 부왕이 되었다. 고려 때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 출신으로 다른 노비들을 회유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승도 부역자 출신으로 왕이 되었다.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라고 했다.

'버즘나무'라는 이름은 또 뭐냐? 버짐은 백선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피부병이다. 마른버짐, 진버짐 따위가 있는데 주로 얼굴에 생긴다. 버짐은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가루를 뿌린 것 같다. 주로 겨울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은 불명확하나 강한 태양광선에 노출된 후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겨울에는 자외선의 양과 강도는 높아지지만 얼굴에 공급되는 영양이 오히려 적어지기 때문이다. 얼굴에 버짐이 생기면 못 먹어서 그렇다고들 했다. 따지고 보면 얼굴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고 있단 얘기와 상통한다. 영양상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생기는 후진국형 피부병이다. 플라타너스 껍질이 버짐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버즘나무라는 이름을 덜컥 붙여 버렸다.

나는 가로수다. 한국의 가로수가 아니라 세계적 가로수다. 나는 추위에 강하다. 겨울에 털옷을 입히지 않아도 잘 버틴다. 거름기 없는 도시의 척박한 땅에서도 나는 용감하게 잘 자란다. 무시무시한 도시의 대기오염에도 나는 방독면이 필요 없다. 거기다가 자동차, 공장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나는 거뜬히 마신다. 마셔서 정화한다. 도시에 횡횡하는 오염물질을 스폰지가 흡수하듯 나의 조직에 흡착시킨다. 이걸 학자들은 대기 오염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 나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1년에 2m씩 자란다. 메케한 공기를 마시며 누가 이런 도시녹화를 해낼 것인가.

내 아무리 생장력이 좋기로서니 한 해가 마무리될 때면 사정없이 머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처사는 또 뭐냐? 플라타너스 어원은 "넓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플라니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플라타너스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천재" 라는 나무 말이 있으며, 꽃말은 "용서와 휴식" 이다.

소나무류와 은행나무는 약 2억5000만 년 전에 지구에 탄생했다. 그 뒤 1억년이 지나 속씨식물이 탄생하는데, 속씨식물에 속하는 플라타너스도 탄생 시점이 그 때 쯤이다. 백악기 때 이미 북반구의 상당 면적을 점유하였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타너스 그늘에서 제자들과 강론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한여름 낮에 일터에서 막 돌아온 두 남자가 플라타너스 밑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야."

"맞아, 꾸불꾸불해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나무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시원하게 쉬고 있는 이 넉넉한 그늘은 바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의천의 행보는 宋 지배층에 영향 끼쳐

대각국사 의천 Ⅱ ㊦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결에서 들으니, 혜인법사께서 화엄불사를 하실 때, 고려의 승통께서 바다를 건너 천만 리 먼 길을 얼어붙음도 꺼리지 않고 중원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스승을 찾아 예로써 뵙고 나라와 조정을 감동시켜 모든 어진 스님들을 법답게 청한 뒤, 접대하는 관리와 함께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고을에 다다를 때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고 귀로 듣기 어려웠던 일인데, 이렇게 항주에 이르러 겨우 3개월 사이에 정법을 일으켜 선비나 불자들이 모두 스님을 향해 쏠리게 하였으니 참으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의천 스님의 방문을 계기로 혜인원의 화엄불사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한 당시 송나라 승려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의천 스님의 혜인원 방문과 정원법사와의 교류를 계기로 한 화엄종의 재흥, 그리고 교장의 제공은 당시의 송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천 스님의 행보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송의 지배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어지는 고려의 불전 입수를 위한 노력 역시 송 지배층 일각에 경계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의천 스님을 앉은 채로 맞이한 것 때문에, 송 지배층 일각의 찬사를 받았던 요원 선사의 이례적인 태도 역시 이러한 경계심과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천 스님이 교학을 토대로 삼아 이론 면에서 송의 화엄종을 부추겼으므로 송의 선종계가 의천 스님 스님의 활동에 대해 불쾌하고 우려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어 있다

고려전기의 왕실과 불교의 관계는 송에 비하면 대단히 평등한 것이었다. 곧 왕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이것은 의천 스님 당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 그렇다. 문종 이후 고려왕실에서는 의천 스님을 필두로 다섯 명의 화엄종 출신 국사를 왕자들로 채우는데, 왕권의 중요한 기반을 교권의 확보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왕권과 교권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송의 경우, 통치자의 지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종파의 흥성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교권이 왕권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의 사신



중국 항주 고려사는 927년에 오월왕 전홍숙이 혜인원이라는 선원으로 세운 사찰이다. 그러다가 항주에 온 의천대각국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면서 고려사란 이름으로 통하고, 2005년 9월에 복원을 시작하다가 2007년 5월 1일에 정식으로 관광불교사찰로 대외에 개방됐다.

의 자격을 가진 왕자 출신의 승통에 있는 승려를 일개 승려가 앉아서 맞이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이례적인 태도는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적 노선의 차이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의천 스님의 행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도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소(章疏)의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일 것이고, 둘째는 송에서의 교학 특히 화엄사상의 부흥이었을 것이다. 이미 송나라에 가기 전부터 송의 사정에 밝았던 의천 스님이 구법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혜인원을 후원했다는 것은 후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송 지배층 내에 존재하던 갈등을 좀더 확연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전성기에 왕자로 태어나 동아시아 불교계의 한 획을 그었던 우세승통 의천, 그에게 있어서 불교는 불교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불교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꿔가는 신념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그 불교의 변화로부터 고려인들의 삶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다 놓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음을 그는 끝내 잊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불교인으로서 의천이 세상을 향해 걷는 방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다. 그의 숨결은 교장(敎藏)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다.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마산·창원 노동현장에서 불교운동 시도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90년대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변화

최연의 구술을 듣고 있노라면, 그의 활동에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불교운동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의 불교운동은 9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다양하게 펼쳐지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

1987년 군사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그 해 6월 물결치는 민주화운동의 결과였다. 그 원동력에는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역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승속이 한데 어울려 추진한 불교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그 불교운동의 과정에는 최연을 빼 놓을 수 없다. 최연은 1975년 대불련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대불련 기획국장, 대불련 회장, 80년대 대불련의 후원자인 멘토로서 역할, 그리고 종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불교야학운동을 펼쳤으며, 1985년 민불련 출범에 공헌했다.

6·29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했지만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야권이 분열됐고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3당 야합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당시 최연은 불교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대불련) 사무총장 끝내고 2년간 1987년에 인제 현장에 갈려고 마산에 인제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하러 갈라고 내려가다가 대구에 잠깐 들렀는데 대구에 들리다가 고마 거기에 2년간 있게 돼 버렸어요. 취업하러 가다가 대구가 대불련이 좀 약했어요. 거기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다 그 권력자들이 나타난 데라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몇몇 후배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주일간 기초교리강좌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의식화시키는 기초교리강좌예요."

최연은 그간의 불교운동 경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실제 마산 창원 등지에서 불교운동의 노동현장에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마산으로 가지 않고 대구에 머물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은 최연 자신이 고교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대였다.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대구에 진보적인 불교운동을 지원하게 된



중앙신도회 건물, 최연은 7년 동안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주도했다. 안국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것이다. 그는 마산행을 포기하고 대구에서 활동하기로 한다.

"대불련 경북지부 자체를 싹 바꾸고 아이래 댕기며 내가 여기 좀 더 머물자 정착될 때까지 그래서 진보적인 청년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용화청년회라고. 거기에서. 그래 용화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있는 그 당시에 어 재야운동을 하는 민주화운동 대구는 아주 열악했어요. 그게 인제 거기에 인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이강철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시민사회수석한, 머리가 하얀 이강철 선배가 거기에 터줏대감이었지요."

사실 최연은 경북의 대불련을 위해 딱 일주일 동안 기초교리강좌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응이 좋았고 최연 또한 후배들을 길러야겠다는 심경의 변화가 일었다. 마산으로 가지 않은 이유이다. 대불련 선배들은 빨갱이 교육 시킨다고 비난했으나 최연은 활발하게 활동했고, 대불련 경북지부의 성격을 바꾸었다. 핵심 멤버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진행했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청년단체인 용화청년회가 탄생한 것이다. 최연은 대구에서 2년 동안 활동하했다. 그는 그곳에서 진보적인 토양을 만드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이듬해인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다. 이 때 최연은 서울로 올라왔고 진보적 불교시사 잡지 〈숲과 나무〉를 창간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불교설화집 〈사석집(沙石集)〉의 편저자 무주 이치엔(無住一圓) ㊦

그는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나고야의 쵸보지 전경

무주 이치엔은 제1~5권은 불보살의 영험담, 승속의 변론을 둘러싼 이야기, 둔세자 및 학승의 일화, 화카 및 렌가(連歌)의 설화 등을 모았다.

제6~10권은 인과응보담, 여러 종류의 재미있는 이야기, 교훈담, 둔세담 및 왕생담을 실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각종 사찰에서 법화(法話)의 고귀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불교 입문서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무주는 불교 이야기에 관한 서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계몽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세속적인 설화 가운데에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우화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불교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천태·율·법상 등 여러 종파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통불교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당시 출가승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

〈사석집〉, 사찰에서 귀한 자료
근세에는 불교 입문서로 활용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 지향해

고 고독과 동행한 둔세 이야기는 승려들의 수행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주가 말하는 설화는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친절함에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고고한 수행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승속의 경계 속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는 이 외에도 〈잡담집〉을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집필하게 되었다. 말년에 붓 가는 대로 화제를 골라 써나갔지만, 그 범위 또한 다양한 종파를 아우르고 있다. 왕성한 호기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잡담집〉에는 유명한 우로술회(愚老述懷)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노인이 말하기를 "나의 일족은 예전에 모반을 기획하였지만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장자(莊子) 가운데는 대붕(大鵬)이라고 하는 새와 작은 벌레가 나온다. 모기 눈썹에 붙어사는 초명(蟭螟)이 서로 상대를 비웃는다는 이야기처럼 소인은 권력자를 심중에서 웃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자신의 몸조차도 모르는 행위가 아니었던가 라고 세상은 나의 조상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막부(幕府)의 최고 권력자인 호죠 토키요리(北条時頼)의 땅은 10만 정보라고 한다. 나의 절은 단지 10정보. 너무나 열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의 쪽이 더 낫다. 어떻게 해도 토키요리는 10만 정보 외에는 자신의 영지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나는 어떠한 지방에 나가도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자신의 영지도 자신만이 사용하는 한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출가자의 기쁨은 멋진 일이다. 나도 조상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관례대로 영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둔세자가 갖는 즐거움, 가난의 고마움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며, 빈도(貧道)라는 말을 연발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주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사 집안의 후예였던 그는 수행과 포교, 집필로 삶을 엮어가는 동시에 유전하는 세상을 목격하며, 불법의 가르침은 영욕의 삶을 초월한 호대하고도 무한한 자유의 지평에 있음을 새삼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가 당시 보고 들었던 세상은 오늘날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순간의 명예와 권력을 쥐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불교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직시하며, 그 한계를 마침내 무위의 열반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매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조선 닥종이는 천년을, 사람 덕은 만년을 이어가리니

"선생님 책을 읽으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뒤, 일생동안 어머님을 세 번 뵈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수행에 철저하셔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하는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니까, 아들을 세 번 밖에 보지 못한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까? 뭉클해서 울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세 번 밖에 뵙지 않으셨을 만큼 자신에게는 무섭고 냉혹하신 분이 만인에겐 지극히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언행일치言行一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에 해버리셨어요." 스님을 추억하는 방혜자 화백 그윽한 눈매에 스님이 어린다.

프랑스 방혜자 선생 집 뜨락에, 석등이 서있었다. 멀리 꽃과 시가 어우러지는 한국 석화촌에서 숨은 듯 살아가는 은둔 시인인 외사촌오라버니가 보내준 석등이 삐딱하니 서있었다. 선생 댁을 처음 방문한 법정 스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장삼을 소매 걷어붙이고 청학스님과 함께 바로 세워놓았다.

"늘 고향생각을 하니까, 서재와 화실 사이에 완자문을 달아놓고, 도배를 할 줄 몰라서그냥 놔뒀어요. 그것도 보시더니 당장 창호지와 붓을 사오라며, 또 걷어붙이시고 두 분이 창문 여덟하고 덧문을 다 바르셨어요. 지금도 그대론데… 스님 열반 소식을 듣고 우리 인생이 종이만도 못하구나. 아직도 스님 손길 ·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스님은 가셨다는 사실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종이는 천년을 간다지만, 사람 덕은 훈훈하게 만년을 이어가리니.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태어날 때도 곁에서 지켜봤던 선생. "로고를 만들 때도 법정 스님, 청학스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곤 했어요. 제가 다른데 가 있으면 길상사 길상헌에 와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보각사 탱화도 길상헌에서 그렸습니다. 스님께선 맑고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밝게 사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맑고 향기롭게'에 '밝음'까지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조심스런 선생 말씀에 미욱한 나그네는 개인 날을 맑았다고 하니까 맑음 속에 밝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하고 현문(賢問)에 우답(遇答)을 드리고 말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었던 선생은 나자마자 까무러치고 또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더구나 동생을 너무 일찍 보는 바람에 젖도 충분히 얻어먹지 못했다. 그 때 우유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워 아버지가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우유를 구하기도 했고, 밥을 씹어 먹여 키웠다.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가 탁발 온 스님에게 물었다.

"애도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얘야 말로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도 몸이 약한 따님을 공기 좋은데 가서 쉬게 하려고 동화사나 수덕사로 휴양을 보냈다. "수덕사 있을 때 노스님하고 친했어요. 그 스님께서 날마다 누더기를 기우고 계셨어요. 하루는 산에 갔다가 오니까 스님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노스님이 열반하셨대요. 아침에 계곡에 내려가셔서 목욕재계하고 바위에 앉으신 자세로 열반에 드셨다고. 연꽃처럼 가부좌를 하신 채 다비를 치렀던 모습을 늘 떠올려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그 뒤로도 법정 스님, 청학 스님과 만남에 이어 기차 안에서 우연히 탄허스님 제자를 만나 탄허 스님 화엄경 강연을 듣게 되고, 석주스님에게 글씨를 배운 선생은 개화사 주지 송강스님과 불연(佛緣)을 이어간다.

1990년대 초. 선생화실에서 며칠만 묵게 해 달라고 화실을 찾은 한국비구니스님. 아는 댁에서 선생 그림을 보고, 전생에 선생 속을 많이 썩여드려서 도와드리려는 마음에 불원만리(不遠萬里), 한국에서 예까지 단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 스님은 선생 화실에서 닷새를 머무는 동안 곡기를 끊고, 선생이 당신을 위해 단 1프랑도 쓰지 못하게 했다.

"우주 본체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며, 으뜸가는 자비는 자기완성입니다. 선생님은 여덟 생生 동안 화가였습니다. 자잘한 정이나 종교에 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자기완성을 이루세요. 붓 한 자국 한 자국에 서원(誓願)을 담아, 선생님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정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어디를 가나 몸과 마음이 꼭 붙어있는 상태를 관(觀)하세요."

'맑고 향기롭게'에
'밝음'까지도 사신 어른

한 몸뚱이에 붓다와 예수가 동거하는
합장한 두 손이 춤 멈춘 꽃잎처럼

스님은 선생에게 마음 닦는 법을 비롯해 숙면에서부터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찬찬히 일러주었다. 그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화폭 안팎이 투명하고 밝아졌다는 선생은 그 뒤로 놀이마당에서 한바탕 멋지게 노는 그림쟁이가 되었다고 돌아본다.

"외국에 있을 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범종소리가 늘 들렸어요. 범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에는 범종소리가 부처님 목소리라고 적바림되어있다. 우리 조상들은 온 정성을 기울여 부처님 법음을 범종소리로 구현하려고 애썼다. 선생 귓가에 맥놀이 지던 범종소리는 부처님 법음이 아니었을까.

선생은 영세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제가 스님과 신부님을 자주 혼동하는데 두 종교 어른들을 다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님 영향으로. 그 신부님이 여든 둘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아침에 미사 보시고 나서 병자들 집에 가서 간호해주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영세까지 받았어요. 저는 불자니 기독교신자니 하는 울타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틱낫한 스님은 숫제 예수님상하고, 부처님상을 함께 놓고 사시잖아요." 법정 스님도 봉은사 다래헌과 불일암에 사실 때, 서가 한편에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공양을 올리곤 했다. 법정 스님은 견성을 하면 불자이길 그친다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미리내 성지 부근 실버타운 유무상통 마을 성당입구에 서있는 흑인 예수상을 그린 고진하 시 '합장'을 떠올렸다.



성당입구에 / 미륵반가사유상처럼 / 오른쪽 다리 들어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 두 발과 두 손에 박힌 못 빼어 한쪽 손에 꼭 움쳐 쥐고 / 다른 쪽 손으로 턱 괴고 / 가시면류관 헐렁하게 쓰고 앉아 / 눈웃음 짓고 있는 목조예수상이 모셔져 있지요. //……// 한 몸뚱이에 환희와 괴로움이 깃들듯 / 한 몸뚱이에 붓다와 예수가 동거하는 저 상에서 //……합장한 두 손이 춤 멈춘 꽃잎처럼 이뻤어요.

그림에 대해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던 선생을 예술가는 손으로 그리는 재주보다는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며 그림세계로 이끈 분이 고등학교 때 스승인 김창억 선생이다. "내가 15년이 걸린 것을 넌 금방 터득했다"며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은 대학에 진학 할 때도 서울대 미대 입학원서를 손수 가져다줄 만큼 선생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마음의 눈으로 그리는 일은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자아 본성을 캐어 가는 길이며, 끝없이 껍질을 벗고 생명 본래 모습으로 귀의하는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길은 우리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롯되어야 합니다. 비움이 크고 넓을수록 공명(共鳴)이 크듯이, 마음을 크고 넓게 비울수록 마음의 눈, 빛의 눈이 우리 안에 빛날 것을 믿습니다. - 선생 책 〈마음의 침묵〉 '마음의 그림' 꼭지에서

박경리 선생은 선생을 이렇게 바라봤다. "화가 방혜자는 냉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껏 행동하는 사람이다. 군사독재시절 내 딸이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잠깐 귀국해 있던 방혜자는 병자를 위해 죽을 쑤어 날랐다. 검정 뉴톤 통치마에 흰 적삼 같은 것을 입고 부츠를 신은 방혜자 모습은 잊을 수 없다… 방혜자 그림은 우주적이며 유현(幽玄)하다. 조그맣고 가냘픈 모습을 떠올릴 때 크고 깊은 그의 그림세계가 신기하기만 했다."

우주(宇宙), 시원(始原), 생명(生命), 마음, 빛을 화두 삼아 한평생 그림을 그려온 선생이 생명뿌리 속으로 깊이깊이 들어간다면, 그 못지않게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우주를 향해 성큼성큼 두 팔 벌리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 선생이 큰 사람이라고 일컫는 따님 사빈이 그 주인공.

"사빈이가 현대 문학을 했어요. 불문학, 빅토르 위고를 전공을 했는데 아빠가 박사까지 하라고 그랬더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니 자기가 곰팡이 냄새 나는 낡은 책들 속에 코를 박고 일생을 살아야하겠느냐? 자기는 손에 잡히는 실제 삶! 생생한 삶을 살고 싶다면서 졸업장을 놓고 가버렸어요. 말들이 있는 데로."

나이 스물 출가(出家).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떠난 진정한 출가다. 그 뒤로 열여덟 해. 날마다 말 열여덟 마리를 거두며 자연을 느끼고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자연환경과 말, 정감어린 시골을 숨 쉬는 진짜 삶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체험 쌓기를 도우며 살고 있다.

네 살 때 이모가 통닭을 오븐에 넣는 걸 보곤 너무 놀라서 "안돼요! 너무 뜨거워서 안돼요! 닭이 너무 아파요."하고 외치면서 울었던 아이. "엄마, 이제부턴 배추하고 무…그런 것만 사와…불쌍해." 스스로 선택한 채식주의자 사빈은 학교가 끝나면 동물가게에 가서 날마다 똥 치워주고, 동물들하고 가게 쇼윈도에 앉아 있곤 했다.

"똑똑똑!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너도 파느냐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개가 영세 받는 날, 저기가면 예쁜 동물들이 많으니까 보러가자면서 대주교님 손을 이끌고 길을 건너고 또 건너서 동물 가게에 가서 걔네들을 다 보여드리고…. 무슨 이끌림이라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을 좋아해서 조그맸을 때도 커다란 말 등을 어른처럼 토닥토닥 두들겨주곤 했던 사빈을 엄마는 일곱 살 때 말 타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애가 하도 당당하니까 말을 잘 타는 줄 알았던 코치. 사빈을 말에

비움이 크고 넓을수록
공명共鳴이 크듯이
말에게 미소를 보내면
말들은 진동으로 느껴

태우고 달리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여러 달 깁스를 하고 지낸 사빈. 여덟 살이 넘어야만 배울 수 있는 말 타기를 기다리는 한 해가 제 삶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였다고 돌아봤단다. "우리는 얘가 이제 말만 보면 겁내고 두려워할 꺼다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따님을 보러 간 선생을 사빈은 다짜고짜 끌어안고 양 볼에 뽀뽀를 해대며 외쳤다.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리둥절해 하는 선생에게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당나귀가 새끼를 낳던 날, 아기 당나귀가 벼랑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물웅덩이에 떨어져 크게 다친 데는 없었으나 물 밖으로 겨우 코만 내밀고 숨이 거의 다 넘어갈 즈음에 눈에 띄었다. 달려내려간 사빈은 당나귀 입에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다. 겨우 숨을 돌린 당나귀에게 엄마 젖을 몰렸지만 기진맥진해 젖을 빨지 못했다. 게다가 엄마 당나귀가 자꾸 새끼를 차내는 바람에 사빈은 젖을 우유병에 넣어 아기 당나귀에게 먹였다. 밤잠이 유난히도 많았던 사빈,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에도 세 시간마다 꼬박꼬박 우유를 먹였다. 오래도록 그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하는 마음이 일어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 이젠 다 자라 성년이 된 당나귀는 아직도 사빈을 보면 얼굴을 비비대며 반긴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절감했어요."

어려서 남달리 환하게 웃던 사빈은 어머니에게 애들한테 가장 먼저 미소를 가르친다고 했다. 사람과 가장 가깝고 잘 통하는 동물이 말이라면서 말에게 미소를 보내면 말과 친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은 표정을 봐야 알아차리지만, 말들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느끼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차려서 금방 친해질 수 있대요."

아름다운 불꽃을 안고 세상에 온 방혜자 화사(畵師). 불꽃은 둘레를 환하게 밝히며 늘 따뜻하게 해만물을 활발발(活潑潑)하게 만든다.



지난 23일 갤러리 현대에서 〈빛의 울림〉전시회를 마친 방혜자 화백, 이달 29일부터 2012년 4월 1일까지 제주도 돌문화 공원 오백장군 갤러리에서 초대전 〈빛에서 빛으로〉를 갖는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상서로운 모습은 보았는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홀연 철지난 매지구름이 북한산을 휘감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내 거센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가 요란하다. 매실만한 빗줄기가 대지를 할퀴듯 쏟아진다.

한국의 가을의 전령은 설악산에서 기별이 온다. 매일 대하는 북한산의 모습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저 방대한 산을 온통 분홍색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어느 산 모퉁이에는 소복한 여인 마냥 하늘거리는 갈대의 춤사위가 눈길을 끈다. 아마 갈대는 하늘에서 속삭이는 어느 영혼의 속삭임을 저리 소복을 차려 입고 오직 몸짓으로만 이승의 누구에게 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움이나 애절함은 인간의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듯하다. 자연은 그들만이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쓰러질 듯 일어나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자.

조주 선사는 선종사에서 숱한 일화를 남긴 스님이다. 선사는 산동성 조주(曹州)사람이다. 소종(昭宗)의 건녕 4년에 120세로 열반했다고 한다. 그는 14세 때 남전(南泉) 선사를 처음으로 친견하게 된다. 절기는 해동이 되지 않아 으스스 추운 이른 봄이었던 모양이다. 남전 선사는 양지 바른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찾아온 사미승 종심(從諗)을 보았다.

남전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종심이 답했다. "네,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그럼, 서상(상서로운 모습)은 벌써 보았겠군"하고 떠 보았다.그랬더니 종심이 답했다. "아뇨, 서상은 모릅니다만, 와여래(臥如來)를 보았습니다"라고 답했다. 남전은 그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내심 놀라며 일어나 앉아 다시 "네게 스승이 있느냐"고 물었다.

종심은 "아직 추운 겨울인데 스승님께서 건안(健安)하시니 무엇보다도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상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소통의 문제가 여의치 못하면 일이 어긋나기도 하고 어느 경우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범어에 'Bodha'라는 말은 '앎', '이해', '인식'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동사 bud에서 나온 말인데 '인식하다', '배운다'는 말이다. 우리말로 본다고 하면 눈으로 어떤 대상을 이러 저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아는 정도다. 그렇다면 만약 시각 장애를 일으켰다면 앞에 대상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만다. 범어로 본다고 할 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대상을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아무개를 보았다고 할 때도 그렇다.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국한 시키기 마련이다.

자하(子夏)는 단 하나 뿐인 외동아들을 잃어 마침내 실명(失明)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식 잃은 슬픔을 상명지통(喪明之痛)이라고 한다.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함이란 오죽했으랴 마는 전혀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다. 비록 육안은 잃었으나 그에게는 보석보다 값진 심안(心眼)이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스승은 어떠한 분이냐고 물었다. 그래, 우리 스승은 세 가지가 특이하다. 멀리서 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하면 온화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 표명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할 것인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망설이거나

소통 여의치 않으면 오해 깊어지기도
상대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
멀리서 보면 위엄, 가까이 들으면 온화
말씀 들으면 정확하다 말할 수 있어야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손해나 불이익이 미칠까봐 주저주저 하는 것이다. 지나친 호사일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먼 훗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했지' 라고 평가 받길 기대해 본다.

완연한 가을 햇살이 포근히 대지를 감싼다. 가을걷이를 서두르는 농부의 손길이 바삐 움직인다. 추수를 마친 들녘에 허수아비가 멋쩍게 서있다. 철 지난 밀짚모자, 듬성듬성 꿰맨 넝마 같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서 겨울을 날 것이다. 아무런 염치나 체면도 없이 재물을 걸태질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80개국 900여 도시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좋다고 허밍(humming)하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유난히 눈에 밟힌다.



세계인류평화기원

용주암 극락전 지장보살님 명부시왕
봉안 1주년 축하공연
영가1년 기도 연등 만등 법회 봉행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가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ㅣ 일 시 : 2011년 (양) 11월 5일, (음)10월10일 토요일 오전 11시
ㅣ 주 최 : (사) 대한불교 일련종 팔공산 용주암
ㅣ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도우
ㅣ 후 원 : 스리랑카 주한대사관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ㅣ 장 소 :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주암

행사당일 교통안내
⊙ 동대구역 육교 밑에서 용주암까지 오전7시부터 11시까지 3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이용하시를 바라오며,
⊙ 귀가시에는 오후4시부터 용주암에서 백안삼거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성 학 합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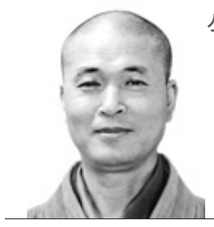
창사 18주년 기념
VVIP 성지순례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ㅣ 바간 ㅣ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16일, 1월 27일, 2월 7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ㅣ 바간 ㅣ 만달레이 ㅣ 헤호 7일 2,10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11월 ~ 12월 14일까지 출발상품
■ 양곤 ㅣ 바간 ㅣ 헤호 6일 1,740,000원
■ 양곤 ㅣ 바간 ㅣ 만달레이 ㅣ 헤호 7일 1,900,000원
■ 양곤 ㅣ 바간 ㅣ 만달레이 ㅣ 짜익티오 7일 2,100,000원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ㅣ 시기리야 ㅣ 아누라다푸라 ㅣ 캔디 ㅣ 풀룬나루와 ㅣ 콜롬보
■ 미산 ㅣ 구채구 ㅣ 낙산대불 ㅣ 황룡사 6
■ 방콕 ㅣ 파타야 5일
■ 세계7대불가사의 앙코르왓트 씨엠립 5일
■ 라오스 5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바로 지금을 도리어 알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형상이나 위의(威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도리어 알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바로 지금[即今]을 도리어 알겠는가?"

問 不具形儀 還會也無 師云 即今還會麽

우주는 법칙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만물이 생주이멸한다. 그 법칙이 나오는 장소를 법성(法性)이라고 표현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주의 근원(根源)이다. 근원(根源), 그것은 형상이나 어떤 고풍스런 위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 예로부터 선사들은 그것을 다만 깨달음을 통해 알았다.

그런데 근원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사람도 근원 속에 있다. 사람이 곧 근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근원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체험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짧은 시간, 단 5분만이라도 정말로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고요한 무심에 들어가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깨달으라. 그것을.

그런데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다. 알았다고 하면 안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그것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지금[即今]과 같다. 지금은 항상 지나가고 있다. 현재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과거가 된다. 현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현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나 다 불가사의를 지니고 있어."

問 如何是大無慚愧底人 師云 皆具不可思議

수행자는 근원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은 항상 근원을 지니고 있고, 세상을 보는 안목은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 더러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깨끗함도 없는 것이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으며,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은 분명히 더러운 것을 치우고, 항상 깨끗하게 산다. 규율은 질서이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어쩔 수 없을 때만 계율을 버린다.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그를 깊이 이해하고 편안한 임종이 되도록 도와주고, 가난하여 울분에 젖어있는 사람에게 부와 빈은 본래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던져 준다.

수행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 부처의 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응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도의(道義)를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는 이 땅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숨 쉬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가사의한 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불가사의 한 면이 있다.

학승이 물었다.
"급박한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1문 1답이다."

問 如何是急切處 師云 一問一答

세상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눈앞의 일이다. 지금 질문이 일어났을 때, 대답하여야 하는 것만큼 다급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미래는 모른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눈앞의 문답이 가장 시급하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달리는 자는 헛된 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이다. 항상 그때그때 현재를 충실하게 잘 살았을 때 인생을 잘 산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는 지금 하라. 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지금 하라. 자식에게 사랑을 지금 주어라. 애인에게 선물도 지금 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선적(禪的)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능엄경

관세음보살을 원통대사라 부른 까닭은?

〈능엄경〉의 본래 명칭은 〈나무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이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걸쳐 선법이 전래되면서 소위 구산문을 비롯한 많은 선풍이 점차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였다. 이런 즈음에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에서도 교학불교와 더불어 수양과목으로서 선수행은 필수적인 교양으로 수용되어 소위 거사선이라는 일군의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이자현(1061~1125)은 당시 가지산문의 계승자였던 학일(1052~1144) 및 탄연(1070~1159)을 비롯한 당시의 선승들과 교유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풍을 다졌는데 〈능엄경〉을 위주로 하는 소위 능엄선의 흥기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자현은 일찍이 벼슬을 그만두고 청평산 문수원에 은거하면서 참선과 경전 공부로 일관했다. 이자현은 일찍이 〈설봉어록〉을 통해 깨침을 경험한 이후로 운문문언의 어록 등 여러 가지 어록과 경전을 즐겨 애독했다. 경전 가운데는 〈능엄경〉을 중시해 그 제자들에게도 널리 권장했다. 이자현은 〈능엄경〉의 지·수·화·풍·공·근·식 등 칠대오입(七大悟入)을 통한 망념의 타파를 중시해 그것을 통한 깨침을 강조했다. 나아가서 일체 존재가 여래장 아님이 없음을 설명하는 내용에도 깊이 탐구했다.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으로는 25가지 원통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서도 관음보살이 수행한 이근원통은 이자현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이근원통은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으로서 소위 듣고 있는 자신의 성품을 다시 돌이켜 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근원통이란 25성인이 각기 자신이 깨친 원통방편을 설명하자 부처님은 문수에게 그 시비를 가려보라고 말한다. 이에 문수는 차례로 25성인의 견해에 대해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관세음의 이근원통이야말로 최상의 방편임을 찬탄한다. 25원통은 6진과 6근과 6식과 7대가 원통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고려 중기 귀족층에 유행한 〈능엄경〉
> 거사선이라는 일군의 선풍도 일으켜
> '칠대오입' 통한 망념의 타파 중시해
> 육근 중 이근방편 수승함 강조하기도

육진오입(六塵悟入)은 다음과 같다.

성진오입은 교진여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성제를 깨친 것이고, 색진오입은 우파니샤타 곧 진성(塵性)이라는 수행자가 부정관을 관찰해 무학도를 성취하는 것이며, 향진오입은 향엄동자가 두루 유위법을 관찰하다가 침수향이 타는 냄새를 통해 무루지를 얻은 것이고, 미진오입은 약왕과 약상이 약초의 맛을 통해 보살지를 얻은 것이며, 촉진오입은 발타파라가 때를 씻는 물을 통해 무소유경지를 얻은 것이고, 법진오입은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 등이 육진이 모두 공적한 줄을 터득해 멸진정을 얻은 것이다.

육근오입(六根悟入)은 다음과 같다.

안근오입은 아나율다가 금강삼매를 통해 얻은 지혜이고, 비근오입은 주리반특가가 출입식을 통해 무학위를 얻은 것이며, 설근오입은 교범바제가 혀를 통해 무학위를 얻은 것이고, 신근오입은 필릉가바차가 촉각을 통해 무학위를 얻은 것이며, 의근오입은 수보리가 공성을 통해 무학위를 얻은 것이다.

육식오입(六識悟入)은 다음과 같다.

안식오입은 사리불이 심견(心見)을 통해 아라한을 얻은 것이고, 이식오입은 보현보살이 심문(心聞)을 통해 지혜를 터득한 것이며, 비식오입은 손타라난타가 출입식을 통해 수기(受記)를 받은 것이고, 설식오입은 부루나미다라니자가 대변재(大辯才)의 음성을 통해 아라한을 얻은 것이며, 신식오입은 우파리가 청정계율을 통해 아라한을 얻은 것이고, 의식오입은 대목건련이 신통력을 통해 아라한을 얻은 것이다.

칠대오입(七大悟入)은 다음과 같다.

화대오입은 오추슬마가 화광삼매를 통해 아라한을 얻은 것이고, 지대오입은 지지보살이 비사사불을 위해 땅을 평탄하게 한 수행으로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며, 수대오입은 월광동자가 수성관법(水性觀法)을 통해 동진(童眞)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고, 풍대오입은 유리광보살이 시공을 관찰해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며, 공대오입은 허공장보살이 정광불의 처소에서 무변신을 통해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고, 식대오입은 미륵보살이 식심삼매(識心三昧)를 통해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며, 근대오입(根大悟入)은 대세지법왕자 곧 무량광이 육근을 통해 삼매를 터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근원통(耳根圓通)의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과 같다.

"대중과 아난이여, 그대들이 전도해 듣는 바탕을 돌이켜서 듣는 자성을 되돌이켜 듣는다면 그 성품은 최상의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니 원통의 진실이 그와 같다. 이것이 바로 미진불이 열반에 들어간 하나의 길이었다. 과거의 모든 여래도 이 반문문자성의 수행으로 여래를 성취했고 현재의 모든 보살도 지금 각자 원명한 수행문에 들어가며 미래의 수행자들도 마땅히 이 수행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나도 이 수행법에 의지했듯이 관세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능엄경〉의 경문에서도 이근원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육근오입 가운데서 이근오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경전을 따로 할애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써 중생의 육근 가운데 이근방편이 가장 뛰어남을 말해 관세음을 원통대사(圓通大士)라 불리웠다는 내용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초발심자경문

마음을 닦아야 보배



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
삼일동안 마음을 닦아도 천 년의 보배가 되지만 백 년 동안 탐내어 얻은 것은 하루아침의 티끌로 돌아간다.

載: 실을 재, 떠받들 대
寶: 보배 보
塵: 티끌 진

청우	년중추철	불기이오오	일조	탐진	백물	재년	심보	삼천	일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대학입시 수능시험합격 발원 *보시금 : 95,000원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 부처님 전에 축원하여 발송합니다.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다음 에서 '초록원웰빙'을 검색하세요.

주련(柱聯) 성찰이라는 시간의 흔적을 적다



주련, 불자라면 누구나 익숙해 있어 쉽게 휙 지나가버리는 단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적한 산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절집을 만날 수 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마루나 기둥을 보다보면 그곳에 붙어 있는 글에 눈길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주련(柱聯)'이다.

삼보불교카렌다 김형두 사장은 삶이 녹아있는 주련의 세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항상 볼수 있도록 달력으로 제작 보급 하고 있다.

"산사에 있는 오래된 절의 주련은 부처님 말씀이나 대선사님들의 게송으로 주옥처럼 빛나는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접근과 이해가 어려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저희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현대인들이 주련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당대 서예가들의 명필 글씨를 그대로 옮겨 주련의 의미와 감동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사장은 우연히 산사에 있는 사찰에서 스님께 주련에 대한 글귀 설명을 듣게 되었다. 주련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과 역대 조사님들의 게송을 항상 집안에서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달력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직접 5년여 동안 주련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풍경과 어우러진 사진을 마련하고자 밤새워 작업한 적이 셀수도 없었다. 한컷 한컷 정성스럽게 모은 사진들이 지금 삼보불교카렌다의 "사찰과 주련"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주련에 대한 해설은 경원사 만우 스님께 부탁하여 게송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여 마음에 손쉽게 새기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사장은 최고급의 종이로 최고의 작품(달력)을 보급하는데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절집의 아름다운 풍경과 큰 신심으로 담아낸 사진을 함께 실어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있다.

삼보불교카렌다 031)731-9905



법어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 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함경)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이야기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무아선원장 혜원 스님

과거 수십년 동안 수행하여 증득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할 수 있도록 서술한 책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스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됐다. 출가 후 수계 스승이 하는 것을 옆 눈으로 구병시식을 익히고, 법화경 독송 중 일어난 법열(法悅)로 중생의 병을 다스리기도 했다.

스님은 또 화엄성중 철야21일 용맹정진 기도 중 화엄성중들을 조복 받았고, 2008년 어느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가 부처소리로 들리면서 부처를 보기도 했다.

또한 생활가운데 간화선 수행방법을 증득하신 어느 스승이 도를 얻고 나서 미혹하게 중생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자만하면 미혹하게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스승을 찾지 못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해야

하고 고뇌하다가 대혜종고 선사의 서장을 통하여 도를 얻고 나서 공부방법을 아는 순간 법열이 열리고 도인이 되고 나서 지키지 못하고 미혹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 지금도 일상생활가운데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혜원 스님은 출가 전부터 겪어온 많은 갈등과 고난 속에서 도(道)는 멀리 있지 않고, 일상생활 모두가 도(道)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큰스님들의 많은 법문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교리적 논리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을 묶어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펴낸 것이다.

이 책은 1700년 전 선(禪) 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유식 30송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면서 수행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수행을 위한 5단계인 혼란기 안정기 관찰기 깨침기 수습기를 설정했다. 생각이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본 마음은 단계가 없고 보고 듣는 대로 알면 되지만 생각 일어나 분별하면 습관때문에 단계가 필요하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관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로 서술하였고,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수행하면 증득할 수 있지만 보통적인 삶에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으면 무엇을 얻은 것으로 알고 머무는 것이 병(病)인 줄 모르면, 미혹하여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한 병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 할 수 있도록 수행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혜원 스님은 이 책에 대하여 "수 십년 동안 증득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수행자이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은 한 생각 일어나 중생으로부터 부처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근기에 따라 사람을 가르친다면, 고뇌하는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고 서재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참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스님은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중심으로 선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무아선원 (031)721-2148

고급화를 넘어 대중화로 발전하는 위패

선망 부모와 조상들을 절에 영구위패로 모시면 스님의 염불을 영가들이 듣고 극락왕생과 해탈의 도를 얻도록 하기위한 자손들의 마지막 효이며 후손에게 복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위패가 내려왔으나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위패가 파손되거나 전해지지 못해 그 풍습이 변질되어버린 안타까움이 많다. 현대에서는 전통제례를 보존하고 있는 종친회나 사찰의 제례행사에서 근근히 명백이 이어져 내려져 오고있는 형편이다.



황금위패 (디자인특허등록)

시대가 지남에 따라 소재가 다양해짐으로서 기존의 나무에서 크리스탈, 수지,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 없어 완성도가 조잡하기 이를때 그지없어 사찰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제한과 고민점이 컸고, 궁여지책으로 종이로 접은 지방를 위패에 덧씌웠다. 하지만 실내 법당에 오랜기간 모시고 있는 중에서도 습기와 실내환기로 인한 풍화로 종이로 제작된 영가단과 지방이 습기를 먹어 울거나 지저분해지는 사태가 벌어져 항상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대양에서 출시한 '영구황금위패'는 밤나무에 옻칠을 하고 건조시키고 사포로 표면가공후 다시 칠하는 공법을 7차례 걸쳐 각종 습기와 풍화에 색이 바래거나 목재가 뒤틀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순금으로 부분개금하여 외관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보여주었으며 주문하면 회사자체에서 명단대로 서체를 조각 마무리까지 해주는 제품이 출시되어 많은 사찰과 신도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고 있다.

위패는 공간적으로 차치하는 면적이 넓어 공간의 마련이 여의치않는 사찰에서는 벽면에 신위를 부착한 영가단이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종이로 만든 지방이 그러하듯 벽면을 채우고 있는 영가단은 습기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더더욱 뚜렷하여 깔끔한 벽면이 습기에 울어 쭈글쭈글한 모양이 법당의 내관을 손상한다는 지적이 많이 오고가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영가단은 화재시 큰 손상이 되어 명단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누가 등록을 하고 올려놨는지 찾을 길이 막막하다. 이러한 종이 영가단의 단점이 보안된 제품으로 흑옥으로 제작된 흑옥영가단이 선보여지고 있으며, 흑옥으로 제작된 흑옥영가단은 교체가 쉽고 흑옥으로 만들어 습기나 화재에도 모양의 손상없이 보

사찰위패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제례에서도 위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존성이 뛰어나면서 그윽한 흑빛으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제품으로 많은 호응과 입소문이 여기저기 들린다.

조상을 기리고 혼백이 찾아들어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데, 사찰에서 그랬듯이 집안에서 모실수 있는 위패 또한 사정이 다를바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관리상, 외관상 많은 외면을 받아왔던건 사실이다. 기존의 시장에 나와있는 위패는 그 형태와 느낌에서도 일반가정에서 모시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여 더더욱 조상과 후손들의 거리를 멀리하게 되는 뜻하지않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점에서 가정제례용 흑단위패는 하단부분을 흑단나무로 만들고 상단부분을 오석으로 제작 가정에서 쓰기 무리없게 만든 제품이 되겠다. 죽은사람이 기거한 곳이라는 우중충한 이미지에서 후손들과 함께 어울려 머물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인것이다. 특히 제사때마다 '현고학생부군신위' 나 관작이나 호를 기억하지 못해 찾고 해매는 일이 없어졌으며, 제작된 디자인도 여타 디자인과 달리 모던하고 심플하여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정제례용 흑옥위패

(주)대양아트 02)966-9650
www.dya.xo.st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그래, 절로 가는 거야

올가을 서점가에는 사찰 · 사찰 숲 등 절집 이야기 풍성

답답한 시대이다. 상처받기 시대이다. 아니, 예부터 세상살이는 녹녹치 않았다. 오죽하면 불가(佛家)에서 이 세상을 두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곳이라 해 사바세계라 했을까? 그리고 고해(苦海)라고 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통은 변함이 없다. 오직 수행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길 만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좇아 사찰을 찾는다.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다. 올가을 책과 함께 사찰을 만나자.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찰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

어려서부터 왠지 절집이 좋았다는. 그래서 출가했다는 스님이 절집을 순례하며 쓴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승환 스님이 펴낸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이 그것이다.

스님은 서울신문 ·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책에는 출가자의 눈으로 바라본 절집이 시인의 감성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책의 사진은 불교계 최고의 사진작가로 손꼽히는 하지권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영상미 또한 수려하다.

"절집을 순례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배웠다. 힘들고 고됐지만, 나는 기꺼이 내 인생수업을 다시 했다…. 부처님 말씀은 받아 적지 않아도 내 마음노트에 자연히 기록됐고, 지우고 다시 써야할 해답과 정답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었다."

승환 스님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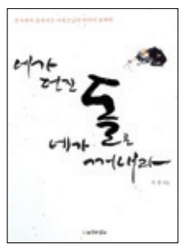


책을 읽고 나면, 절집의 죽비소리 목탁소리 법고소리 범종소리가 어느새 귓전에 맴돌고 있다.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 글 · 승환 | 사진 · 하지권 |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40년 중진수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보따리

산골 수좌 기후 스님이 펴낸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의 한 구절이다.

한 스님이 있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는 천연두에 시달렸고, 노년의 한자락은 위암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스님은 병고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키워갔다. 지금도 스님은 경북 봉화 구마동 계곡에서 수행을 쉬지 않고 있다.

기후 스님(사진)의 이야기이다. 1943년 경북 안동 오지마을에서 출생한 스님은 첫돌도 되기 전에 천연두를 앓아 사춘기 시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 1965년 범어사 금강암에서 출가한 스님은 1969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통도사 해인사에서 강사를 역임한 스님은 용화사 봉암사 수도암 등 제방 선방에서 수선안거했다.

경주 기림사에서 6년 동안 묵언정진도 했던 스님은 1991년 호주로 건너나 정법사를 창건했다. 그 후 15년을 해외포교에 주력했지만 위암 판정을 받고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온 기후 스님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항암치료가 아니었다. 스님은 산중 토굴로 들어가 용맹정진을 했다. 그러는 동안 천연두도, 암도 저절로 사라져 버렸다. 지금도 기후 스님은 장대비가 하루만 내려도 그 순간부터 길이 끊기고, 핸드폰도 통하지 않는 심산유곡의 토굴에서 7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스님이 최근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를 펴냈다. 책은 45년의 출가생활 중 선방에서 20여 년을 보낸 선방수좌 기후 스님이 재미지게 풀어낸 마흔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행자시절 찾아온 어느 멋진 여인과의 이야기, 수행에 걸림이 될까봐 걸망에 해골바가지를 짊어지고 다녔던 한 수좌의 파계, 차 한 잔을 마시다가 떠난 일등수좌의 열반, 솥까지 걸머메고 떠났던 수좌스님들의 소풍이야기, 고구마 서리를 하다 들킨 사연 등 귀동냥으로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탄허 경봉 전강 성철 월하 스님들 쟁쟁했던 선지식들의 치열한 수행담까지 스님의 책에는 모두 담겨 있다.

기후 스님의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선방수좌가 치열하게 살아온 하루하루를 글로 풀어



낸 까닭이다.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도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잘 지내라는 전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괴롭히던 천연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까지 위협하던 위암은 어떨까? "조금 살만하고 또 조금 수행의 힘이 생겼다고 자만하고 나부대 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후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반조하고 있다.

스님은 "힘이 생겼을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기란 어렵다. 나도 그 세력에 속았다"고 허심탄회하게 술회한다.

스님은 "자신이 암을 떨쳐내기 위해 7년간 용맹정진을 한 덕에 지금의 안목이 생겼다"며 "고통의 속성을 잘 간파하면 언제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귀띔한다. 〈기신론〉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을 의지해 일어나고 참은 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구절과 함께.

기후 스님은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으나 삶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약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걸림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결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스님은 "미래의 불행에 미리 겁먹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큰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참 지혜가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참 지혜가 나오는 방법으로 깊은 명상과 따뜻한 사유를 권한다.

기후 스님은 "명상과 사유를 거치지 않은 지혜는 마른 지혜이다. 참 지혜는 언제나 촉촉하다"며 "재가자들도 마음공부를 쉬지 말라"고 당부한다.

네가 던지 돌은 네가 꺼내라 | 기후 지음 | 이자리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절집 숲에서 마음의 풍요를 느끼자

개심사 전등사 용주사의 솔숲, 내소사의 전나무숲, 표충사의 죽전수림 등.

책은 사찰 주변의 수려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다양한 종류의 숲들 중에서도 절집 숲은 장구한 역사성과 전통적 경관미, 삼림 이용의 지혜가 응축된 살아 있는 현장이다. 美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전영우 교수는 사찰의 삼림을 '절집 숲'이라 이름 붙였다.

숲이 포용한 다양한 기능처럼, 절집 숲도 예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를 간직해 왔다. 절집 숲이 지닌 재래적 기능은 성속(聖俗)을 가르는 차폐공간, 수행과 명상과 울력의 수도공간, 전란이나 화재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가람 축조용 목재의 비축기지 등이다.

저자는 "절집 숲이 오늘날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과 생태의 가치가 고양되는 21세기에 자연 및 생태 소비의 훌륭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저자는 "숲에서 삶의 질이 물질적 욕망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 충족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책은 '절집 숲이 품고 있는 전통경관' '절집 숲이 지켜온 자연유산' '절집 숲이 간직한 역사'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숲을 즐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의 어떤 숲에서나 자기 스스로 풍경 속의 한 점경(點景)이 되어 보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 글 · 사진 전영우 | 운주사 | 2만3000원

사찰 가는 길은 마음공부하는 길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는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사찰기행' 강좌를 맡으며 혼자 또는 수강생들과 전국을 누벼 온 목경찬 선생이 지은 책이다.

책에는 전국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문화 에피소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슬기롭게 가꾼 절집, 감응으로 나투신 불보살님과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를 살폈다.

저자는 사찰을 찾을 때 버스와 두 다리를 이용한다. 자가용이 흔한 요즘이지만 저자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저자는 시내외 버스의 출발시간을 확인하고 차를 갈아타며 목적지에 도착한다. 산 밑에서는 옛길을 따라 천천히 일주문까지 걸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자가용으로 손쉽게 일주문으로 가는 이들과 달리 묵묵히 걷는 저자의 모습이 미련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사찰을 찾는 모든 과정이 마음을 내려놓는 좋은 수행이다"라고 말한다.

책에는 저자가 수행하듯 찾아간 사찰 100여 곳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로 재미지게 사찰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보다보면 사찰 구석구석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절로 느끼게 된다.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글 · 사진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 1만3000원

사찰 마당서 찾는 우리 문화

김도경 강원대 교수가 대한불교진흥원을 통해 펴낸 〈사찰의 앞마당과 뒷마당〉은 사찰 마당에 주목해 기술한 책이다.

책은 사찰 마당에 자리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을 나누고 쓰는 모습을 통해 건축적 기능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사찰로 향하는 사찰의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사찰 어귀에 있는 장승, 누구든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가라는 표시인 하마비, 사찰 앞을 흐르는 시내 등.

이곳과 저곳.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지나면 너와 내가. 성과 속이 하나라는 일주문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는 부처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는 천왕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공간들을 지나 사찰의 중심에 이르러야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고난을 헤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찰의 중심 영역에 이르는 길은 한가지도 허투루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사찰의 뒷마당은 한걸음 내딛어 자연과 하나된 자리이다.

저자는 "우리는 여러 숨은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인 뒷마당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찰의 앞마당과 뒷마당 | 지은이 김도경 | 대한불교진흥원 | 2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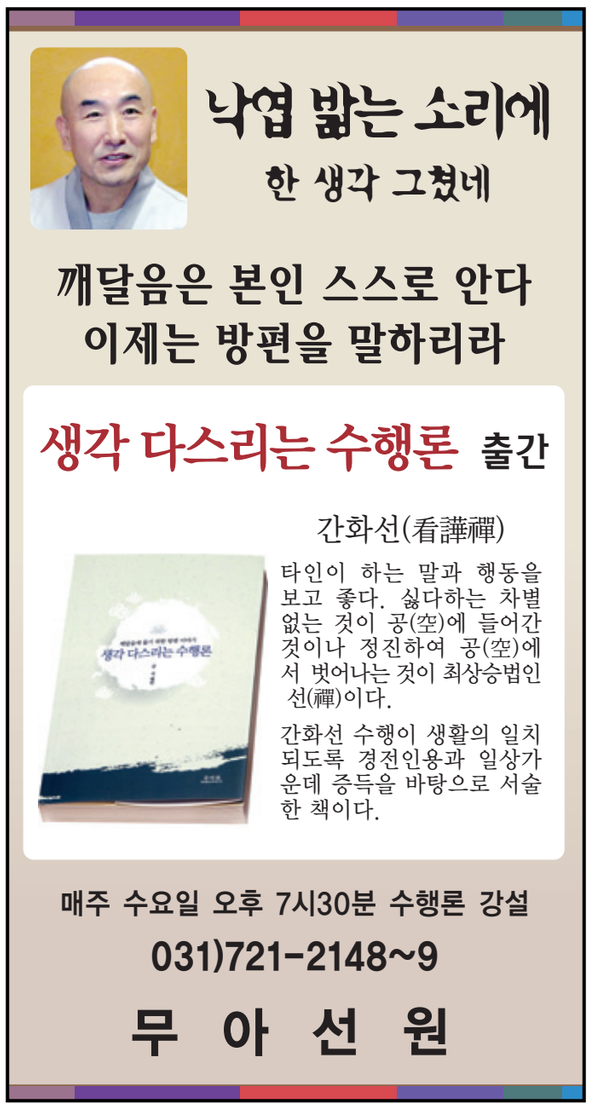
10/12~10/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3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6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7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	컬처북스
8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9	공겁인 (한국의 유마 백봉거사와 제자들)	최운초	비움과소통
10	집착을 버려라	히로 사치야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3개국어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 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산중미술관을 개관한 상묵 스님은 '꿈꾸는 동심'을 주제로 스님의 어린 시절을 화폭에 담았다. 왼쪽부터 '동심' '엄마의 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마음이 크게 열리더라

하동 지통사 상묵 스님, 산중미술관 개관



"지금까지 개인전을 15회 가졌지만 긴 시간동안 활동을 못한 탓인지 이번 전시회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형제봉 중턱의 작은 사찰 지통사에 미술관이 열렸다.

주지 상묵 스님(사진)은 10월 22일 '산중미술관'을 개관하고 20여 년 간 사찰을 홀로 지키며 그려온 그림들 100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 서울 정동 경향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 이후 7년 만이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지통사 상묵 스님은 출가 후에도 그림을 그렸다.

요즘에 들어서야 노래하는 스님, 조각하는 스님, 그림 그리는 스님 등 이름을 알리며 예술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많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승가에서는 스님들의 예술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스님도 출가 후 30여 년간 수행하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 마다 틈틈이 몰래 그림을 그려왔다. 그렇게 그리고 모아온 작품만 2000여 점. 1996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중턱의 작은 사찰 지통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녹차를 대접하는 조촐한 전시회로 시작했지만 지리산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에서 구경 왔다. 그 이후로 지통사와 서울 덕원 미술관 등에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2000년에는 프랑스에서 초대전을 제안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스님의 그림 수행에 고난이 찾아왔다. 2001년 겨울, 화재가 발생해 30년 넘게 수행하며 그려온 그림 2000여 점이 전부 소실된 것. 작품을 보관하는 전시관과 법당 모두 타버리고 요사채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그림을 통해 작은 절을 짓겠다는 소망도 함께 날아갔다.

"화재가 난 후 한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려온 작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붓을 내려놓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상묵 스님은 컵라면을 하루에 한 개만 먹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했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읍내 화개장터로 내려갔다.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널빤지, 나무토막 등을 가져다가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물에 갠 황토를 발랐다. 그 위에 먹과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니 작품이 됐다. 그렇게 그린 작품들로 2004년에 정동 경향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스님은 전시관과 요사채를 다시 짓기 위해 일어섰다. '산중미술관'을 다시 여는 데에만 7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나 전시회를 열 정도로 바빴는데…."

그래서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옛 큰스님 말씀 중에 '큰 것을 잃어야 큰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와 닿았어요.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니 마음이 크게 열려졌다고 할까. 전에는 아만(我慢)이 많았는데 경험을 통해 자연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꿈꾸는 동심'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아련한 어린 시절을 화폭에 담아냈다.

해지는 줄 모르고 술래잡기 하며 뛰놀던 기억, 뒷동산 달이 환하게 떠올랐을 때 또래들과 한데 어울려 조잘대던 동심의 시절들을 볼 수 있다. 서양화, 유화, 동양화, 선묵화를 비롯해 황토, 기와 등 다양한 재료를 접목한 작품이 전시된다. 황토그림을 비롯해 버려진 음료수병을 도자기 삼아 그린 병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상묵 스님은 "이번 전시는 자연과 차(茶)와 그림을 한꺼번에 감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55)883-3751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부처님 가르침 조각으로 만나요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10월 31일까지


단하소불(은행나무, 조병현 作)

고승 대덕들의 설화와 가르침을 조각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조각기능인 모임인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송근영)는 10월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2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목조와 석조 등 60여 작품이 출품된다. 경전에 등장하는 불 보살상과 문수보살의 게송을 표현한 조형과 고승 대덕들의 설화 및 가르침을 조각으로 처음 표현한 작품들이 출품 됐다. 또한 달마대사의 몸이 바뀌기 전의 모습과 바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작품 등 현대적인 흐름을 담으려한 작품도 볼 수 있다.

송근영 회장은 "문화재조각기능인들의 문화재 보수복원 작업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창작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불교미술 공예조각이라는 방편을 통해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쉽게 가슴깊이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불교미술인의 저변확대와 독창적인 한국불교 미술조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문(나무, 김광현 作)


무염무구시진상(향나무, 송로영 作))

여법한 마음으로 그린 부처님 그림

11월 1일까지 갤러리 이즈


영산회상도(21011)

용인대 예술대학원 불교회화 전공자인 최가영의 석사학위 청구 개인전 '여법전(如法展)'이 11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 제4전시관에서 열린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익힌 불교회화의 세계에 진지한 구도의 마음을 담아냈다.

전시작품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전남 대흥사의 '영산회상도'를 임모(臨摸)한 작품과 1562(명종 17년)에 제작된 '사불회도'의 임모작,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를 임모한 작품 2점과 함께 다양한 불교회화를 선보인다.

최가영 작가는 "청정무구한 해탈의 경지가 곧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이며 이를 상징적으로 조형화시킨 것이 불화"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번뇌와 고통에 싸인 중생들의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세계를 시각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6-6669 이나은 기자

능인 스님, 창작음반 7집 발표

디스코·랩 등 다양한 장르



작사, 작곡, 기획, 제작에 노래까지 소화하는 싱어송라이터 행복사 능인 스님이 창작음반 7집을 출시했다.

'심향, 마음의 향기 7집'에는 디스코와 트로트, 민요, 랩, 발라드, 왈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탄생한 대중가요와 찬불가 12곡이 수록돼 있다.

능인 스님은 이번 음반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계몽적인 노래 '아니야 아니야', 불교의 신앙 형태를 꼬집은 '부처님 전에 돈 천원 놓고' 등 색깔이 있고 재미있는 곡들로 엄선해 선보이고 있다.

(02)945-3424

'소리풍경' 찬불가 앨범 발표

블루스 음악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던 이대희의 찬불가 프로젝트 팀 '소리풍경'이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다.

'소리풍경 2011'에는 굿거리 찬불가 '부처님께 귀의하며'를 비롯해 징 솔로 연주 '선(禪)' 등 6곡을 수록했다.

www.edayband.com

이나은 기자

조계종 문화부, '도심속 산사음악회'

조계종 문화부와 '노래의 인문학'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도심속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 연등회'를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김현성, 북밴드 '움직이는 꽃'이 그동안 발표한 '연등회'의 노래와 연등회에서 빚어진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이나은 기자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솔바람 적삼에 불어 옷깃이 흩날린다

귀래전거도(歸來田居圖)


'귀래전거도'

사찰 경내를 다니면, 여기 저기 감국(甘菊)이 피어있고, 가을을 표상(表象)하는 톡쏘는 꽃향기와 구름 높은 하늘에선 약한 햇볕을 비추이고, 이제 서리 내리는 시기가 되어, 뭔가 가슴 한 구석이 쓸쓸하기도 하고, 잊혀진 추억을 긁어서 희미하게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관상용((觀賞用)으로 키우던 식물은 국화(菊花)였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唐代) 이전부터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니까 다른 화초들보다 훨씬 사람의 손에 익은 화초이다. 많은 종류가 개량되고, 재배되어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화는 일설(一說)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감국을 종자로 해서 생겨난 식물이란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겐 친근하고, 정이든 식물이기도 하다. 국화를 차로 만들어 끓여 먹으면, 휘발성 정유(精油)를 가진 국화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리고, 몸이 찬 사람은 따스하게 하며, 피부미용이나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아토피나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어서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노폐물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소재로 하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대개 점잖은 중년선비가 소나무에 기대고 서서 국화꽃 핀 울타리를 뒤로 하여 상념에 잠긴 그림들이 많다. 이 선비가 바로 중국 동진(東晋)과 송대(宋代)에 살았던 농부시인 도연명(陶淵明)이다.

그의 나이 마흔하나, 상관인 지방관리에게 의관을 정대하고, 고개 숙여 절하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관직인 팽택현(彭澤縣)의 지사(知事)를 사임하고, 시골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심경을 구구절절하게 읊은 시가 바로 이 시다.

양(梁)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의 〈도연명전(陶淵明傳)〉에는, 감독관의 순시를 의관속대(衣冠束帶)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오두미(五斗米:쌀 다섯말, 얼마 안되는 봉급)를 위해 향리의 소인(小人)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며, 그날로 사직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시, 귀거래사의 한 구절을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담담(淡淡)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어느덧 이르러 집이 바라다 보여
기쁜 마음에 달리듯이 집으로 가네
사내아이와 종이 나와 반가이 맞이하고
어린 아들은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세 갈래 오솔길에 잡초 우거졌어도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 있네

귀거래사에 국화꽃 뒤 상념에 든 선비는 송대의 농부시인 도연명

어린 아들 손잡고 방으로 들어서니
술 항아리 가득히 술이 나를 반기네

술 단지를 가져와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무를 지그시 보며 미소 짓네
남쪽 창가에 몸을 기대어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 하나 들일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세 갈래로 나뉜 길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서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고향에 돌아온 안도감(安堵感)을 표현하는 그림은 그 이후 오랫동안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가 되었고, 구한말 당대의 대가들인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들까지도 즐겨 그린 도속화의 주요 소재였다. 돌아온 이후, 도잠(陶潛)은 20여 년 동안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 뿌리고, 저녁엔 책을 읽는 삶을 살며 빈궁한 나날을 즐기다가 자연으로 돌아가 그 향기로운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중이 살아가는데, 이판(理判)·사판(事判)이 따로 있겠느냐마는, 요즘 들어 소임을 놓고, 조용히 읽고, 앉고, 소소(疏疏)한 숲길을 걸으며, 길지 않은 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편집국 사진부 차장

'아하! 공자는 노나라 240년 간의 사적을 추려서 책을 만들고 〈춘추(春秋)〉라고 이름을 지었다. 240년 동안의 외교와 전쟁에 관한 사적도 단지 한 번 봄(春)에 꽃이 피고, 가을(秋)에 낙엽 지는 덧없는 인생의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춘추', 그 두 글자의 간격은 그토록 먼 것이며 또한 한순간처럼 가까운 것이었다.

누군가 설악산 오솔길 끝에 집을 짓고 그 이름을 '무금(無今)'이라고 했다. 백담사 무문관 무금선원(無今禪院). 돌담 위에 낙엽이 쌓여있다. 공자의 '춘추'처럼 '무금(無今)'이란 두 글자도 그 덧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리라. 지난 봄에 꽃이 피었고, 이제는 낙엽이 진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지금(今)'은 늘 사라지고 없는(無) 것이다. 우리 사는 것이 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있을 뿐이다.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백암성총 선사의 '산에 들며[入山]'

산에 들며 물아일체가 되다

行行過石溪 (행행과석계)
細徑通疎竹 (경세통소죽)
不覺濕禪衣 (불각습선의)
鶴搖松露滴 (학요송로적)

한참 걸어 징검다리 시내 건너니
오솔 길 성긴 대숲으로 통하네.
알지 못하는 새에 가사가 축축하네.
학이 흔든 솔 이슬방울에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 스님의 이 시는 선교를 두루 겸비했던 당대의 큰 선지식이 보여주는 삼매의 고즈넉함을 맛 볼 수 있다.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산 속 깊이 다다르니 시내가 흐른다. '석계(石溪)'는 돌이 많은 시내일 수도 있지만 물이 말라 밑바닥의 돌이 드러나 있는[水落石出] 겨울 강의 경치 일 수도 있다. 동사 과(過)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스님의 경쾌한 모습이 쉽게 그려진다.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대나무 숲길로 통하는 '세경(細徑)'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 잘 닦여진 산의 오솔길이 아니다. 들짐승이나 새가 다니는 작은 길[鳥路鼠道]로 사람의 자취가 드문 한적함을 선사한다.

얼마나 오솔길 따라 걸었을까? 가사자락이 다 젖어 버렸다. 그것도 그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니다. 스님은 솔가지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학이 흔들었다 한다. 이미 솔가지에 앉아 이슬을 떨어뜨리는 학과 그 학이 떨어뜨리는 이슬에 옷을 적시는 나는 둘이 아닌 것이다. '불각(不覺)'은 스님이 산에 들며 물아일체가 된 내면의 발현이다.

보통 스님들의 옷을 치의(緇衣)나 납의(衲衣)라 한다. 그런데 스님은 자신의 옷을 선의(禪衣)라 표현하였다. 불각(不覺)은 단순히 자연의 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경행의 선정 상태에서 즐기는 산뜻한 한가함인 것이다. 석(石)·죽(竹)·학(鶴)·송(松)으로써 오욕이 끼일 여지가 없는 청정한 선의 이미지화를 멋스럽게 이루어 내었다.

새벽 예불 후 안행(雁行)하는 스님들을 비추는 새벽별이 유난히 총총하게 반짝인다. 그 별빛에 눈 푸른 초심자들의 서원이 영글어 비로자나 할배의 누런 가사자락에 촉촉이 스며든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Hanmaum Choir Festival

이 마음은 종지에 담으면 한종지요.
큰 그릇에 담았다 해도 한그릇이요.
바다만큼 담았어도 그저 한그릇일뿐.
종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그릇 한맘으로 돌아가네..

대행 큰스님 禪法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中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 (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묵,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이주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장
겸 레인보우 합창단장

한국사회에서 눈에 띄게 변화상을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인남성과 아시아계 외국여성간의 국제결혼이다. 2000년이 넘어서면서 현격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다. 국제결혼은 2002년 이후 매년 만 건씩 증가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능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수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입국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동화주의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의 관습과 생활상, 풍습에만 주안점을 두고 한국적인 것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초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나 풍습, 생활상에 익숙해져야 본인이 생활하기 쉬운 법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옳지 처음부터 동화주의는 안된다고 하면 이들이 어디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탁상공론식의 이론적 담론은 지양했으면 한다.

우선 어떤 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반드시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아가기 불편하지 않는 법이다.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살아가기 편한 것이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을 익혀야 편리한 법이다. 이것은 누가 어디를 가든 당연한 기초적인 살아가는 방법이다. 정말 초기단계라면, 결혼하기 전의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이라는 의미와 살아가는 방법이 일반결혼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알 것이 많고 서로의 국가나 문화,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서 있어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 이러한 사전교육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결혼만 하고는 가정불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전교육 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언어, 생활해 나가는 방법 등을 익혀야 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남편과 가족들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오히려 오해가 빚어지면서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언어문제와 함께 한국문화체험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이러한 문화체험 교육으로 도와줘야 한다.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저마다 많이 하는 바람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경우라 별 효과를 주지 못한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거친 결혼생활의 중급단계가 되면 이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취업 즉 사회생활이다.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세계문화교육강사나 통번역, 어린이지도사, 방문교사 등의 교육을 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을 위한 터전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나라에서 인증 받지 못한 수료증을 받고 끝나버리거나 교육을 신청한 인원과 교육을 출석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이함과 노력부족이 크다. 열심히 끝까지 다닌 결혼이주여성이라도 막상 교육이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받게 되는 실망도 크다. 취업을 하더라도 시간제가 고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는 못한 실정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어짐에 엄마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인 도움과 많은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놀면서 지낼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자신이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위축감에 눌려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언어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줄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거의 매니저역할을 하다시피하고 있고 교육열 또한 너무나 높아서 아시아권의 이주여성들이 너무나 버거워한다. 한국어를 모른 채 입국한 10대 아이들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또한 이주여성들만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건설적인 모임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인 학부모들과의 자연스런 만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중간매체는 정부를 비롯한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모두 잠든 밤, 궁을 나오다

태자의 출가를 돕다

제석천왕이 다시 부처님의 인생에 개입하게 된 것은 출가를 결심한 후이다.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여러 차례 출가를 결심하지만 번번히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와 엄청난 감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나이 서른이 다 되어가자 부처님은 더 이상 출가를 미룰 수 없음을 알고 뜻을 강하게 세운다. 이때 여러 천신들은 합동으로 성안의 모든 권속들이 혼곤한 잠에 취하게 만들어 부처님이 몰래 궁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 밤, 궁에서 잠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성안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마부 한 명뿐이었다. 부처님은 오래도록 자신을 모셔온 마부 찬나와 함께 궁을 빠져나온다.

신화에서 종종 신들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할 때 거창하기보다는 이처럼 다소 비겁하게 생리적인 욕구를 이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을 그린 〈일리아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트로이군의 총대장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장남이었다. 그는 무적의 힘을 지닌 아킬레우스와의 일전에서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수레에 매달아 트로이 성 주위를 세 바퀴나 끌고 다닌 뒤 만신창이가 된 시체를 들녘에 버린다. 이에 신들은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를 사자로 보내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주도록 한다.

깊은 밤, 헥토르의 프리아모스는 마부 한 사람만 데리고 아킬레우스의 진영으로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간다.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만나러 갔을 때 그리스의 병사들은 모두 잠이 들어 그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킬레우스를 만날 수 있었고 헥토르의 시신을 트로이 성 안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

색계(色界)의 신이 사냥꾼으로 변신하다

제석천왕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태자가 머리를 깎을 때이다. 부처님은 스스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일체의 번뇌를 끊겠다는 원을 세운다. 이때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수습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은 정거천이다. 정거천은 아라한의 전 단계인 아나함, 즉 생을 마친 후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불환과(不還果)를 증득한 성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말하자면 정거천은 온갖 쾌락이 존재하는 욕계(欲界)를 다스리는 도리천의 주인 제석천왕보다 훨씬 고상하고 도가 높은 신이다.



출가 삽화=김영수

색계(色界) 제4선천에 해당하는 정거천은 모두 다섯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신이 다스리는 무번천, 괴롭힘이 없는 신이 다스리는 무열천,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신이 다스리는 선현천, 관찰이 잘 이루어지는 신이 다스리는 선견천, 궁극의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신이 다스리는 색구경천 등 다섯 개의 천이다. 이런 높은 경지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더러 의미가 크다.

부처님 앞에 나타난 정거천의 변신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그는 색계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으로 모습을 바꾼 뒤 가사를 몸에 걸치고 등장한다. 이에 태자의 신분으로 입고 나온 옷들이 수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던 부처님이 그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말을 건다. 옷차림도 전략이라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장-미셸 오토니엘의 My Way 展

슬픔 드러내 보인 프랑스 현대미술가

삼성 미술관 플라토는 11월 27일까지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회고전 My Way를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은 개인적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시된 작품으로는 '소원을 비는 벽' '상처-목걸이' '눈물 들' '행복의 일기' 등이 설치됐다. 그는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예술가적인 기민한 시각으로 작품을 통해 형상화했다. 전시는 서울 플라토에서 전시가 끝나면 도쿄 하라 현대미술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번 전시의 메세지를 상실과 소멸, 슬픔에의 애도라고 말했다. 불교는 상실과 소멸에서 오는 슬픔은 본인의 욕심에서 오는 과오로 여긴다. 〈숫타니파타〉에서는 "불행은 집착에서 나오고, 행복은 집착을 버리는데서 나온다"고 했다.

작가는 자신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타인 앞에 상처를 들어냄으로써 집착을 버리는 것을 시도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슬픔이 슬픔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한,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격한 슬픔의 감정보다는 편안한 치유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전시됐던 '소원을 비는 벽'은 유황, 인, 왁스 등의 재료를 활용한 작가의 실험적 설치작품이다. 작품은 인이 칠해진 대규모 벽면으로 철거 가능한 설치물이다. 관람객들은 나눠주는 성냥개비로 직접 벽에 그어 성냥에 불을 붙일 기회를 갖게 된다.

작가는 관객들과 벽을 통해 교감하고 관객들의 참여로 표면에 남겨지는 흔적은 '상처'라고 말한다. 관객이 남긴 흔적은 하나의 드로잉으로 또 다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참여하는 설치 미술을 통해 작가는 관객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자도 성냥개비 하나를 받았다. 인이 칠해진 거대한 붉은 벽에 성냥을 긁었더니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어릴 때 보던 육각형의 성냥상자가 떠오른다. 아주 거대한 성냥갑을 마주 하고 있는 기분이다. 벽 아래에는 검게 탄 성냥개비들이 이미 수북이 쌓여있다. 성냥 하나로는 너무 아쉬웠다. 성냥에 불은 붙여보는 것이 오랜만인지라 그 자체도 재미있는데다가 소원을 끝까지 말할 새도 없이 성냥은 순식간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2002년作 '눈물들'

작가가 인과 왁스를 섞어 칠하고 '소원을 비는 벽'이라 이름 붙였을 뿐인데 이 거대한 벽은 정말 소원을 이루어 줄 것만 같았다. 베를린에는 베를린 장벽이,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 이 벽들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작가도 이 작품을 1995년 처음 베를린에서 선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아픔을 표현한 '눈물 들'은 60여 유리병이 눈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는 색색의 물체 들이 떠있다. 이게 정말 눈물일까? 아니다. 작가가 물을 채워 넣고 '눈물'이라 이름 붙였다. 60개의 병에 물이 채워져 있으니 눈물은 아니고 '눈물 들'인 셈이다.

2002년 선보인 이 작품은 물이 가득 채워진 유리병 60개로 이뤄져있다. 커다란 유리구슬 마개와 병들의 독특한 형태는 멕시코 전통 유리 공예를 모방한 것이다. 각각의 병 안에는 갈고리, 하트, 별, 목걸이 등 2000여 개의 다양한 모형들이 떠 있다. 눈물을 연상시키는 물 위에 떠 있는 화려한 색체의 오브제들을 통해 규모가 큰 대형 작품과는 또 다른 슬픔을 전달한다.

작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젊은 나이에 경험하면서 예술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예민한 감수성에 난 상처가 오늘날 창의적인 작품을 탄생 시켰다고도 말한다.

불교는 인간사에서 느끼는 슬픔에 대해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 슬픔은 욕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더욱 성숙한 내일을 만든다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 이라는 것을 체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미셸 오토니엘도 죽을 만큼 슬프던 어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슬픔을 들어내 스스로를 치유하고 오늘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리라.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을 빼는 쾌장 운동법. 물혹, 자궁근종, 위장병, 변비, 냉증의 원흉인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법 수록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청정한 정사'도 나의 오만함인 것을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절을 짓기 시작하셨을 때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편한 곳'에 지으라 했던 '정사(精舍)'의 의미이다. 누구든 쉽게 찾아오게 하며, 혹시나 사람을 차별하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법당 문 밖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닌가. 누구나 마음 편하게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아 위로받을 수 있는 병원 법당인가. 과연 지금의 이곳이 문턱이 낮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인가. 병원의 지하 구석의 작은 도량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늘 되묻고 되물어 부처님이 '절'을 지으셨을 당시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 날 오후, 법당에 들어오길 사양하며 법당 문 밖에서 삼배를 하던 그 거사님의 말씀은 재가불자들에 대한 내 편협한 시각을 또 한 번 드러내주었다. 부처님 뜻을 완고하게 좇아가고 있다는 내 자신의 또다른 오만함이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또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없다'는 말들 안에서 내 스스로 부처님 도량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찾아뵈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사님의 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정사'의 사전적인 뜻만 좇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거사님의 그 마음을 모두 헤아리지도 못한 채, '청정한 도량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 마음 속 분별이 쓸데없는 벽 하나를 더 세웠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청정'과 '정사'에 대한 나의 분별이 어쩌면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 멋대로 재단했다는 부끄러움은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을 때 최선을 다하며 '예의'를 갖추겠다고 말하던 환자분의 마음 하나 알지 못한 채 부처님 경구에 있다는 이유로 '청정한 정사'를 만들겠다는 나의 오만함은 이 법당 안에 또 다른 문턱을 만들고 또 다른 벽을 세운 것은 아닌지 부끄러워졌다.



병원 법당을 찾은 환자들이 부처님께 올릴 연등을 만드는 모습

누구나 와서 편하게 기도하며 수행할 수 있는 깨끗한 도량이라는 '정사'의 의미는 맞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와 '편하게'라는 말로써 또 다른 구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거사님이 오히려 고마운 하루였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라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이 있다. 상인이 물건을 손해보고 판다는 것,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노인이 빨리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화억제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면서 세계의 노화 학자들이 입을 모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소식(小食)'이다. 소식은 저산소증을 개선해 ATP(아데노신 삼인산 : 생체 내에서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물질) 생성을 유지시키고 세포의 손상과 사망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염증의 발생이 억제되고 활성산소(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노화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의 생성이 줄어 노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팔 교수(美 텍사스주립대 노화연구소장)에 의하면 흰쥐에게 먹이를 15%·20%·40%씩 줄여서 먹인 실험에서 40% 줄인 경우에 수명 연장효과가 가장 좋았고 평균 수명이 40%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라쓰 박사팀(미국 국립노화연구소)도 원숭이에게 먹이를 10%·20%·30%씩 줄여 먹인 결과 30% 줄인 집단의 수명이 가장 늘었다고 한다.

소식은 옛날부터 건강 장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輕身) 노화가 억제되어(耐老) 수명이 늘어나기(延年) 때문이다. 당나라 때의 명의로서 무려 102세까지 장수했던 손사막(孫思邈; 581~682)은 식사는 자주 하되 70~80% 정도로 적게 먹으라고 했다.

특히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했다. 그가 지은 〈천금방(千金方)〉에는 음식에 절제가 있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에 재앙이 발생한다고 기록돼 있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절음식설(節飮食說)'이라는 글에서 하루 동안 술 한 잔, 고기 한 조각만 먹겠다고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성호사설(星湖僿說)〉의 저자인 이익(李瀷; 1681~1763)도 절식을 실천해 장수했다. "식량을 절약해 많이 먹지 않는 것으로 첫째가는 경륜(經綸)이자, 양책(良策)을 삼는다"고 하였는데, 가난한 살림 탓도 있었겠지만 의학에도 능통했기에 소식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좋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영조대왕(1694~1776)도 소식가였다. 가뭄이 들면 하루 5번 먹던 수라를 3번으로 줄이고 반찬 수도 반으로 줄였다고 한다.



순조 때의 문인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은 '적당히 먹으면 편안하고 지나치게 먹으면 편치 않다. 의젓한 너 천군이여 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適喫則安 過喫則否 儼爾天君 無爲口誘]'는 절식 패명(節食牌銘)을 지었다.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사람이 이 팻말을 두드리고 거기 적힌 글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과식을 경계하고 적게 먹기를 권했다고 한다.

소식해서 비만하지 않아야 암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아 장수할 수 있으며, 가정과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본의 대표적인 노화학자로서 현역 심장내과 의사인 히노하라(101세) 박사도 "오래 살려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소식가이다. 그런데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육체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먹어도 괜찮다. 에너지 소비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5〉

내려놓고 쉬어가자

'파홈'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는 겨우 소작인에 불과한데, 좀 더 넓은 땅을 구입해 대농장을 거느려 보고 싶었다. 그는 땅값의 반을 겨우 마련한 뒤, 지주에게 나머지는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땅의 소유주가 됐다. 이전의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것처럼 파홈도 소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수확량을 늘렸다. 이 무렵, 누군가로부터 "어느 곳에 가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홈은 원래 갖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아 그곳으로 이주해 더 많은 땅을 소유했다. 그는 어느 나그네로부터 "바슈키르 지방에 가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바슈카르 지방의 규칙은 '출발지점에서 시작해 하루를 걸어 해질녘까지 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하루를 걸어 다닌 땅이 모두 그 사람의 것'이었다. 파홈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계속 걷고 걸었다. '조금만 더 더….' 하다가 해질녘이 돼 출발점으로

집착 때문에 근심·걱정 늘어
욕심에 따르는 고뇌 수용해야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다. 그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출발지점을 향해 뛰고 또 뛰어 겨우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파홈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시체 하나 들어갈 6척 구덩이 땅의 주인이 된 셈이다.

이 이야기는 필자의 가슴 언저리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로 톨스토이 단편소설 중 하나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와 탐욕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굳이 필요치는 않지만 몇 곳 강의 때문에 자동차가 긴히 필요했다. 굳이 차를 사야할까를 망설이던 차, 2년 전 어떤 인연이 되어 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주차도중 운전석 앞바퀴 차체에 흠이 생겼다. 스스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안하면서도 오늘 하루는 불쑥 불쑥 자신에게 화가 났다.

〈숫타니파타〉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소가 있으면 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긴다. 집착 때문에 근심·걱정이 생겨난다"고 했으니 인간은 갖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 고(苦)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부족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 부린 만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욕심으로 따르는 고뇌에 대해 수용할 줄 알아야 하건만 욕심은 채워야 하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심에 환멸이 나려고 한다. 차는 수리해도 몇 푼 들지 않지만 차체의 손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 자신에게 욕심의 대가만큼 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경각시키기 위해서다.

동물은 배고플 때 약자를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또 상대가 먼저 태클을 걸지 않으면 상대를 위협하지 않는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하니, 인간의 탐욕심은 에펠탑(Tour Eiffel)을 세우고도 남을 듯하다.

이형기의 시 '낙화(落花)'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구절이 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아야 아름다운 법이건만 결국 추한 뒷모습을 보이고야 그 자리를 내어 놓는다.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 못하다'는 절집 속담이 있는데, 승려들도 이 명예욕 때문에 수행길이 순탄치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중생은 욕심과 욕망의 갈구로 인해 청정한 불성(자아)을 병들게 하고 있다. 사자는 밖의 적보다도 제 몸에서 생긴 벌레에 의해 죽어가고, 쇠 스스로에서 생긴 녹이 쇠를 갉아 먹듯이 자신의 부질없는 헛된 욕망으로 청정한 본성을 갉아 먹어서는 안된다.

예전에는 조주 스님의 방하착(放下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을 이분법적인 관념이나 편견, 사견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 방하착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그 헐떡거리는 그릇된 자아를 여실히 관찰해야 하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부터 여실하게 보고, 욕망으로 생기는 결과인 인과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욕망부터 내려놓아야 수행의 초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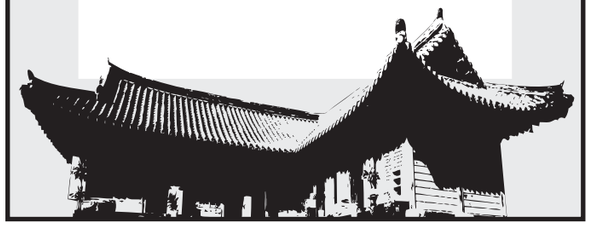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종 도 모 집
〔사〕생활불교조계종
(사)생활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갈 종도분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 일 다 정
사 무 총 장 우 경 유영준
기 획 실 장 법왕자 이해수
운영위원장 구 당 김해섭
재 무 국 장 명 운 정경자
감 찰 원 장 도 선 이중환
포 교 실 장 충현사 곽미숙
상벌위원장 법 륜 임재승
기 획 국 장 김종혁
총본산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태화산 약사사
전 화 : 041)841-9339
010-5453-7285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사 호소문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652번지 벽선암
위 사찰은 창건이후 70여년 동안 부처님 도량으로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오던 중 주변 지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진입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스님도 신도도 모두 떠나버린 벽선암을 다시 부처님 도량으로서 우뚝 세우고자 소승 원행이 뜻을 세우고 천만 불자님들의 불사를 청합니다.
뜻이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불사내용 : 진입로, 화장실 등
불사금은 금액에 관계없음.
(불사에 동참하신 분께는 백일기도를 해 드립니다)
불사의 선근공덕으로 불국토를 이룹시다.
불사하며 함께하실 보살님 연락 주십시오.
원행 합장 드립니다.
H.P : 010-2429-1514 (전화 052-294-1514)
농협 302-0295-8486-11 예금주:정충금

▣ 기존 진입로에 지주들이 설치한 건물 (현재 진입로 사용 못함)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010-5251-1003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명리학 음양오행 무료강의

강사 : 성은사 우리법사
일정 : 매주 수요일 14시
장소 : 성은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 종점 옆
010-9376-5633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7번출구 3분거리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수행자는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 보 적 경 -

- 대덕사 스님께서 제자를 모집합니다.
  -10대, 20대, 30대: 비구니 스님
- 비구니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꼭오실분한해서 전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삼척 대덕사
010-9416-7743

삼밀유가연구회 금강선원

- 제령, 퇴마, 영가천도 전문
- 식재, 증익 작법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23-4
051)517-1080

염불 •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011-716-3811

급! 인연 찾음 (그림같은 토굴)

- 임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청동해수관음부처님,
- 삼존석불, 3층석탑, 석등 방2 거실 다실 실내화장실
- 황토굴, 창고, 집기류 일체, 주차가능, 전세 3천만원
- (월세 천만원에 10만원) 비구니스님 수행처로 최적
- 넌말 해외 출국으로 급함(장기 임대가능) 몸만 오면됨.
- 노스님 수행하며 해외 포교에 참여할 년령불문 비구니스님, 신심있는 보살님 급히 구함

(영광 불갑사 인근 토굴)
010-9478-1322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 석가여래종
대한불교명상종
불교 종단법인 총연합회
불교 법인단체 총연합회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법인
011-412-8040 법광

불사用 달마도 보급

청암(靑巖)친필
달마도를 불사용으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인터넷 : www.달마.kr
전화 : 051)202-8770
H. P : 010-2953-8770
청암 달마원 드림

60대 기도수행 스님입니다.

빈 산중 사찰 시주나
장기간 맡겨 주실 분.
010-8558-9317
해 공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55세 이하, 부산
010-9332-1719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할 수 있는 30~50대초반 비구니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55)752-6606
010-4390-6654

비구니 행자(출가자) 모집

1. 학력,나이 관계 없음
2. 신체조건 관계 없음
3. 3년 공부 후 주지임명
4. 출가 동시 기도스님 임명
5. 성실히 자기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울산 지장정사
011-858-030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웬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무소 직원(pc가능자)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자모사
010-2125-4684
(사주팔자)

신심이 깊으신 60대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하동
010-3138-4897

불사에 동참하실 공양주 보살님과 사무장님 화주시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남
041)835-3933

기도스님 모십니다

▷사미스님 환영
011-9317-9181

비구니 기도스님 및 부전스님 또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거제
010-6815-9878

누가 나의 손발이 되려느냐 ?

부처바위에서 기도중인 달마가 한평생 고심끝에 심안으로 내려진 (황금용주도만능부)를 나누어 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소원성취하소서. 소승은 시각장애 1급입니다. 이승에 사람으로 태어나 스님으로 살다가 가기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냐? 길을 잃은 중생들아 헤매지 말고 이리 오너라. 갈길을 알려주마. 나무아미타불

달마직통 010-9003-7783 / 혜주 011-9957-2660
대한불교아미타종 총본산 도원사 종정 대월당 주지 혜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574-1 불사시작

한국불교대학 편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여법하게 염불하실 50~60대 초반 비구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031)471-6675

노전이나 부전자리 원합니다 (당 67세 비구) 심신이 건강함

010-8752-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동포 환영)
경기 성남
50~60세 초반
011-212-9110

통 증 제 거 기 술 교 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전남 화순 소재 전통사찰
061)372-37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비슬산>
도성암(선원)
현풍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70세 (대구 남구 앞산)
011-520-30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월 보시금 120만원
02)938-7957

승복 · 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불사
- 주 지 : 현덕 (이석희)
- 주 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260-13

- 사찰명 : 용장사
- 주 지 : 종산 (김수민)
- 주 소 :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68-24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불 자 정 보 26 | 859호 | 전면광고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급매가)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 200평
- 가 액 : 6억 8천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0평
- 가 액 :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870평
- 목조법당 30평, 요사채 및 사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가액 3억 5천

울산 시내

- 총부지 : 2,600평
- 목재법당 30평(내9포 외5포) 산세 전망최고, 주차장 500평
- 아파트 5만 세대
- 총가액: 1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북한산)
- 법당 20평
- 요사 50평(2동)
- 부지 약 500평
- 동쪽 수락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임
- 가액: 6억 5천만원

기 도 터(토굴)

- 위치 : 경기도 양평
-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청정계곡(해발 600m)
- 남향 토지 350평(사용할수 있는 국유림 700평) • 합 1000평
- 현재 농가주택 한 채 있음
- 심야전기 보일러 • 마당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2천

대 력 불 사

031)775-8110 / 011-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소재
- 평수: 대지 63평
- 법당 11평, 방3개, 현대식 주방 욕실완비, 주차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 및 철학하시는분 아주 좋음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55-33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보시고 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3240-3272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 ,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4085-1119

포교원안내

처음 시작 하는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전주시내 최고중심
- 법당1, 방1, 주방, 욕실, 도시가스
- 깔끔하고 편리함 , 뒷문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모든 의식 가능, 주차 충분히 가능
- 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063)246-8481

사찰 전원 주택

- 위치 : 고양시 지축동 산 접 조용한 집
- 대지 300평 건물 60평, 2층 신축
- 남향, 주차장 (증축가능),
- 전철3호선 지축역 10분
- 가액: 12억(주인직접)

010-9244-13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혈동 53-7 (태백산 백단사 입구)
- 평수: 대지 87평, 건평 37평
- 시설: 큰방 2, 거실 1, 분리 주방1 욕실2,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등
- 가액: 1억 6천 2백만원

010-4344-24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선 방 , 절 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임야 980평(절터자리)
- 밭 350평, 집터 600평가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기차역 걸어 10분)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
-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천정형)
-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
- 모든 주방용품(130인분) 인계함

011-212-77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기차역 걸어 10분)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
-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천정형)
-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
- 모든 주방용품(130인분) 인계함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
- 대지 : 150평
- 건평 : 35평
- 법당, 요사채, 방4칸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515-955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건물: 5층 건물에 1층
- 보증금 2000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는 만나서 결정

010-8408-028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
- 대지 170평, 건물 40여평
- 창고 약 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 별로(연탄, 기름겸용)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8653-32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 입주 가능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08-4766

포교원안내

- 위치 :남양주 호평동, 역 인근
- 평수: 3, 4층 각 54평
- 가액: 4천만원에 16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516-556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웅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 3층에 3층 37평(지하철역 입구요지)
- 법당,방1,주방,사무실,화장실(최고시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노블공인중개사

053)795-3666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웅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3240-3272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낙민지하철역 1분거리
- 대지 : 68평
- 1층 요사 111.39㎡,
- 2층 법당 84㎡, 3층 삼성각 27.44㎡
- 각종 부속물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사찰안내(암자포함)

경치가 수려하고 암자는 고찰터로경허선사 , 천태종 상월조사 공부터임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암자 30평
- 산신각 3평
- 가액 : 15억

010-2713-6664

도심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
-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후불,신중탱화,호신불100불
- 비구니스님도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8211-8590
010-8602-39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시장옆
- 평수 45평, 3층에 2층
- 석가 삼존불, 신중, 영단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7164-71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터) 안 내

- 충남공주시 유구읍 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 : 전 • 면적 : 20,03㎡(2필지)
- 가액 : 7,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
- 도로, 토목, 전기공사 완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유구IC 5분거리
- 조망 최고임, 암자, 기도처 추천

010-2429-2069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3240-32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근교
- 청통, 와촌IC에서 8분거리
- 토지: 492평, 정남향 전망최상 (주차 30대) 이상 가능함
- 건물사용: 약 70평 2층법당 1층 요사채
- 삼존불, 칠성, 산신 모셔있음
- 에어컨 4대, 대형냉장고 4대 집기류일체(A급)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2억 8천만원

010-8554-0187

양 도 합 니 다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종교부지 삼백평, 국유지 육백평
- 송이은행나무 30주 수확함
- 정원용반송, 노나무, 옻나무
- 마가목, 느릅나무, 유실수다수
- 법당 20평, 요사 32평, 산신각
- 면소재지 위치하고 시내 및 대학로 5분거리
- 약사석불 (문화재급)
- 양도가 : 2억

011-677-8525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 중대가전연일야현자경 –

아픈 기억과 슬픔은 어쩔 수 없이 남는 발자국 같은 것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2)



삽화 · 김흥인

난다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칠흑 같은 어둠도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진 못했다. 어둠이 주는 공포, 발을 잘 못 디딜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수아킴이 보여준 '욕망'이라는 더 큰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다는 수아킴의 끈적거리는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 동굴의 끝을 향해 더 힘껏 달려갔다. 저 멀리 옅지만 분명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출구가 보였다. 난다를 소리 없이 뒤쫓던 두려움도 서서히 멀어져가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동굴의 끝에 다다른 난다는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여전히 동굴의 높이는 낮은 계단 한 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 보았다.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발이 튕겨져 나왔다. "왜 이러지?" 난다는 다시 발을 내밀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동굴 밖으론 손도 뻗을 수 없었다. 마치 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난다는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색도 형체도 없는 그 벽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깨지거나 부서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난다는 자신이 뛰어왔던 어두운 동굴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려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

"절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벽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난다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투명했던 벽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아주 약하게나마 동굴 밖 마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기운도 느껴졌다. 난다는 온 마음을 벽을 깨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윽고 손이 동굴 밖으로 쑥 뻗어나갔다. 벽이 사라진 것이었다. 난다는 그제야 가쁜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발은 바닥에 바로 닿았다. 처음처럼 한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난다는 잠시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동굴 쪽을 다시 쳐다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 빨리 무니를 만나야 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무니가 갇혀있는 곳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무니는 그곳에 없었다. 칸타카만이 꼬리를 흔들며 난다를 반길 뿐이었다.

"칸타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니는 어디로 갔지?"

칸타나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풀피리 소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난다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루나검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니는 스스로 이곳을 빠져나갔다는 뜻일까.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보리 짚단 뒤에서 쏘옥 내민 얼굴이 보였다.

"데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데비는 머리에 붙어있던 지푸라기를 떼어내며 대답했다.

"여기? 비 오는 날 왔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숨어있었어."

"무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데비는 "응."이라고 대답하며, 언제나처럼 칸타카에게 쪼르르 달려가 매달렸다.

"그럼 내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도 지금처럼 숨어 있었어?"

데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왜 무니는 널 찾았다는 걸 내게 말하지 않은 거지?"

"옷에 피가 묻어서라고 했어. 내가 키 큰 사람이 여자애를 밀어서 피가 나는 걸 봤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아직은 난다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마음이 많이 아플텐데, 머리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 라고."

난다는 무니의 그러한 배려를 알게 되자 또 다시 마음이 아파왔다. 그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슬픔'과 곧바로 닿아있는 사건이었다. 분명 무니도 수아나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쎄라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니는 어디에 간 거야?"

데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몰라. '데비,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하더니 휭 나가버렸는걸."

난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무니는 이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터였다. '혼자서 여길 빠져나간 이유가 뭐야?' 어쩌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지도 몰랐다.

"무니를 찾아봐야겠어."

난다의 그 말에 데비가 고개를 또 다시 저었다.

"찾을 수 없어."

난다는 무슨 말이냐는 듯 데비의 얼굴을 쳐다봤다.

"찾을 수 없을 거야, 여 · 기 · 서 · 는."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선 무니를 찾을 수 없다고?"

데비는 말간 눈으로 난다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냐니까? 혹시 무니가 무슨 다른 말이라도 하고 나간 거야?"

난다는 재차 물었다. 하지만 데비의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입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난다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네 말대로 무니가 여기에 없다고 하자. 그래도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알아봐야할 거 아니야."

데비는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난다는 답답함에 또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나는 무니를 찾아볼 테니까, 너는 아까처럼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난다는 단단히 당부를 한 다음, 칸타카의 등을 한 번 두들겨준 후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우리도 같이 가."

데비가 말했다.

"같이 가겠다고?"

"응. 우리 모두 같이 가는 게 좋아."

데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녀의 시선은 난다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데비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거 같았다. '도대체 너는 어떤 아이니?' 난다는 그런 소녀의 눈을 향해 마음 속 질문을 던졌다. 난다의 의문을 알아차린 것일까. 데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내 눈만 쳐다봐? 내 눈엔 아무 것도 없는데."

데비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난다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러게. 난 네 눈 속으로 무니가 사라졌나 했지. 그리고…."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난다의 입 꼬리가 갑자기 축 쳐졌다.

"사르나트도 말이야."

"사르나트? 그게 뭐야?"

데비가 물었다. 난다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크기의 원 안에 각기 다른 색의 수레바퀴 네 개가 들어있거든. 이 중에 나무로 된 바퀴는 간혹 돌아갔다, 멈췄다가 하기도 해. 너도 여러 번 본 적 있잖아. 내가 늘 가지고 다녔으니까."

데비는 "아…, 그거."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 그거 본 적 있는데."

난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디서?"

"그 동굴 앞에 있어."

무심히 대답하는 데비의 얼굴을 난다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자기가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오고 갔던 곳이다. '거기에 왜 사르나트가 떨어져 있지?' 어쩌면 차크라발라로 착륙하는 동안 떨어트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안 갈 거야?"

어느 새 칸타카의 등에 올라탄 데비가 난다를 재촉하듯 말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

난다는 결국 헛간 문을 열었다. 칸타카가 그런 그를 격려하듯 낮은 풀피리 소리를 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미 끝난 수아나의 장례 때문이 아니라 잠부에서 도착한 배 때문일 것이다. 난다는 이 소박한 마을에서 느꼈던 정다운 온기가 어쩌면 곧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텅 빈 마을을 보는 마음이 울적했다. 하지만 아픈 기억과 슬픔은 어쩔 수 없이 남는 발자국 같은 것이었다. 무니와 난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이미 지나온 발자국의 크기를 가늠해 본들, 지금의 그들에게는 무의미했다.

"무니는…."

헛간을 나섰음에도 난다가 아무런 말이 없자, 데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다는 그녀가 무니의 이름을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의 데비는 여느 때와는 정말 많이 달랐다.

"무니가 뭐?"

"여기 없어.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린 이곳을 떠나는 게 좋아. 칸타카, 너도 그렇게 생각 하지?"

칸타카는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칸타카, 너까지?' 난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난감했다. '그래! 그럼 데비 말대로 일단 사르나트부터 찾으러 가보자.' 차크라발라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르나트가 떠올라 불안감이 스쳤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는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무니를 만나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나저나. 무니는 정말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난다는 데비를 쳐다봤다. 데비는 또다시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말간 눈빛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에 하나 뿐인 친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앞길을 알려주던 사르나트, 둘 다를 잃어버린 난다 역시 그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도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그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 4부 끝-

불자정보 859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 터 안내
- 위치: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455번지
- 전 464평
- 청정하고 전기 물 도로포장 양호함
- 대출 750만원 안고 총 팔천만원
- 콘테이너 2개 있음
- 사정상 급 양도

010-8890-6869

암 자 터 안 내

가평 북면에 암자를 찾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주세요
1,500평 평당 25만원
양도하겠습니다.

010-4847-7436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깔끔 ,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

010-2460-6906
016-606-56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감산동
- 평수 40평. 3층건물 2층
- 법당, 주방1, 방2개, 화장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 원불 108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시설완전 A급)

010-5685-222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평 수 : 약 60 평,
- 2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010-8651-9678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 소임 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 위치)

010-3678-2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덕천3동 419-8번지
- 평수 약 25평
- 법당 거실겸 큰방1, 주방1, 창고(大)1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없음

010-5502-2387

토 지 안 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 전 약 103평
- 포장도 계곡, 전기, 수도 , 접
- 양도가 1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화성시 무송동 정남향
- 대지 630평 (아늑한 분위기 전망 최고)
- 법당 목조 33평, 요사채 40평
- 가액: 12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31)366-9117
011-719-7760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 대지 110평, 건평 26평, 방3
- 주방1, 화장실1, 옥내법당1,
- 창고2, 남향, 심야보일러,
- 교통편리 (홍천읍 10분, 서울 1시간 소요)
- 가액 8,300백만원

010-8605-26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 평 수 : 약 30평, 2층
- 보증금 : 천만원 월세130

010-3198-76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현대백화점뒤 1,2호선교차점
- 평수 100평(3층)
- 시설: 법당,방3,부엌, 남여화장실별도
- 별채
- 보증금:1천만원 월1백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조정가능)

011-353-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황간 IC에서 10분거리
- 부지 600평
- 법당 목조 20평, 산신각 목조 3평
- 요사채 3동, 차고 사리탑 통일비, 조경우수
- 가액: 총 7억

011-510-60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버스 정류장앞
-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 정원수 멋지게 가꾸고 있음
- 대지 160평(3층건물)
- 은행 2억 안고 3억 양도

011-800-0005 (주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199-7897
053)311-9686

크기가 아닌 시대에 맞는 역할 다해야 '큰 사찰'

근대 역경의 산실 대각사(大覺寺)

30년 넘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 "읽을 만한 불교서적을 추천해달라"는 말이었다. 어느 정도 불교지식만 있으면 소개되는 책이 많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더 자신에 맞는 책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알고 질문한 사람의 수준에 맞게 추천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당황스런 것은 불교서적은 읽을 만한 것이 없어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다. 실제 30여 년 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교계에 좋은 책이 드문 것은 독자층이 엷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읽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온다.

조사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 신자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조선조를 지나오면서 불교의 유지를 위해 기복적인 신행이 주류를 이루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보면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대부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비는 기복신행이다. 이런 신행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쯤에서 슬며시 궁금증이 생긴다. 지금 불자들이 읽을 책이 드물다면 예전 불교신자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당시 불교신자도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했을까? 공교롭게도 100여 년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3가 쪽으로 조금 걷다보면 왼쪽 상가건물 뒤로 기와지붕의 처마가 살포시 드러난다. 이곳이 종로 봉익동으로 용성 선사가 세운 대각사가 있는 곳이다. 1864년 5월 8일 전라도 남원에서 출생한 선사는 14세 때 꿈에 부처님을 뵌 것이 인연이 되어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용성 선사 진영

전국을 다니면서 안거와 운수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선풍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구했다. 한때 중국에 건너가 선지식을 친견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귀국하면서 대중을 위한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 서울에 상경한 1911년 신도 집에서 법회를 하다가 53세인 1916년, 이곳의 민가를 구입해 대각사를 창건하고 불교 개혁을 통해 민족중흥을 발원했다.

대각사는 여느 도량처럼 넓은 마당과 고풍스런 당우는 없다. 주변 지역 역시 상가와 민가가 밀집한 탓으로 숲과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냥 도심 한복판에 사찰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어색함마저 있지만 대각사는 근대 역경의 발원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 끝에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이 완결됐지만 그 연원을 보면 이곳에서 시작한 삼장역회가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이 발원되고 마침내 대장경의 완역을 이루었으니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용성이 경전번역의 서원을 세운 것은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 후 옥중 생활에서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없다는 사실과, 타종교의 한글번역이 상당히 앞서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이다. 그가 수감된 서대문 감옥에는 당시 참여한 여러 종교의 대표와 신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해 공부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책 모두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글로 번역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용성은 경전번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웠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과 논의하였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해서 각 사찰에 공문을 보냈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비방하는 사람만 많았다. 주변의 협조가 없자 혼자라도 실행할 것을 결심한 용성은 1921년 출옥하자 대각사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결성하고 번역을 시작했다.

실제 용성은 예전부터 한문경전으로 포교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우선 한문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인류가 생존경쟁의 현실에 직면해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한문 공부에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미래는 불교학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은 철학 과학 천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 배울 것이 많은 시대인 탓에 한문만을 공부하는 것은 문명 발달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이 보는데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누가 보더라도 즉시 알 수 있도록 번역되면 보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다.

불교대중화와 연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용성은 이곳에서 〈금강경〉 번역을 시작으로 1927년 11월 〈화엄경〉 번역을 마칠 때까지 매진했다. 척박한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평생을 거쳐 경전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경전의 한글화와 전산화 작업이 진행됨을 볼 때 그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용성 선사 53세인 1916년 민가를 구입해 대각사를 창건하고 불교개혁을 통해 민족중흥을 발원했다.

종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각사는 용성 선사에 의한 근대 역경의 발원지 〈금강경〉 비롯해 〈화엄경〉까지 번역돼 규모 작아도 큰 의미 지닌 큰사찰 대각사

용성은 경전번역의 서원을 세운 것은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 후 옥중 생활에서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없다는 사실과, 타종교의 한글번역이 상당히 앞서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이다. 그가 수감된 서대문 감옥에는 당시 참여한 여러 종교의 대표와 신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해 공부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책 모두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글로 번역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용성은 경전번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웠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과 논의하였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해서 각 사찰에 공문을 보냈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비방하는 사람만 많았다. 주변의 협조가 없자 혼자라도 실행할 것을 결심한 용성은 1921년 출옥하자 대각사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결성하고 번역을 시작했다.

실제 용성은 예전부터 한문경전으로 포교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우선 한문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인류가 생존경쟁의 현실에 직면해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한문 공부에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미래는 불교학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은 철학 과학 천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 배울 것이 많은 시대인 탓에 한문만을 공부하는 것은 문명 발달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이 보는데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누가 보더라도 즉시 알 수 있도록 번역되면 보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다.

불교대중화와 연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용성은 이곳에서 〈금강경〉 번역을 시작으로 1927년 11월 〈화엄경〉 번역을 마칠 때까지 매진했다. 척박한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평생을 거쳐 경전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경전의 한글화와 전산화 작업이 진행됨을 볼 때 그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용성은 그런 자신의 작업이 당대에 끝날 것을 염려해 유훈으로 10사목(事目) 가운데 일곱 번째 불경과 어록을 100만 권이 넘도록 유포시킬 것을 당부했다. 실로 애정을 갖고 실행한 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성의 번역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첫째, 그의 경전번역은 항일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성은 3·1운동에 불교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민족정신을 강조한 수행자로 민족의 글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각사는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한용운 등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했으며,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광복 후 그 고마움에 김구 선생이 이곳을 방문해 선사의 뜻을 높이 기린 것을 보면 작지만 큰 역할을 한 곳이다.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려 한 것이다. 용성의 경전번역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불교의 용어를 신선한 이미지로 재편하는 작업이었다. 경전상의 게송을 우리말로 설법하듯이 바꾸고, 문어체의 딱딱한 표현을 구어체로 바꾸면서 언어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려 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교학의 발전이다. 경전이 읽기 쉽게 번역된다면 대중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중국불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춘 수행자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보면 용성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삼장역회를 통해 전문적인 번역을 주도한 용성의 활동은 그전부터 자신이 전개한 대각교 운동의 일환이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삼계의 대몽(大夢)을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다. 그런데 출가하는 날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런 병폐를 없애고 새 시대의 종교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한 것이 대각교 운동이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佛(불)을 번역하면 대각(大覺)이기 때문에 대각교를 창립해 우리나라 불교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세계와 중생이 모두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번뇌가 일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지와 내가 하나이며, 지각(知覺)의 성품이 잠복돼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중생의 본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회가 상설화되는 것이 최선이다. 법회를 통한 불교교육과 신앙심 고취만이 신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방안이 불교가 급변하는 사회에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으며,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불교가 앞설 수 있다고 용성은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면적이 넓고 당우가 많은 곳을 큰 사찰이라 한다. 그러나 용성이 보여준 활동으로 볼 때 큰 사찰은 크기가 아니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할 때 큰 사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각사는 규모는 작지만 사찰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큰 사찰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 industour 인더스투어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롭고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인도 불교성지+나란다 8일
- ▣ 인도 불교성지순례 핵심일주 9,10일
- ▣ 인도/네팔 불교성지완전일주 11,12일
- ▣ 인도 불교성지완전일주+오랑가바드석굴 14,15일
- ▣ 인도 불교성지 대열반열차 11일



◈ 이 밖에 스리랑카, 라오스/미얀마, 중국 성지순례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불교성지순례 상품은 www.industour.com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사찰의 상황에 맞게 최상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인더스투어 불교성지순례팀 직통 : 02)2252-822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어떠한 문제라도 주인공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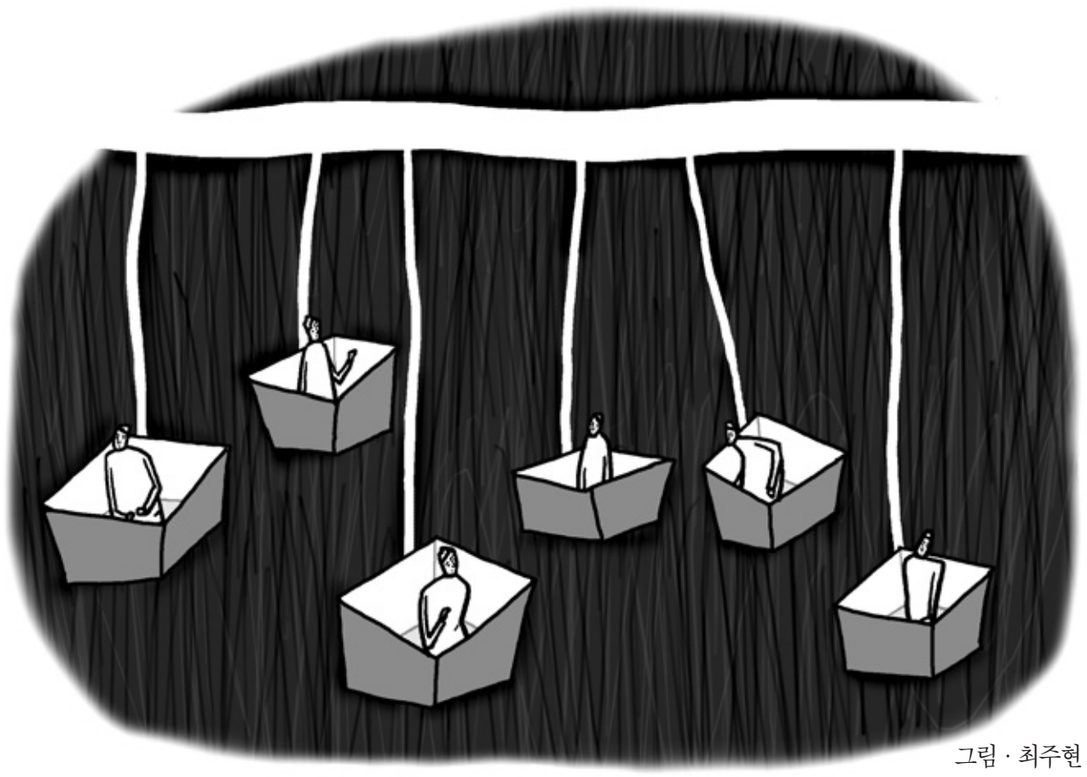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한생각이 중요한 것이므로 법당에 자주 나가되 그렇게 끈질기게 노닥거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가 기도드리는 백 일만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도,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 여북하면 여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높고, 풀포기는 풀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길이 바로 불교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울화가 치밀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어유, 나한테 그래 봐. 뭐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인제 저러다가 큰코다치지!'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코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든 누구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둘이 아니에요.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이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쓸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애나 어른에게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냥 입력이 됨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광로에 헌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헌 것들을 다 넣으니까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나옵니다. 그냥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되는 거는 자동적이죠.

아무리 자기한테 악하게 하고 아무리 죽을 짓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다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저 상대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바로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구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럭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선 후회를 하고 다시금 마음이 밝아져서 둘이 밝고 정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그렇게 화목해지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병고가 없어지니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는다' 고 한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위장 공장, 간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할 것 없이 어떤 공장에서든 파워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끌어 가는 내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스린다면 일체가 작용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건강해지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으니 중생들이 있는 이 집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헛되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과학 아닌 것이 없는데 물질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50%밖에 모르는 거지요. 보여 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왔으면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집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심성과학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이고 뭐고 없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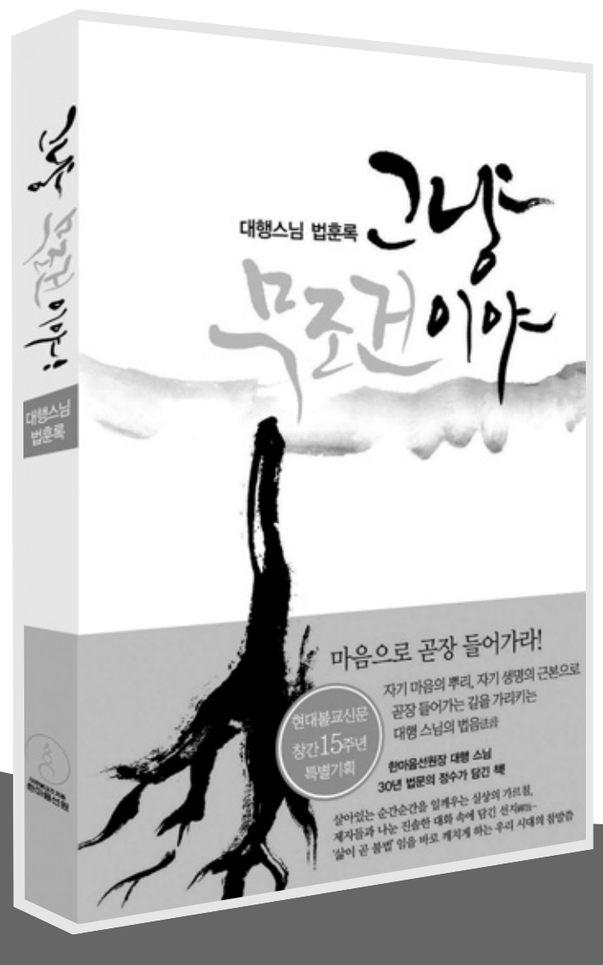
부처님은 한결같이 "너 나가 따로 없고, 네 국토 내 국토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도 여지껏 상대를 놓고 온통 바깥으로 끄달립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전부 기복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이 돌아가는 도리부터 알고 자기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해서 삽십이응신의 그 도리를, 천백억화신이 내 몸뚱이 속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가늠할 수 있죠.

이 세상이 말을 안 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되죠. 제 몸을 아무리 아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훌륭하고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자식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같이 살라고 가르쳤어요. 모두가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살듯이, 공생 공심 공체 공용 하듯이 모두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들을 봐도, 바람에 쓸려서 그냥 뿌리가 뽑힐 듯 말 듯해도 그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물이 파도냐, 파도가 물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마는, 물고기들이 다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작용이 없으면 우린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물속에는 태양열이 절반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쳐서 모두 굴려 줘야 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도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순응치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 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신부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왜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치고 박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산이 터져서 과학자들이나 인류가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 그와 같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작용이지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눈이 장님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하하하.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케네디 대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상대를 원망 말고 모든 것 내 탓으로 돌려야

☞ 29면에서 계속

통령 묘지에 가 보니까 불을 훨훨 날리게 해 놓았던데 그렇게 밤낮없이 불이 나오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도리야. 그거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항상 밝다는 뜻이야.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 놓고 가면서 그 뜻을 모르느냐? 모든 종교가 불교 주먹에, 한 주먹에 있다." 하고 말했죠. 거기 가면요, 신부나 목사님 또는 이름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또 독일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마는 모가 나야 걸릴 텐데 모가 나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습디다. 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죠.

하여튼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장하시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도 보살이 되려다 말아서 그렇지, 왜 몸뚱이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그러니 그 사대가 그냥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앉아서 천백억화신으로 제도하셨다. 천백억화신만 되겠느냐. 일체 중생이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했다면 당시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느냐. 즉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요.

집이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진짜 열반인 것이지 그냥 집이 없어지고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구경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즉 나를 죽여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서 또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또 더불어 같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지라 무슨 소용이 있겠소마는 여러분과 같이 질서를 지키면서 배우고 나가려면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열반이지 죽으면 열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살아서 못한 거를 죽어서 어떻게 하겠소?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간에 살면서 속세 따로 부처님 법당 따로 생각해서 둘로 보신다면 항상 선은 끊어질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둘 아닌 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어서 내 아픔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등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해 보인 것도 역시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늙었습디다. 그냥 늙었어요.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지 지금은 안 계시다고 하지 마세요.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에요.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만물만생으로 나투면서 설해 주시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분이 맛있게 잡숫고 안 잡숫는 거야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니까요. 허허, 그거야 어쩔 수가 없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큰스님, 오늘 이렇게 큰 법문 내려 주시고 일일이 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회가 공고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제 친지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투정부리는 마음으로 큰스님께 질문드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은, 여든 된 비구니 스님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미 스님한테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을 어떻게 큰스님이라고 하느냐면서 그 대답을 확실히 해 주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경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리를 확실히 전해 주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모든 사람들이 이 법석에 한자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큰스님의 좋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한번 넓게 생각을 해 봐요. 마음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몸은 한 몸으로 이렇게 앉았지마는 이 혹성에서도 살고 저 혹성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해서 무슨 행자승이고 수좌승이고 대승이고 소승이고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름일 뿐, 원 선법에는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돌아가고 지금 같이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러지 말고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둘러봐요.

질문자2(남):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행해 가는 중에 저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런 의식들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업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것이며 불성, 참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생각을 내면 모두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소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소, 즉 생각을 해내는 그 자체가 영혼입니다. 맷돌로 비유한다면 맷돌 추는 바로 불성이요, 즉 맷돌이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힘을 내주기나 했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바로 육신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삼라만상의 일체가 다 같이 혼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을 흔히 저희들은 말법 시대니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저희 중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멀고 또 사법과 사교가 활개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정법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수행하여 참자유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모르고 사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게 스님께서는 어떻게 포교하고 계시며, 그리고 스님을 대신해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교 교육대학 포교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스님: 이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구,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서 날짜를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탈이 생긴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요. 그 한 예만 봐도 살아나가는 게 모두 그렇게 관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리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그 권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냥 머리에 배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그대로라는 걸 백지 한 장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채면 이 세상을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허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걸어올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건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온통 붙들고 만날 걸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이죠.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온통 붙들고 만날 걸리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러 주세요.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게 뭣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그대로 거기다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다 맡겨라. 주인의 그 구멍은 한 구멍밖엔 없다.'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당신을 끌고 다니는 자체를 주인 삼아서 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치게 되어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100% 작용할 줄 알아야 에너지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3(남): 알겠습니다.

질문자4(남): 스님께서 불이(不二)의 법문을 해 주시면서 둘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짐작은 갑니다만 평소에 의심나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 가운데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육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말자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테니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살은 네 살이고, 닭의 생명도 네 생명이고, 닭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살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홀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들이 둘이 아니게끔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더니만 자기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건 왜? 그 도리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 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 초요 일 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 모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 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 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하하하….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anmaum Choir Festival

한마음 음악제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내용	제 1부 (선법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힌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이승묵(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가)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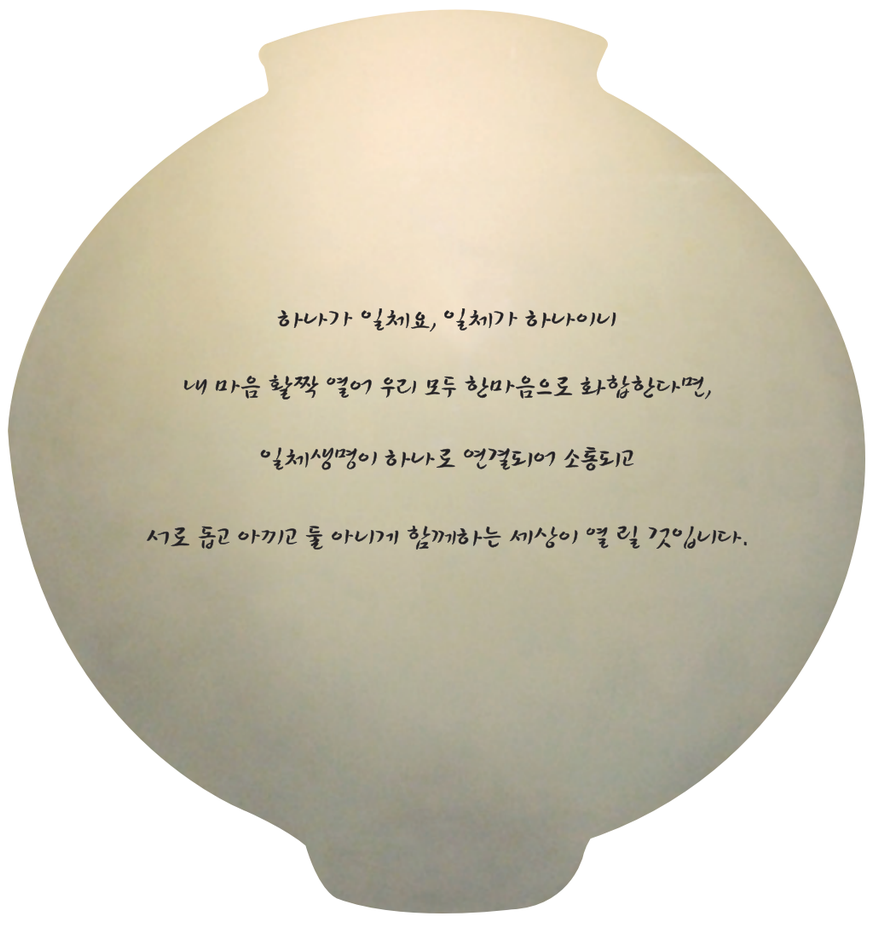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 의 031-470-3100

후 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미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더 프라미스는 종교와 문화, 인종과 정치의 다양성을 수렴하고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나눔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의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뷰티플마인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만, 불가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달항아리,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 너와 나, 남과 북,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작가 강익중

불자 세상보기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분노



이강렬
극작가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겸임교수

反월가 시위 전세계 확산
한국 사회도 양극화 심화
경제 문제 해결 타산지석
시위 모방 태도는 부적절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촉발된 시위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어느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일자리 창출 없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과 해가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중산층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반(反)월스트리트 시위가 향후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재정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도 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작금의 '점령 시위'는 이제 세계적 유행이 됐지만 시위를 촉발한 뿌리는 하나가 아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얻은 것 이상을 소비하며 문제를 키워왔다.

월가의 금융위기가 유럽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진 원인도 알고 보면 복지정책의 남발로 각국의 국가 재정이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계속해왔다. 이들의 대규모 반(反)긴축 시위는 오랫동안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이 사탕을 뺏기자 분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역시 1% 소수에 이익이 집중되는 왜곡된 시스템에 있다. 일자리와 먹거리에 대한 요구, 불평등한 경제 현실에 대한 분노다. 이제는 불평등에 대한 항의를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주택이나 물가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또한 심각하다. 우리의 현실도 미국의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년 실업률은 7.6%, 청년실업 인구는 31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일하지도 일할 준비도 하지 않는 청년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80년대는 그나마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소위 IMF를 거치면서 학력 갈등이 일어났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시대로 서민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기도 더욱 힘들어지고 대학 졸업 후 취직까지도 힘들어졌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자본이 거대한 탐욕을 부리는 동안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던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 수레바퀴를 돌릴 때는 사회전체가 요동을 치기 마련이다. 이때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설령 아무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반금융권 시위가 잦아든다 해도 자본주의에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 시위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시위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잉복지로 인한 결과로 벌이는 시위까지 모방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의 월가 시위와 남유럽의 반 긴축 시위를 섣불리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부대중 칼럼

나는 산책하며 꿈꾼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반복적인 명상수행 일상에 큰 도움
부정관은 감각적 쾌락 정화에 탁월
무상관은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약
수행은 정신의 변화 맞춰 알맞아야

아침마다 나는 홍제천을 산책한다. 홍제천에는 인공폭포와 음악분수가 있는 폭포마당이 있다. 나는 천변 산책로를 따라 한 시간쯤 걷는 것을 명상수행으로 삼았다.

그 동안 필자는 초기경전을 번역해왔다. 경전번역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명상수행을 닦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최근 필자가 번역한 〈우다나 감흥어린 시(詩)구〉란 경전을 읽은 여운 선생이 준 깨우침을 통해서였다.

올봄부터는 매일 아침 홍제천 천변을 산책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했듯이, 주로 욕망을 치유하기 위해 부정관을 하거나, 성냄을 치유하기 위해 자애관을 하거나,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해 무상관을 하거나, 사유를 뛰어넘기 위해서 호흡관을 한다.

6개월 이상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상수행을 닦고 익히는 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 가운데 특히 부정관(不淨觀)은 무덤가의 시체나 해골 등을 상기하며 '나도 죽으면, 저와 같이 되리라!'에 대한 명상이라 많은 사람이 꺼리지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정신과 신체를 정화하는 가장 탁월한 약이다.

그러나 성냄이나 미움, 원한, 좌절에 빠졌을 때, 부정관을 한다면 잘못된 처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다.

성냄이나 미움, 원한, 좌절에 빠졌을 때는, '모든 뭇 생명의 삶이 행복하기를!'하고 기원하는 자애의 마음을 우주에 가득 채우는 자애관이 가장 탁월한 약이다. 그러나 만약 욕망에 들떠있을 때 자애관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처방을 따르는 것으로, 더욱 더 우리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늪이나 절벽으로 빠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욕망이나 성냄에 빠졌을 때에 욕망이나 성냄이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상관을 한다면, 욕망이나 성냄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될 수 있다.

무상관은 어리석음에 대한 치유의 약인 것이다. 무상관을 닦고 익히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무상 · 고 · 무아'의 매우 깊고 심오한 통찰이 열린다. 마찬가지로 호흡관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호흡관은 생각이나 사유의 제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호흡관은 생각이나 사유의 치료약인 것이다. 따라서 욕망 갈애 열정 성냄 미움 원한을 호흡관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는 헛된 시도일 수가 있다. 욕망, 갈애, 열정은 부정관으로 치유해야 하고, 성냄, 미움, 원한은 자애관으로 치유해야한다.

이와 같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정신의 상태라는 조건들에 알맞게 처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명상수행센터나 사찰이나 종교단체에서 주는 일방적인 처방을 절대적인 것이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따르려 한다. 이는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부처님은 무상한 세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통찰하도록 가르치셨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수행관을 제시했다.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는 그것을 닦고 익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오늘 홍제천을 산책하면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황금불상에 가려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사원을 세운다면, 초기불교의 사원처럼 부처님의 두 발과 부처님의 말씀만이 모셔진 사원을 세울 것이다'라고 꿈꾸어 본다.

社說

패자의 공약까지도 섭수하길

제10대 비구니회장 선거가 명우 스님의 당선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비구스님도 못했던 직선제 경선을 큰 잡음 없이 치뤄냈다는 의미 외에도 1500여 비구니스님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 자리였다.

명우 스님은 전체 1366표 중 765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40% 이상(564표)인 운달 스님의 지지층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못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40%를 상회하는 반대표 탓에 이번 선거가 기득권에 대한 경책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 스님으로 양분된 비구니스님들의 선거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켠에서는 이번 선거의 화두가 비구니의 주체와 독립에 있었다고 말한다. 급진적으로 전국비구니회의 개혁을 주창했던 운달 스님이지만 여권 등 비구스님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많은 비구니스님들의 반발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노스님들로부터 시작돼 젊은 스님들에게로 불 번지듯 번졌다는 후문이다.

전국비구니회 개혁을 말한 운달 스님의 "이대로는 안된다"는 메시지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역풍을 맞고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두 스님의 공약만은 남아있다. 비구니스님들의 진정한 화합은 비구니의, 비구니에 의한, 비구니를 위한 종책 실천에 달렸다. 전국비구니회의 화합과 발전을 합장발원 한다.

동국대 앞 선교, 구성원들 반성해야

조계종립 동국대 앞에서 벌어진 선교행위를 제지한 스님이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동국대 정각원 교법사)은 지난 9월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앞을 지나다 선교행위를 목격했다. 선교행위가 목격된 곳은 동국대 학생들의 등굣길. 스님은 선교행위를 그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제정 스님은 선교 전단을 배포하던 젊은 여성 4인으로부터 유인물을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업무방해' 죄목으로 고소까지 번졌다.

이번 사건은 홀몸으로 나서 개신교인들의 선교행위를 저지한 한 스님의 무용담이 아니다. 종립대학 앞에서 선교행위를 하고는 스님을 고소까지한 몰지각한 개신교인의 파렴치한 이야기도 아니다. 부처님 도량인 동국대 앞에서 선교행위를 보고도 남의 일 보듯 침묵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이다.

교회와 개신교 단체들이 동국대를 타겟 삼아 선교를 벌여온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수년간 장엄등이 불타고 석가모니불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지는 크고 작은 훼불행위가 끊이지 않던 것이 10~20년 전 일이지만 당시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생회, 석림회 등 구성원들에게는 각자가 건학이념을 수호하겠다며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짐하는 신심이 있었다. 교내 곳곳에 게릴라식으로 쉴 새 없이 붙는 선교 전단을 떼어 내던 성의가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사라져 버린 동국대 구성원들의 신심이 되살아나길 바란다. 부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대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비록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 법구경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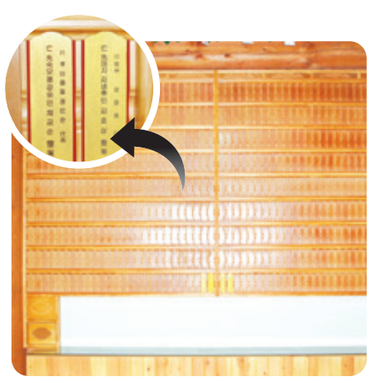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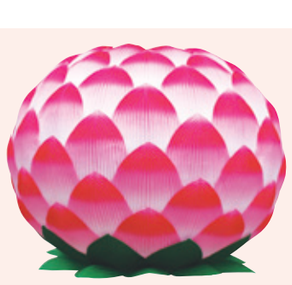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 · 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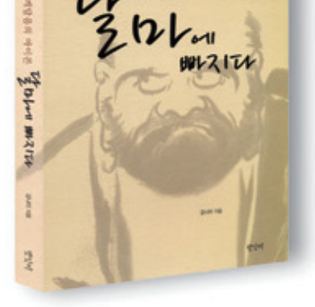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

첩첩산중 울진 불영사, 그곳에는 천 년 세월 전해 오는 맛의 비법이 있다!
이 책에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은 물론이고 불영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재미있는 절집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담겨 있다.
일운/B5/265쪽/18,000원/담앤북스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달마를 그린 선화 100여 점을 다루는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고 친근하게 달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깨달음의 정표로 상징되는 달마도를 통해 달마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사명 대사의 달마도, 윤두서의 달마도, 만봉 스님의 달마도 등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달마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신비와 베일에 둘러싸인 달마사상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김나미/A5/244쪽/16,000원/렛잇비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이 책에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과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과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여 자기의 근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미혹하게 과거의 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였다.
혜원/A5/309쪽/12,000원/유마북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